



한국민족연구원 ㉔

권두언 다시 발흥하는 러시아 민족주의 / 조정남

특 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 / 문용득 박동휘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 김일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 / 정호경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의 기원과 미래 / 송태희

기획 시리즈 II 국가와 미학 ②

미학과 정치 / 김영진

일반논문

다언어 사회의 '언어경관'과 국어교육적 내용화 / 김규훈

Archives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 Vladimir Putin
Speech by the President of Ukraine at a mee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 Volodymyr Zelenskyy



80

2022 Autumn

〈권두언〉

04 | 다시 발흥하는 러시아 민족주의

조정남

〈특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 |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초기 전역을 중심으로

문용득, 박동휘

35 |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김일수

59 |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

정호경

88 |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의 기원과 미래

송태희

: A. 스미스의 에스니에(ethnie) 개념을 중심으로

〈기획 시리즈 II〉 국가와 미학 ②

118 | 미학과 정치 -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중심으로 -

김영진

〈일반논문〉

156 | 다언어 사회의 '언어경관'과 국어교육적 내용화

김규훈

〈Archives〉

180 |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Vladimir Putin

202 | Speech by the President of Ukraine at a mee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Volodymyr Zelenskyy

Articles

-  The Rise of Russian Nationalism 04
Cho Chungnam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  Russian Cyber Warfare Strategy during the Early Stage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10
Moon Yongdeuk · Park Donghui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  The U.S. Strategy on Russia's Ukraine War 35
Kim Ils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The Study on The Ukraine War and China's Position 59
Jung Hokyu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eace Research Institution)
-  Ukraine East, West, it's the origins of conflict and future
: to the concept of ethne in A. Smith's 88
Song Taehee (SBS Biz)
-  Aesthetics and politics – Focusing on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 118
Kim Youngjin (Daegu University)
-  Linguistic Landscape in Multilingual Society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Construction 156
Kim Kyoocheon (Daegu University)

권두언

다시 발흥하는 러시아 민족주의

조정남



다시 발흥하는 러시아 민족주의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러시아 민족주의라는 태풍이 또다시 러시아권에 세차게 불고 있다.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이번 사태의 본원적인 매개물인 러시아 민족주의의 파고가 어디에서 그 위세를 멈출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소련-러시아로 이어지는 러시아권의 정치적 변혁의 가장 중심적인 동력으로 자리 잡아 온 러시아 민족주의는 소연방 해체 이후 한동안 은둔 상태에서 깨어나, 이번에는 ‘강력한 러시아’의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푸틴에 의해 다시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뭘니 뭘니 해도 푸틴이 꿈꿔온 강력한 대국 건설, 즉 러시아 민족주의 발흥을 통한 러시아연방의 확대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엘친에 의한 러시아 민족주의가 소연방으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매개체였다면, 푸틴의 그것은 더욱 강력한 러시아연방 건설을 향한 통합의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 측이 압도적 무력으로 쉽게 목적을 달성하고 끝낼 줄 알았던 애초 예상과 달리 장기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의아스럽지만, 침공하는 측이나 침공을 당한 두 나라의 지도자 모두가 시간이 갈수록 지친 모습을 보이긴커녕 점점 의기양양하게 되살아나고 있음도 예상 밖의 일이다. 도발자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각종 제재로 압박하는 서방세계를 상대로 벽찬 전쟁을 이어가면서도 위축되거나 쪼들리는 기색은커녕 점점 활기차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일방적인 침공을 당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불리한 전황과는 무관하게 이곳저곳을 활보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러시아에 대한 투쟁 의지를 강조하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더해가고 있다.

당초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러시아계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자민족 보호의 목적으로 시작된 푸틴의 갑작스러운 무력침공이 이제는 일정 지역에 대한 특수작전을 한참 뛰어넘은 동서양 진영 간의 새로운 블록 전쟁으로 장기화하면서 급기야는 신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또 하나의 세계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러한 장기화와 세계화라는 반전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미 그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한 것은 무엇보다 푸틴이 권좌에 오른 후 적극적으로 키워온 대국주의적 야망이다. 푸틴은 2000년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2020년의 헌법 개정으로 2036년까지 계속 집권이 가능케 되어, 과거 소련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흔치 않은 1인지배의 장기집권자로 올라섰다. 이제는 신생 러시아의 과도기적 지도자에서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강력한 통치자로 군림케 됐다. 그는 단순한 러시아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러시아를 더욱 강력하고 세계무대에서도 우뚝한 나라로 만들어 내야 할 책임감마저 가진 듯하다. 소련해체로 위축된 조국 러시아의 재건과 러시아 혼(魂)의 회복자가 되어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에게 구국의 메시아로까지 추앙받으려 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푸틴이 가진 가장 뚜렷한 정치적 야망을 알아 볼 수 있다. 지난 20여년 간 러시아 재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따른 상당한 성과도 거둔 푸틴에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가 내디딘 대국주의(大國主義)로의 커다란 발걸음의 하나이자 보다 장기적으로는 과거 소련방으로의 회귀를 위한 야심찬 계획의 실행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러시아는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헌법에 따라 ‘지역’ 또는 ‘민족’에 의해 구분된 ‘연방 구성 주체’로 구성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연방 구성 주체 수는 2014년 크림병합으로 추가된 2개 포함, 총 85개이다(국제적으로는 여전히 83개만 인정). 푸틴은 연방 확대를 우선 소련 해체 이후 대안체제로 결성된 CIS(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영향력 확대, 즉 CIS를 러시아연방의 완전한 세력권 편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려 했고, 그 첫걸음이 바로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다. 소련 해체 이후 CIS에 가맹하고 국가는 러시아를 비롯,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등 9개국.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공화국 중에서 발트 3국은 CIS 성립 전에 독립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에 가입치 않아(이들은 2004년 5월 EU에 가맹) CIS 창립협정에는 나머지 12개국이 비준하였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투르크메니스탄 2개국이 러시아가 소련의 유일한 후계국가가 되는 것에 동의치 않아, 협정을 비준치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정식 가맹국이 아니다. 그루지아(조지아)는 2008년에 CIS에서 탈퇴해 현재는 9개국만이 남았다. 이들 CIS 국가들 대부분이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모두 친 러시아적 자세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반해 우크라이나만은 유독 반러시아,

친서방, 친나토적인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바로잡아 보려는 것이다.

또 하나 푸틴은 그의 대국주의 야망을 위해 슬라브족의 민족적 결속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우크라이나와의 동질성, 더 나아가 민족적 일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무력침공의 또 하나의 배경인 듯하다.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인, 벨라루스인들과 더불어 구 소연방 내에서 민족적 뿌리를 같이 해 온 이른바 ‘슬라브 3총사’들이다. 소연방을 구성하고 있던 130여 민족집단 중에서 8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슬라브들은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등의 3개의 세부 민족집단으로 나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 민족집단은 더욱 큰 슬라브족이라는 민족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일한 민족집단이라는 자의식을 모두가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형제 민족’ 내지는 동혈 민족집단이다. 이들 중 우크라이나인들에 국한해 볼 때, 구소련 지역의 우크라이나인 총수는 소련 전체인구의 16.2%인 43,347,000명(1979년 통계)으로 이는 러시아인에 이은 두 번째로 큰 민족집단이다. 또 우크라이나의 전체인구는 46,600,000여 명으로 소련 인구의 약 18%. 우크라이나 인구의 민족적 분포는 우크라이나인이 73.6%, 러시아인 21.6%, 유대인 1.3% 순으로 구성, 소련의 개별 공화국 중에서 러시아공화국을 제외하고 러시아 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을 만큼 이들 두 나라 사이의 민족적인 공유 비율이 높다. 이 같은 민족관계에서 보듯 우크라이나는 자연스럽게 소련의 ‘주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인들에 있어서도 선호의 대상지이기도 해, 당시 소련이 계획적으로 이곳을 러시아화 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적으로 행사해온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의 각종 정부기관이나 조직에 많은 러시아인들을 의도적으로 파견, 그들이 민족적 자율성 신장을 저해하고 우크라이나 인들을 러시아화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펼쳐오기도 했다.

또 한 가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서방으로의 이탈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제2의 러시아’로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행사해온 역할과도 연관되어 있다.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와 접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의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소련의 여러 공화국들 중에서도 가장 동구권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제2차 대전 이전까지만해도 여러 차례 이들 국가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국경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간의 상호교류나 이해는 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가 가진 소연방 내에서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동구세계와의 강력한 역사적 연계성은 자연스럽게 소련 시대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소련을 대표하는 두 축으로의 역할을 해오게 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UN의 정회원으로 활동해 오기도 했으며, 이 밖에도 UNESCO, ILO 등을 비롯한 유수한 국제기구의 독립된 회원이었다. 폴란드, 체코,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등 7개국이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 총영사관을 개설하기도 했고, 쿠바, 인도, 이집트 등은 오테샤에 영사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특히 키예프는 실질적으로 소련의 또 하나의 대외 창구 역할까지 한 명실상부한 '제2의 러시아'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가져왔던 이 같은 국제적인 위상, 즉 '제2의 러시아'로서의 위상은 소련 해체와 탈냉전기를 맞이한 지금의 상황에서도 그들의 서구로의 이탈이나 탈러시아화를 푸틴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한 동인으로 위에서 살펴본 그의 대국주의, 연방제 확대에 대한 열망과 슬라브인들이 민족적 결합 의지 등과 함께 그동안 '제2의 러시아'로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의 서구화에 대한 경계심 등이 크게 작용했음을 살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이러한 동인들에 기름을 부어 무력도발을 감행케 한 직접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 구체적으로는 나토의 구소련권으로의 진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 등, 대국주의를 지향하는 러시아 민족주의를 크게 자극한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푸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 특히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다. 그는 푸틴이 위대한 러시아를 만드는데 전념하는 비이성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침략자라는 입장에 강력히 반발, 푸틴 홀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미어샤이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씨앗은 2008년 4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서부터 찾는다, 그때부터 2014년 2월 키예프에서 '메이단 혁명'으로 친러 성향의 당시 대통령이 축출되자, 이에 반발한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동부 돈바스 내전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는 또 2021년 11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체결한 '미국-우크라이나 전략적 파트너십 현장'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본다. 그는 1962년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한 군사위기를 거론하면서 당시 미국이 지금의 러시아가 느끼는 것과 같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아, 푸틴의 무력 침공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지난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승패를 가늠치 못하고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침공한 러시아 측이나 피해를 당한 우크라이나 측 모두가 적잖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푸틴으로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의 가장 실질적인 명분이기도 했던 우크라이나의 서방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는 일단 성공한 듯하고, 대내적으로도 강력한 리더십을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한 효과를 만들어 냈으로써 이번 침공의 막대한 전쟁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적지 않은 실익을 챙길 수 있었다. 먼저 그들은 서방세계로부터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서방권과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히고 이를 통하여 그동안 원해왔던 서구권으로의 편입이라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무엇보다도 큰 성과이기에 충분하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푸틴이 바랐던 예측화의 우려를

상당 부분 차단하고 독자적인 위상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과거 소련 시대 이래로 이어져 온 러시아화의 우려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서의 국격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큰 전리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해 젤렌스키의 리더십도 대내외적으로 더욱 분명히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낸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성과이다. 이렇듯 무력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의 푸틴이나,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우크라이나 두 나라 모두가 전투에서의 피해를 훨씬 능가하는 성과를 그들 지도자가 챙길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전쟁이 가지는 풀기 어려운 특이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전쟁에서 최후의 장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결정할 최후의 관건 또한 다름 아닌 러시아 민족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할 때부터 침공의 정당성을 러시아 민족주의가 담보해 줄 것으로 믿었다. 또 그러한 확신에서 세계적인 비난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지속시켜왔다. 러시아 민족주의는 러시아혁명 후 스탈린에 의한 소비에트체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소련정치의 전면에 부상하였고, 계속하여 강력한 체제유지의 논리였다. 겉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체제유지의 실질 논리로써 러시아 민족주의는 한 번도 뒷전으로 물러난 적이 없었다. 특히 소련의 해체과정에서도 이 러시아 민족주의는 구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CIS체제를 만들어 내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소수민족들의 민족적 봉기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냉전기 양극의 하나였던 소련이라는 강대국을 해체시키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힘 또한 러시아 민족주의였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새로운 지도자로 20여 년 이상을 장기 집권해오고 있는 푸틴으로서는 강력한 러시아 재건의 꿈을 러시아 민족주의의 발흥을 통해 성취하려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푸틴은, 러시아 민족주의는 절대적으로 러시아연방의 강대화를 바라며, 그 연장선에서 구소련권 이웃 국가들이 그들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 확대를 지지할 것으로 판단,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판단이 계속 유효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현재 서서히 야기되고 있는 러시아 민족주의의 균열 현상,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적이 아니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슬라브적인 동족의식, 연계의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대오가 내부로부터 그 정당성에 대한 합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분열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앞으로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커다란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보여준다. 러시아 민족주의의 균열의 전조일 수도, 태풍의 핵일 수도 있을 이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또 어떻게 관리될지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가장 큰 변수일 수 있을 듯하다.

특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초기 전역을 중심으로	문용득, 박동휘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김일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	정호경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의 기원과 미래: A. 스미스의 에스니에(ethnie) 개념을 중심으로	송태희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초기 전역을 중심으로



문 용 득

제1저자, 육군3사관학교
(321yd@naver.com)



박 동 휘

교신저자, 육군3사관학교
(cyberwar@kakao.com)

국문요약

2022년 2월 24일 오랫동안 민족적인 갈등을 겪어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대규모 전면전이 발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 전략에 따라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함께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사이버전을 통해 상대국 군대와 국민의 저항의지를 말살하고자 했다. 이는 냉전의 종식 이후 러시아가 추구해온 다양한 방식의 전쟁 수단을 결합시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형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 개념, 즉 차세대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서 사이버전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서 확인해보고자 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러한 전략 개념에 따라 전면 공격을 전후로 사이버 공격, 데이터 탈취, 허위조작사실 유포와 같은 사이버 심리전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국의 저항의지를 말살하여 전략적 승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범위가 전쟁 초기로 제한적이지만,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사이버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버전, 하이브리드 전쟁, 차세대 전쟁

I. 서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Kyiv) 시간으로 2022년 2월 24일 05시경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미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 ‘특별 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을 하달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중립화’를 전쟁 명분으로 내세우며, 러시아의 서쪽 국경과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Donbass) 지역에 대한 제한적 성격의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¹⁾ 하지만 러시아군은 동쪽의 돈바스 방면만이 아니라 2014년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합병한 남쪽의 크림 반도와 친(親)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의 북쪽 국경 쪽에서도 동시에 전면적인 침공을 해왔다. 오랫동안 민족적인 갈등을 겪어왔던 두 국가 간에 대규모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전쟁은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이 발전시켜온 차세대 전쟁(new-generation war) 전략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함께 진행되었다. 심지어 러시아는 자신들의 차세대 전쟁에 관한 군사교리를 충실히 따라 전쟁 이전 사이버전(cyber warfare)을 기반으로 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을 수행하여 적의 군대와 국민의 저항의지를 말살하고자 했다. 여기서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은 서방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전쟁 수단을 결합시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다. 러시아의 정보전은 텔레비전과 웹사이트,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온라인 수단을 통해 심리전이자 선전전을 수행해 상대국가의 전쟁 의지를 꺾으려는 것을 말한다(Thornton 2015, 42-43). 최근 이러한 정보전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서구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이버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²⁾

본 연구의 학문적 중요성은 기존 연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러시아 사이버전에 관한 해외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그 첫 번째는 러시아를 배후로 하는 사이버전 사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다(Blank 2008; Herzog 2011; Kozlowskin 2014). 두 번째는 서구식 개념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러시아 측면에서 설명을 하나 사이버전을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수단으로 간략히 서술하는 경향이다(Hoffman 2007; Rácz

1) 출처: <https://www.rt.com/russia/550408-speical-operation-putin-donbass/amp/> (검색일: 2022. 04. 07.).

2) 본 연구에서 러시아의 정보전 용어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구의 사이버전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할 것이다. 다만, II장 이론적 검토 부분에서는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원어 그대로인 정보전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2015; Giles 2016). 국내의 연구 경향 역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송승중(2017)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론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의 예 정도로 사이버전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송태은(2021)의 경우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협 수단으로 사이버 심리전을 면밀히 분석했으나, 이 역시도 러시아의 전략 중심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대응에 주목한 바 있다. 즉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의 중점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서의 한 수단으로서 사이버전을 간단히 언급하거나 러시아의 사례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망 측면에서 사이버전을 바라본 점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 개념하에서 사이버전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글은 러시아가 최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차세대 전쟁의 개념과 그 핵심 수단인 사이버전이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간 양측 간의 사이버전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서구의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을 기초로하여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 개념과 사이버전 전략을 설명할 것이다. 이후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통해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은 러시아의 사이버전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서구의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과 이의 러시아적인 적용인 차세대 전쟁을 설명한다. 이어서 차세대 전쟁 전략 개념 하에서 러시아 사이버전의 특성과 목표, 그리고 전쟁 초기 작전 간의 실제 적용된 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III장은 러시아의 사이버전 개념이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러시아는 물리적 전쟁에 앞서 사이버 수단을 사용하여 적의 전의를 말살시키려 했다. 심지어 전쟁이 임박한 순간의 사이버전은 전통적인 물리적 전쟁에서의 공격준비사격과 유사했다. 또한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사이버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 장에서는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이 갖고 있는 군사적 의미와 한국에 주는 함의를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본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본 글이 집필되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전쟁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1월 13일 사이버전 시기부터 초기 작전 기간(2022. 2. 24 ~ 3. 31)³⁾으로 한정할 것이다. 두 번째는 본

3) 러시아 국방부는 3월 25일 경 자신들이 세운 초기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발표하며 1단계 작전의 종료를 알렸고, 동시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쟁과 직결된다고 여겨지는 첫 대규모 사이버전이 발생한 1월 중순부터

연구가 서구의 시각에 치운친 점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문헌연구에 기초하고 있고, 서구와 러시아 양측의 사료를 발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함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양측의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만한 러시아 측의 자료 접근 제한과 필자들의 언어적 한계점 때문에 서구적 사료와 시각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서구와 국내의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일부 접근할 수 있는 친(親)러시아 성향 언론의 영문 웹사이트의 기사들을 중립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쪽의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했음을 알린다.

Ⅱ. 러시아 사이버전의 이론적 검토

1.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

냉전의 종식 이후 1994년 체첸전쟁,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서방국가에서는 전통적인 군사 강대국에 대항하는 비대칭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비대칭적 전략이 구사되었던 것은 냉전의 종식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기도 하지만(송승종 2017, 65), 이러한 위협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안보환경의 성격과 국제분쟁 양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송태은 2021, 70).

2014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전투방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동맹국들에게 특별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선전포고를 앞세우지 않고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전쟁 양상에 대해 나토는 침략국의 소행을 명확히 규정해야 가동할 수 있는 집단안보 매커니즘의 허점을 드러냈다. 2014년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나토의 설립 취지의 핵심인 헌장 5조 ‘집단방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천명했으나,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특정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아직까지 군사적 대응이나 보복을 실시한 적이 없다(박동휘 2019, 320).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취하지 못한 나토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리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앞서 설명한 러시아의 1단계 작전 종료 시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삼고자 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고도로 통합된 구상 속에서 노골적 및 은밀한(overt and covert) 군사, 준군사 및 민간 수단(civilian measures)들이 광범위하게 운용되는 현상”으로 정의했다(송승중 2016, 127). 나토 방위대학(NATO Defence College)의 라이징거(Reisinger)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이브리드전으로 간주하며, 군사와 비군사, 재래식 전력과 비정규 전력, 사이버전과 정보전과 같은 새롭지 않지만 모든 종류의 요소를 포함하는 전쟁 양상이 상대국에 대해 놀라운 효과를 달성하고 모호성을 창조하면서 그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하였다(Reisinger & Goltz 2014).

이와 같은 전쟁 현상을 규정하는 용어는 하이브리드 전쟁, ‘모호전(abmiguous warfare)’, ‘비선형 전쟁(unlinear war)’, 차세대 전쟁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Hoffman 2007; Galeotti 2014; Connell and Evans 2015).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측 시각을 반영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체적으로 차세대 전쟁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방과 러시아 각각에서 모두 용어의 개념이 정규전과 비정규전, 재래전과 비재래전,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테러 또는 범죄행위를 포함한 비군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송승중 2017, 68).

한편, 러시아 군사사상가들은 전쟁의 본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전쟁 형태의 출현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왔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가장 취약했던 1990년대에 서방은 나토의 군사력을 통해 유고슬라비아를 강제 분할했고, 2000 년대에 들어서 코소보 독립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제적 정권교체를 추진했다. 러시아는 미국에 의한 강제적 정권교체의 패턴이 대부분 새로운 방식이라고 평가한다. 군사작전 수행 결정, 인종청소 예방이나 대량살상무기 압수 같은 적당한 명분 발견, 마지막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순서로 이루어지는 정권교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노골적 군사침공 대신 선전매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비정부단체와 같은 비군사적 활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송승중 2017, 69).

새로운 전쟁과 무기체계를 연구해 온 러시아 장군 마흐무트 가레예프(Makhmut Gareev)는 『If War Comes Tomorrow』라는 책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전략 및 전술 개념이 서방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발전되고 있음을 설명했다(Gareev 1998). 그는 미래전에서는 정보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기술발전으로 정보전의 방법과 수단이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컴퓨터와 통신매체는 보다 빠른 정보 수집, 대응, 명령,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적의 컴퓨터와 통신매체를 파괴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자전도 활용될 것으로 보았다(김경순 2018, 69). 그는 새로운 정보전 방식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 대신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으며, 선언되지 않은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Rácz 2016, 35).

2014년 크림 반도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휘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는 그의 유명한 논문인 「The Value of Science is in the Foresight」를 발표하며 미래 전쟁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전쟁 개념을 크게 발전시킨 바 있다. 그는 ‘아랍의 봄’을 계기로 전쟁의 규칙이 변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Gerasimov 2016, 24). 전쟁에 있어 정치적·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이 증가하였고, 많은 경우 이들은 효과면에서 재래식 무기의 위력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현대전에서는 은폐되고 비대칭적이며 간접적인 방법과 수단의 중요성이 물리적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정보 공간에서도 중요하며, 심리전과 정보전이 강조되고 민간요소도 중점적으로 활용된다.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게라시모프의 논문을 통해 러시아가 취한 우크라이나 공세에 대한 개념적 근거를 발견했으며, 이를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고 불렀다(Fridman 2019, 106). 군사적 개념 측면에서 게라시모프는 차세대 전쟁을 “정치, 경제, 정보, 인도주의, 기타 비군사적 수단들의 광범위한 사용... 지역 주민들 사이의 내란과 은폐된 무장세력들에 의해 보충된다”고 묘사했다(Galeotti 2014, 2).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200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 군부의 관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러시아 고위 장교 세르게이 체키노프와 세르게이 보그다노프에 의해 더욱 자세히 설명된다. 그들은 정치, 경제, 기술, 생태, 정보 수단을 병행해 적의 군사적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비대칭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무력 대결을 앞두고 또 무력 대결을 벌이는 동안 비군사적 방법을 대량으로 사용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노골적으로 강조한다(Chekinov and Bogdanov 2013). 그들에 따르면 현대전쟁은 육·해·공 3차원 공간을 넘어서 정보의 4차원으로 확대되며, 따라서 정보기술을 비롯한 네트워크 체계에서 상대적 정보 우위가 미래전의 성공을 보장한다. 실제 공격에 앞서 집중적인 선전활동과 적의 지휘통제통신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자전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대상국에 대한 정보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차세대 전쟁의 주전장은 사이버 공간이 될 것이며, 차세대 전쟁은 적군과 국민의 사기를 꺾어 저항의지를 말살하기 위한 심리전과 정보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송승중 2017, 75).

체키노프와 보그다노프는 차세대 전쟁의 전개 과정을 개전 이전부터 종전 기간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기술하였다(Chekinov and Bogdanov 2013, 19-22). 개전 단계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적국 주민의 단결을 와해시키고, 적군의 사기를 약화시키기 위해 외교·경제·이념·심리·정보적 수단을 통한 대대적인 선전선동 활동이 전개된다. 군사적 단계가 시작되기 직전에 군부대, 핵심 정부시설 및 주요 인프라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과

뒤이어 적의 정부 및 군의 무력화를 겨냥한 본격적인 전자전 활동이 실시될 것이다. 이를 후속하여 장거리 포병뿐 아니라 정밀유도 미사일, 드론 및 여타 자동화 무기가 포함된 대대적인 군사공격이 진행된다. 체키노프와 바그다노프가 이론적으로 기술한 차세대 전쟁의 모습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보여 준 군사작전과 매우 흡사하며(송승중 2017, 76), 2022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개전 이전 단계부터 사이버 수단을 비롯한 비군사적 성격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하이브리드 전쟁의 핵심 수단으로서 사이버전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학술적 개념화에 큰 기여를 한 프랑크 호프만(Frank G. Hoffman) 역시 사이버전에 관해 언급했다(2007, 28). 전통적 군사작전을 비롯하여 전술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첩보활동(intelligence operations),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이 사이버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송태은 2021, 76). 한편,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용어 대신 미디어, TV, 컴퓨터와 인간의 마음을 포함하여 이를 정보 공간(information space)이라고 부른다(Ajir and Vaillant 2018, 72). 러시아 정부 문서인 ‘정보 공간에서 러시아 연방군의 활동에 관한 개념적 견해(Conceptual View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Information Space)’(2011, 5)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정보전이란 정보시스템, 프로세스, 자원을 훼손함으로써 정보 공간에서 국가와 대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러시아가 상대국의 국민들을 세뇌시켜 사회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 공간은 국가 선전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적 수단인 것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가 수행한 정보전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러시아의 목표와 목적을 숨기면서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러시아의 목표가 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 대중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설득을 강요한 것이다(Snegovaya 2015, 7).

러시아가 말하는 정보전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 수단으로서 공격수단과 행위 주체자의 모호성을 추구한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국가 행위자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고, 국가 활동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모호한 전술은 비가시적인 영역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사용될 경우 공격 주체의 모호성을 극대화시켜 공격 대상의 적대행위가 강화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전술로 사용될 수 있다(송태은 2021, 77). 정보전은 2014년 크림 반도에서 러시아 군사작전의

성공에 중심에 있었다. 전술적 차원에서 전자전(electric warfare, EW)과 사이버 공격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켰고, 보다 광범위한 미디어 활용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대중들이 러시아 측의 시각을 수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의 정보전은 서구적 개념인 사이버전으로 치환될 수 있다. 사이버전 역시도 디도스 공격(DDoS Attack,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단순 사이버 공격부터 해킹과 악성 코드 유포, 그리고 상대방의 전투 의지를 말살하는 사이버 심리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이버전의 목표는 대상 국가의 핵심 인프라 시스템과 대중, 그리고 앞서 설명한 크림 반도와 같은 위기 조장이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전방위적인 연결로 인해 국가 인프라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악성 코드 감염이나 해킹을 통한 민감한 정보의 유출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등 사이버전이 하이브리드 위협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전은 앞서 언급한 모호성으로 인해 상대국의 정책결정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여론 교란이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정치적 우위를 점하는 전략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결국 전쟁 목적 달성의 마지막 결정적인 국면에서만 군사행동이 필요하므로 목적 달성에 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김정순 2018). 나아가 초연결 사회의 연결성은 사이버전 파괴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취약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공격주체가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은 상시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송태은 2021, 80). 특히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정면대결을 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비대칭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정보전, 서구적 개념으로 사이버전은 러시아에게 비대칭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무엇보다 재래식 군사력을 보완하는 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다. 더불어 초연결 사회로 칭해지는 정보 기술의 출현과 급속한 발전은 러시아인들의 성공적인 작전활동을 보장시켜 주었다(Ajir and Vaillant 2018, 74). 사이버 공간은 비교적 적은 비용과 희생으로 상대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박동휘 2022, 26-31).

또한 사이버전은 악성코드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인프라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훼손을 가하는 기술정보 차원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여론을 교란시키는 사이버 심리전의 방법으로 수행된다.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와 아랍의 봄, 색깔혁명에서 대중에게 끼친 정보의 위협적인 영향력을 인식했기 때문에 정보를 심리적 차원에서도 위협적으로 인식한다(신범식·윤민우 2020, 170).

냉전의 종식 이후 러시아는 대외 전쟁 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러시아식 차세대 전쟁 전략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부터 이러한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 전략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은 그들이 정보전이라 부르는 사이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전쟁 시작 이후만이 아니라 전쟁 이전부터 이러한 전략 개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의 국민과 군대의 저항의지를 말살하여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구체적인 사이버전 방법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공공 웹사이트, 군과 정부의 주요 지휘 시스템의 마비부터 악성 코드와 해킹을 통한 주요 데이터 유출,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의 매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Ⅲ.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사이버전의 실제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오랜 민족적 갈등과 경제적, 그리고 안보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Elsherbiny 2022).⁴⁾ 무엇보다 2004년 초반 발생한 오렌지 혁명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서방과 친러시아 국민들 간의 분열이 극명하게 대외적으로 노출되었다(Kuzio 2010). 그리고 2014년 유로마이단 사건으로 인해 양측 간의 내부적인 정치적 대립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무력 개입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구체적인 무력 개입은 2014년 러시아의 불법적인 크림 반도 합병이고, 이어진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자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었다(Grant 2015; Robinson 2016).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19년 5월 취임 이후 보여 온 EU와 나토 가입 시도 등의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은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기 시작했다.⁵⁾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러시아의 직접적 움직임은 2021년 봄부터 시작하였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으로 군사력을 이동시켰다. 4월에 러시아 군대는 병력 10만 명 이상과 40척 이상의 전함을 크림 반도 지역으로 보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

4)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과 관련된 근본적 원인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것. Sebastian(2022), Mankoff(2022), Parihar(2022).

5) 출처: <https://www.ft.com/content/4c942a46-8791-11e9-a028-86cea8523dc2> (검색일: 2022. 05. 13.).

다.⁶⁾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서방 세력에 대한 경고성 훈련만은 아니었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훈련에 참가한 병력과 장비 상당수가 훈련 종료 후에도 러시아로 복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21년 11월 1일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러시아의 모습이 또다시 서방의 위성첩보자산에 의해 식별되었다.⁷⁾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 중지 촉구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2월 7일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시 경제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수단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물릴 것이라 경고했다(박동휘 2022, 129).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의 이유는 2021년 12월 17일 푸틴의 공식적 요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서방과 나토의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 내에서의 군사활동 중지, 구소련 국가의 나토 가입 금지, 러시아에 대한 법적인 안전보장 등을 요구한 것이다.⁸⁾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긴장감을 높였다. 푸틴은 2022년 1월 친(親)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북쪽 국경으로 약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이동시켰다.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다. 러시아는 2월 10일 벨라루스와 대규모 연합훈련인 ‘얼라이드 리졸브 2022(Allied Resolve 2022)’에 돌입한 데 이어 돈바스 내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¹⁰⁾ 결국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05시(키이우 현지시간)를 기점으로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작전 뿐만 아니라 남부의 크림 반도, 북부의 벨라루스 방면에서 동시에 총공세를 단행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침공을 발표한 날 마찬가지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공격에 쉽게 굴하지

6)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n-defence-minister-oversees-large-scale-military-drills-crimea-ria-2021-04-22/> (검색일: 2022. 05. 13.).

7)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1/11/01/satellite-russia-ukraine-military-518337> (검색일: 2022. 05. 10.).

8)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dec/17/russia-issues-list-demands-tensions-europe-ukraine-nato> (검색일: 2022. 05. 17.).

9)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an/17/russia-moves-troops-to-belarus-for-joint-exercises-near-ukraine-border> (검색일: 2022. 05. 17.).

10) 출처: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europe-russia-vladimir-putin-moscow-bcd0c04a2aa146e76b7e757f482f27bb> (검색일: 2022. 05. 19.).

않았다. 러시아군이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 물리적 전쟁 개시 이전의 사이버전

현대적 개념으로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은 체첸 전쟁을 기원으로 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윌리엄 J. 네메스(William J. Nemeth 2002)의 미 해군대학 석사학위 논문은 체첸 전쟁을 분석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이버 수단이 결합된 형태로서 본격적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시작은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the 2008 Russo-Georgian War, 2008.08.07.-12.)이었다. 러시아는 전쟁 시작과 동시에 사이버 수단을 통해 조지아의 전략적 시설을 무력화시켰고, 이들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켰다.¹¹⁾ 러시아는 육군, 해군, 공군의 재래식 전력과 사이버 수단을 결합해 단 5일 만에 조지아의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후 2014년 크림 반도의 불법적 합병 당시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하이브리드 전략을 선보인 바 있다(Rácz 2015, 81-82). 요약하면 러시아는 과거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던 주변 국가들 중 친서방 정책을 펼치는 이들에 대해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사이버 수단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략 개념에 따라 러시아는 2014년의 크림 반도를 합병 이후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친서방 정책을 펼치려는 우크라이나를 괴롭혀 왔다. 우크라이나는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두 번에 걸쳐 러시아를 배후로 하는 해커 세력으로부터 전력망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은 바 있다(Park and Walstrom 2017). 유로마이단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 친서방 성향의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는 2016년 12월의 사이버 공격 발생 직후 지난 두 달간 자국 내 전력시설에 대하여 6,500여 회의 해킹 시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박동휘 2022, 123).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배후로 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해왔다. 이에 더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2015년 전력망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기점으로 하여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방어태세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투자했다.¹²⁾

11) 출처: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10208/1/BBSMSTR_000000100135/view.do (검색일: 2022. 05. 13.).

12)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2/02/19/despise-years-of-preparation-ukraines-el>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고조되던 2021년 12월 향후 3년 간 3,100만 유로를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안보 분야 등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¹³⁾ 즉, 우크라이나는 그간 러시아가 적대적 행위를 위해 즐겨 사용해온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에 대한 이해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안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비에도 불구하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전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했다. 특히나 이는 체키노프와 보그다노프가 주장한 러시아 정보전의 전개 과정과 목적에 부합했다. 두 군사사상가는 개전에 앞서 수개월에 걸쳐 적국 주민의 단결을 와해시키고, 적군의 사기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Rácz 2015, 38). 적의 군대와 국민의 저항의지 말살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다양한 수단들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사이버전이었던 것이다.

계속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시도 중 의미 있는 사건은 2022년 1월 14일에 일어났다. 그날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해 약 70여 개의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¹⁴⁾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교부, 내무부, 에너지부, 교육부, 농업부 등과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여러 주요 웹사이트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¹⁵⁾ 이에 덧붙여 우크라이나 측은 공격 이후 수시간 내에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정상화 시켰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불능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빠른 대처가 있었음에도 1월 14일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렸다. 러시아와 연계되었다고 의심되는 세력에 의한 디도스 공격에는 데이터 탈취 시도와 디페이스먼트(defacement)라는 위·변조 공격이 함께 했다. 어떠한 데이터의 외부 유출도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공식적 발표와 달리 위·변조 공격을 받은 웹사이트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웹사이트 화면이 공격자가 게시한 다른 사진과 글들로 도배되는 위·변조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외교부 웹사이트 등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협하는 글과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게시된 사진 파일에는 우크라이나 지도와 국기에 대한 모독을 넘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그리고

electric-grid-still-far-from-ready-for-russian-hackers-0001037 (검색일: 2022. 05. 19.).

13)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2/02/19/despite-years-of-preparation-ukraines-electric-grid-still-far-from-ready-for-russian-hackers-0001037> (검색일: 2022. 05. 19.).

14)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jan/14/ukraine-massive-cyber-attack-government-websites-suspected-russian-hackers> (검색일: 2022. 05. 20.).

15)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xpect-worst-ukraine-hit-by-cyberattack-russia-moves-more-troops-2022-01-14/> (검색일: 2022. 05. 20.).

폴란드어로 아래와 같이 쓰여 있었다.

“우크라이나인이여! 너희의 모든 개인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업로드 되었다.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파괴되었고, 그것들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희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두려워하고 최악을 기대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다.”¹⁶⁾

위·변조 공격에 의한 사이버전이 사이버 심리전 공격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이는 전쟁 시작 이전 적의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진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 전략에서 강조하는 사이버전이였다. 2021년 12월부터 러시아의 전쟁 위협이 한층 고조되던 상황에서 러시아를 배후로 하는 세력이 “두려워하고 최악을 기대하라”라는 문구를 남겼다는 것은 마치 전쟁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전쟁을 원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즉각 트위터를 통해 IT 전문가들이 이미 복구를 시작했고, 사이버 수사팀이 수사에 들어갔음을 알렸다.¹⁷⁾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회의 부의장인 세르히 데미듀크(Serhiy Demedyuk)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위·변조 공격의 배후로 UNC1151을 지목했다.¹⁸⁾ UNC1151은 이전부터 벨라루스 정부를 이롭게 하는 해킹 사건에 자주 등장해온 벨라루스 정보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해커 집단이었다.¹⁹⁾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맨디언트(Mandiant)가 2021년 11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해커 집단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벨라루스의 야권 세력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해왔던 것에 반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정부를 공격하지는 않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볼 때, 벨라루스 정보기관과 연계된 UNC1151로 추정되는 세력의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를 배후로 한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만이 아니라 EU도 사이버 공격 직후 러시아의 배후설을 내놓았다. EU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맡고 있는 조셉 보렐(Josep Borrell)은 누구 소행인지 명확한 증거는 없지

16) 출처: <https://www.npr.org/2022/01/14/1073001754/ukraine-cyber-attack-government-web-sites-russia> (검색일: 2022. 05. 23.).

17) 출처: <https://www.npr.org/2022/01/14/1073001754/ukraine-cyber-attack-government-web-sites-russia> (검색일: 2022. 05. 23.).

18)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xclusive-ukraine-suspects-group-linked-belarus-intelligence-over-cyberattack-2022-01-15/> (검색일: 2022. 05. 25.).

19) 출처: <https://www.mandiant.com/resources/unc1151-linked-to-belarus-government> (검색일: 2022. 05. 25.).

만 우리는 그 공격의 배후로 의심할만한 국가는 상상할 수 있다는 모호한 말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 것이다.²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월 14일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자신들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한편 또다시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며 군사적 긴장감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저항의지를 꺾고자 했다. 그것은 2월 15일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었다. 이번 공격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조금 더 암시하듯 정부기관 웹사이트만이 아니라 군의 핵심 웹사이트 공격에 집중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국영은행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육군 군부 웹사이트가 다운된 것이다.²¹⁾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에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고, 미국 국가안보회의와 영국 정부도 이에 가세해 러시아의 군사정보국(GRU, Glavnoye Razvedyvatelnoye Upravlenie)을 공격자라며 비난을 했다.²²⁾ 공격의 배후 분석 근거는 해당 공격 기간 동안 러시아 군사정보국이 보유한 IT 인프라와 이번 공격의 대상이 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속한 IP 주소 및 도메인 간에 발생한 엄청난게 많은 양의 데이터 통신 행위였다(박동휘 2022, 146).

여기에 더하여 전쟁 개전 이전에 갑자기 파괴형 악성 코드가 등장하기도 했다. 2022년 1월 14일 대규모 디도스 공격, 해킹, 그리고 위·변조 공격 바로 전날인 13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업 등의 전산망에서 파괴형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이었다. 이를 처음 발견한 해외 민간 글로벌 IT 보안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지능 센터(MSTIC, Microsoft Threat Intelligence Center)는 이 악성 코드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기업, 비영리 단체, 그리고 IT 기관 웹사이트만을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 주목했다.²³⁾ ‘위스퍼게이트 와이퍼(WhisperGate Wiper)’로 명명된 본 악성 코드는 금전을 요구하도록 설계된 랜섬웨어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격 대상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만이 있는 독특한 구조를 지녔다. 보안전문가들은 이러한 위스퍼게이트와 같은 형태의 악성 코드를 특정 국가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역할을 하지

20) 출처: <https://news.sky.com/story/ukraine-reveals-website-attacks-were-cover-for-more-destructive-actions-12517808> (검색일: 2022. 05. 26.).

21) 출처: <https://www.npr.org/2022/02/15/1080876311/ukraine-hack-denial-of-service-attack-defense>.

22)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assess-russian-involvement-in-cyber-attacks-on-ukraine>; <https://www.ncsc.gov.uk/news/russia-ddos-involvement-in-ukraine>;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513645/UK-joins-US-in-pinning-Ukraine-DDoS-attacks-on-Russia> (검색일: 2022. 05. 27.).

23) 출처: <https://www.microsoft.com/security/blog/2022/01/15/destructive-malware-targeting-ukrainian-organizations/> (검색일: 2022. 05. 28.).

못하게 만드려는 악의적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²⁴⁾ 즉, 파괴형 악성 코드의 목적은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시 우크라이나 주요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이버전 도구였던 것이다.

3. 전쟁의 시작과 러시아의 사이버전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에 따라 사전에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상 병력의 투입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목표물에 대한 미사일, 포병, 항공기를 통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여 주병력의 안전한 진격과 수월한 작전을 돕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러한 전통적인 군사교리에 따른 공격준비사격에 앞서 사이버 공격준비사격도 실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2월 23일 늦은 오후 시간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집중적인 사이버 준비사격이 시작되었다. 그 공격은 디도스 공격과 악성 코드 공격으로 나눌 수 있다. 러시아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의 정부기관과 군, 그리고 금융기관 웹사이트들을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²⁵⁾ 이는 러시아의 사이버전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전쟁 시작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마비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기 위한 매우 계산적인 전략적 행위였다. 그 이유는 지상병력의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쟁을 지휘해야 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국방과 항공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금융 및 IT기업의 컴퓨터와 시스템을 파괴할 목적으로 악성 코드 공격도 발견되었다.²⁶⁾ ESET 연구소는 이 악성코드에 ‘헤르메틱 와이퍼(Hermetic Wiper)’라는 이름을 부여했다.²⁷⁾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는 악성 코드 유포 전에 공격대상으로 선정된 피해 네트워크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라는 명확한 목표 대상을 설정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월 24일에는 일부 컴퓨터와 시스템의

24) 출처: <https://blog.alzac.co.kr/4421>.

25) 출처: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technology-business-europe-russia-9e9f9e9b52eaf53cf9d8ade0588b661b> (검색일: 2022. 06. 02.).

26) 출처: <https://www.eset.com/sg/about/newsroom/press-releases1/products/hermeticwiper-new-data-wiping-malware-hits-ukraine/> (검색일: 2022. 06. 02.).

27) 출처: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62> (검색일: 2022. 06. 02.).

파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이를 보완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악성 코드인 ‘아이작 와이퍼(Isaac Wiper)’도 식별되었다.²⁸⁾

악성 코드의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는 공격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면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동일한 목적의 악성 코드가 우크라이나에서만 식별되었다는 사실은 특정 국가를 공격의 배후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두 국가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된다면 이들 악성 코드를 통한 유사한 공격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팩트 체크 전문가들은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허위 또는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보고를 내놓았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전쟁 바로 직전까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²⁹⁾ 그런데 양적이나 질적으로 대수롭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관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는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질적으로나 위험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달라졌다. 전 세계인들이 전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 자극적인 글과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많은 조회수를 거두거나 모금을 통해 돈을 벌고자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팩트 체크를 전문으로 하는 유럽 디지털 미디어 전망대(European Digital Media Observatory)는 이를 특정한 목적을 가진 러시아의 선전전으로 분석했다.³⁰⁾ 그 이유는 전쟁 초기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틱톡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 등에 게시된 정보와 사진들 중에 포함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상당수가 러시아의 정보전 전략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유럽 디지털 미디어 전망대는 개전 이후 나온 300여 개의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관련 자료들을 분석해 두드러진 담론을 5가지로 정리했다.³¹⁾ 그것들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등장하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예고’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혐오’, ‘우크라이나 지도자와 군인에 대한 지나친 영웅주의’, ‘영화 세트장에서 찍은 가짜 전쟁’, ‘젤렌스키에 관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까지였다. 이들 중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과장된 영웅주의를

28) 출처: <https://www.welivesecurity.com/2022/03/01/isaacwiper-hermeticwizard-wiper-worm-targeting-ukraine/> (검색일: 2022. 06. 02.).

29) 출처: <https://edmo.eu/2022/02/28/war-in-ukraine-the-fact-checked-disinformation-detected-in-the-eu/> (검색일: 2022. 06. 08.).

30) 출처: <https://edmo.eu/2022/02/28/war-in-ukraine-the-fact-checked-disinformation-detected-in-the-eu/> (검색일: 2022. 06. 08.).

31) 출처: <https://edmo.eu/2022/03/11/the-five-disinformation-narratives-about-the-war-in-ukraine/> (검색일: 2022. 06. 08.).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러시아의 정보전 전략에 따른 전쟁 의지 말살과 관련이 깊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허위 정보는 가깝게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시민들의 저항의지를 꺾는 것부터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자신들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반대하거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부정적 여론 조성을 위한 것까지 있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젤렌스키에 관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였다. 전쟁 개전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치즘에 대한 철퇴를 전쟁의 이유 중 하나로 내놓았다.³²⁾ 그런 측면에서 젤렌스키를 신나치주의자로 묘사한 가짜 뉴스는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기재로 작동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전쟁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젤렌스키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정보가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특히,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 의장인 바체슬라프 볼로딘(Vjačeslav Volodin)의 공식 텔레그램이 이러한 허위 뉴스의 출처이기도 했다.³³⁾ 군통수권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떠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선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군인과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항전이 아닌 투항과 전쟁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큰 허위 뉴스였다. 러시아 정부가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는 물리적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가짜 뉴스이자 러시아의 전략과도 합치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국외 탈출이라는 엄청난 허위 정보 전략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역시도 온라인의 빠른 전파력을 통한 대응을 선택했다. 젤렌스키는 2월 25일을 시작으로 자신이 직접 등장하는 영상을 찍어 소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첫 번째 게시된 짧은 영상은 어두운 밤 자신의 참모, 그리고 총리 등과 함께 수도 키이우 대통령 집무실 앞 거리에서 자신의 전쟁 의지를 과시하고 전 세계에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었다.³⁴⁾ 한밤중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찍은 영상에서 그들 뒤로 보이는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좌)과 의회 건물(우)이었다. 전쟁 초기 러시아가 키이우로 젤렌스키 암살을 위한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비춰 볼 때, 이는 대통령의 위치를 노출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다.³⁵⁾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전쟁 초기 러시아가 배후로 추정되는 젤렌스키의 국외 탈출설이란 가짜 정보에 맞서 군과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취해야만 하는 어쩔

32) 출처: <https://www.rt.com/russia/550408-speical-operation-putin-donbass/> (검색일: 2022. 04. 07.).

33) 출처: <https://voxukraine.org/en/fake-volodymyr-zelensky-fled-ukraine-after-russian-invasion/> (검색일: 2022. 06. 09.).

34) 출처: <https://www.nytimes.com/2022/02/25/world/europe/zelensky-speech-video.html> (검색일: 2022. 06. 10.).

35) 출처: <https://www.thetimes.co.uk/article/spies-accused-of-betraying-putins-chechen-units-537fj6lnr> (검색일: 2022. 06. 10.).

수 없는 선택지였다.

첫 번째 영상 이후부터는 단순히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군과 국민의 결집을 위하여 자신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 영웅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형태의 젤렌스키 대통령 영상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³⁶⁾ 다음날인 2월 26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낮 시간대에 의회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영상이 온라인상에 올랐다. 그리고 3월 7일에는 집무실 내에서 찍은 영상까지 올라왔다.

러시아는 전쟁 개시 이전에 이어 물리적 전쟁 개시에 맞춰 집중적인 사이버전을 수행했다. 미사일과 지상군의 투입 불과 몇시간 전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사이버전은 마치 군사교범에 나오는 공격준비사격과도 유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그리고 주요 공공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과 악성 코드 유포는 전쟁 지도부의 눈을 가리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자연스럽게 국민과 군의 저항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효과도 갖고 있었다. 군사적 관점에서 물리적 마비와 심리적 마비를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마비의 수단이 사이버전이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전선에서 전투하는 군인과 포탄 소리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국민들의 희망을 꺾고자 했다.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들과 군인들을 버리고 국외로 망명했다는 소식이 유포되었다.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며 러시아의 사이버 심리전을 돕는 상황도 발생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상황에 대한 군사적 관점 분석을 통해 볼 때,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군사적 교리에 따라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하여 차세대 전쟁을 수행했음이 분명하다.

IV. 결 론

2022년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순간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냉전의 종식 이후 큰 전쟁은 없으리라 생각했던 인류의 바람이 빛나간 사건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러시아의 전쟁 전략과 미래의 전쟁 모습을 전망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례임이 틀림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은 전쟁 초기 국가가 승리라는 목표 아래 전쟁의 전체 국면을 위해 사이버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어 그 연구 가치가 높다.

36) 출처: <https://voxukraine.org/en/fake-volodymyr-zelensky-fled-ukraine-after-russian-invasion/> (검색일: 2022. 06. 09.).

먼저, 러시아는 서구가 말하는 비선형 전략인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을 차세대 전쟁이란 용어로 부르며 군사적 교리를 정교히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듯이 미 해대원의 석사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용어 자체도 냉전 종식 직후 러시아와 체첸 간의 전쟁 사례를 분석하여 나온 바 있다. 더욱이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은 전통적인 물리적 수단과 사이버전이 결합된 첫 대규모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는 군사교리적으로 사이버전을 정보전이라 부르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전쟁 이전부터 전쟁 단계에서까지 적의 국민과 군대의 저항의지를 말살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디도스 공격과 같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부터 해킹과 악성 코드 유포, 데이터 탈취,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가상 공간을 통해 가짜 뉴스와 허위조작사실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전을 통해 전쟁의 전략적 승리를 추구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전역은 이러한 러시아의 사이버전이 군사교리상으로 정확히 적용된 전형적 사례이다. 러시아의 군사사상가들이 주장한 것처럼 전쟁 이전에 적의 국민과 군인들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도록 사이버전을 수행했다. 물리적 전쟁 시작 약 40일 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웹사이트들이 디도스 공격부터 해킹 공격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약 10일 전에 우크라이나 군대의 웹사이트도 러시아 추정 해커들의 공격 목표였다.

전쟁의 시작 역시도 사이버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물리적 공격 수시간 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웹사이트 등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이다. 이는 마치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된 공격준비사격이라는 전술과도 유사했다. 전 세계의 군대는 지상병력의 안전과 작전의 성공을 위해 미사일과 포병 사격으로 적의 주요 목표에 대한 제압 또는 전선에 있는 병력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한 후 주력 부대를 적의 전선으로 진격시킨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미사일과 포병 사격에 앞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공격준비사격을 먼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것이다.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사이버전은 계속되었다. 본문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데이터 탈취부터 상대의 지도부와 군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이버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당연한 모습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사이버전의 형태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는 허위조작된 정보가 급속도로 대중에게 유통된 사실이었다. 저항의지를 말살하기 위한 다양한 허위정보가 유통되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외 탈출 뉴스였다. 그 가짜 뉴스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적의 시스템 무력화와

중요한 정보의 탈취를 넘어 상대의 전쟁 수행 의지 자체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러시아의 사이버전 전략이 완벽히 적용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서구에서 하이브리드 전쟁과 사이버전으로 불리고 있는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과 정보전을 통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초기 전역을 분석하였다. 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전쟁 이전부터 사이버전을 통해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을 적용하여 적의 국민과 군대의 저항의지를 조기에 말살시켜 손쉬운 전쟁의 승리를 추구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금 이순간,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 개념에 기초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이버전을 수행하리라 예상된다. 더욱이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과 사이버전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군사교리상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연구는 작성 시점의 문제로 인해 전쟁 초기까지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본 논고가 앞으로 전쟁 종료 이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사이버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김경순. 2018.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 우크라이나사태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4, 63-95.
- 박동휘. 2019. 국가의 적대적 사이버 공세 전략의 기원 - 볼셰비키 혁명 직후 영국의 러시아 내전 개입을 중심으로. 영국 연구 42, 317-352.
- _____. 2022. 사이버전의 모든 것. 플래넷미디어.
- 송승종. 2016. 하이브리드 전쟁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 연구 59(4), 125-165.
- _____. 2017.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의 이론과 실재. 한국군사학논집 73(1), 63-94.
- 송태은. 2021. 디지털 시대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의 목표와 전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9(1), 69-105.
- 신범식·윤민우. 2020. 러시아 사이버안보 전략 실현의 제도와 정책. 국제정치논총 60(2), 167-209.
- Ajir, Media and Bethany Vaillant. 2018. Russian Information Warfare: Implications for Deterrence Theory. Strategic Studies Quarterly 12(3), 70-89.
- Blank, Stephen. 2008. Web War I: Is Europe's First Information War a New Kind of War?. Comparative Strategy 27(3), 227-247.
- Chekinov, S.G. and S.A. Bogdanov. 2013. The Nature and Content of a New-Generation War. Military Thought, 12-23.
- Galeotti, Mark. 2015. 'Hybrid War' and 'Little Green Men': How It Works and How It Doesn't. E-International Relations. 출처: <https://www.e-ir.info/2015/04/16/hybrid-war-and-little-green-men-how-it-works-and-how-it-doesnt/> (검색일: 2022. 05. 30.).
- Gareev, M. Translated by Yakov Vladimirovich Fomenko. 1998. If War Comes Tomorrow? The Contours of Future Armed Conflict. Routledge.
- General Gerasimov's article is available in English from Mark Galeotti. 2014. 7. The 'Gerasimov Doctrine' and Russian Non-Linear War. In Moscow's Shadows (blog), 출처: <https://inmoscowsshadows.wordpress.com/2014/07/06/the-gerasimov-doctrine-and-russian-non-linear-war> (검색일: 2022. 06. 15.).

- Gerasimov, Valery. 2016. The Value of Science is in the Foresight. Military Review January-February, 23-29.
- Grant, Thomas D. 2015. Annexation of Crimea.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09(1), 68-95.
- Herzog, Stephen. 2011. Revisiting the Estonian Cyber Attacks: Digital Threats and Multinational Responses. Journal of Strategic Security 4(2), 49-60.
- Hoffman, Frank G. 2007.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 Kozłowski, Andrzej. 2014. Comparative Analysis of Cyberattacks on Estonia, Georgia and Kyrgyzstan. European Scientific Journal 3, 237-245.
- Kuzio, Taras. 2010. Nationalism, identity and civil society in Ukraine: Understanding the Orange Revolu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43(3), 285-296.
- Mankoff, Jeffrey. 2022. Russia's War in Ukraine Identity, History, and Conflic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NATO. 2014. 7. Hybrid War: Hybrid Response. 출처: <https://www.nato.int/docu/review/articles/2014/07/01/hybrid-war-hybrid-response/index.html> (검색일: 2022. 06. 15.).
- Nemeth, W. J. 2002. Future War and Chechnya: a Case for Hybrid Warfare. Master Thesis, Monterey, California. Naval Postgraduate School.
- Parihar, S. 2022. Russia Ukraine War-the Current Scenario. Academic Journal of Digital Economics and Stability 16, 29-38.
- Park, D. and M. Walstrom. 2017. Cyberattack on critical infrastructure: Russia and the Ukrainian power grid attacks. University of Washington, The Henry M.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SIS News.
- Racz, Andras. 2015. Russia's Hybrid War in Ukraine: Breaking the Enemy's Ability to Resist. FILA Report No. 43.
- Reisinger, Heidi and Aleksandr Golts. 2014. Russian Hybrid Warfare: Waging War Below the Radar of Traditional Collective Defence. research paper no. 105, NATO Defence College.

- Robinson, Paul. 2016. Russia's role in the war in Donbass, and the threat to European security.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17(4), 506-521.
- Sebastian, N. 2022. Russia-Ukraine Conflic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Global Politics. *From Illusion to Reality-The Nation* 75, 762-773.
- Snegovaya, Maria. 2015. Russia Report 1. Putin's Information Warfare In Ukraine: Soviet Origins of Russia's Hybrid Warfare.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ISW). 출처: <https://www.understandingwar.org/report/putins-information-warfare-ukraine-soviet-origins-russias-hybrid-warfare> (검색일: 2022. 05. 30.).
- Russian Federation. 2011. Conceptual View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Information Space.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er of Excellence(CCDCOE). 출처: https://ccdcoe.org/uploads/2018/10/Russian_Federation_unofficial_translation.pdf (검색일: 2022. 06. 15.).

- 국방일보
- AP News
- CNN
- Computerweekly
- NPR
- Politico
- Reuters
- Russian Today(RT News)
- Sky News
- The Financial Times
- The Guardian
- The New York Times
- The Times
- VoxUkraine

- blog.aljac.co.kr

- edmo.eu
- eset.com
- gov.uk
- mandiant.com
- microsoft.com
- ncsc.gov.uk
- welivesecurity.com

● 투고일: 2022.07.04. ● 심사일: 2022.07.28. ● 게재확정일: 2022.08.25.

| Abstract |

Russian Cyber Warfare Strategy during the Early Stage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Moon Yongdeuk (First Author,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Park Donghui (Corresponding Author,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On February 24, 2022, an all-out war broke out between Russia and Ukraine, which have long experienced ethnic conflicts. Based on its new-generation war strategy, Russia wages its war on Ukraine not only in the physical domains but also in cyberspace. It tries to obliterate the will of Ukrainian people and military to resist against Russia by using cyber warfare. This is a typical hybrid war that Russia has pursu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Russia's cyber warfare as a key means of new-generation war, and tries to verify the concepts in the real case. In fact, Russia pursues its strategic victory by obliterating the will of the Ukrainian resistance through variety methods such as cyber attacks, data theft, and cyber psychological warfare before and after an all-out war. Although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early stag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an in-depth discussion on Russian cyber warfare.

〈Key words〉 Russia, Ukraine, Cyber warfare, Hybrid war, New-generation war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김 일 수 (충북대학교)
(mukim65@naver.com)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나토확장 정책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미국과 러시아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와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 의지에 따른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해온 나토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미국외교정책의 비전으로 내세우며 나토 확장, 동유럽에서 미사일 방어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영향력 유지로 대응해 왔는데, 이러한 두 국가 간의 대립적인 군사 정책과 전략은 미·러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미국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향후 아시아 재균형을 통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에 민스크 협정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국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주제어 : 나토 확장, 미국적 국제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I.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가하면서, 냉전종식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한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동유럽에서 다시 한번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북부 국경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규모의 러시아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전쟁이 5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책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가진 이해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싸움이 아닌 미국 및 나토 유럽 국가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의 성격도 나타나고 있어 국제관계의 역학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외교정책의 두 비전인 미국적 국제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각 행정부의 미국 외교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미국의 나토 정책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 이후 추진한 친 서방 정책이 현재의 전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향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II. 미국외교정책의 비전과 변화

: 미국적 국제주의 vs.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미국이 어떻게 세계정치에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와 관련해 두 가지 비전이 경쟁해 왔는데, 그것은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이다. 고립주의가 유럽의 세력균형 정책에서 벗어나 미국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외교정책이라면, 국제주의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건국 이후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 비전을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같은 연방주의자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같은 주권주의자들

은 미국의 상업이 가장 중요하며 꼭 필요한 군대만 보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미국에서는 고립주의(Isolationism) 정책이 채택되었다.

고립주의는 외국의 어느 지역과도 영구적인 동맹을 맺지 않고 유럽의 정치와 전쟁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미국을 분리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최선이 된다는 신념이다(Wittkopf and McCormick 1999, 36). 미국은 건국 이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주로 고립주의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했고 미국 의회는 1930년대에 대외 분쟁에서 미국이 중립 정책을 취하게 하는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건국 이후 줄곧 고립주의를 표방해왔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외교정책의 방향을 국제주의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국제주의는 국제적 원칙과 국가 간 협력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문제나 사건에 관여해야 한다는 외교적 신념이다(Ikenberry 2018).

국제주의는 미국적 국제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미국적 국제주의는 국제체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선호하고 잠재적인 대항 세력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미국적 국제주의는 다자주의보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선호한다. 많은 행위자가 참여할수록 미국이 원하는 바가 실현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적 국제주의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미국적 국제주의를 신념으로 선택하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의 패권 유지가 세계평화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봉쇄하고 잠재적 도전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강한 군사력의 보유를 통해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Kyl and Lieberman 2016).

반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미국적 가치와 제도가 확산하면 국제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변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하드파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프트파워, 자유무역, 국제제도 등을 강조한다(Ikenberry 2009).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한편, 국제원조를 옹호하고 국제기구들이 자유주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를 촉진한다고 믿는다(Rielly 1999).

냉전 기간 미국은 미국적 국제주의를 내세우며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일수 2014). 이와 동시에 자유, 인권, 시장경제 확산을 위한 UN, 나토 등 다자간 협력체를 설립하며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은 독보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단극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미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미국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된 것이었다 (Krauthammer 1990).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무렵의 국제질서는 미국적 국제주의가 가장 만연했던 시기로 이를 반영하듯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에 의해 감행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자신감을 드러낸 전쟁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봉쇄만으로는 부족하며, 예방 전쟁으로써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적 국제주의는 미국적 개입주의로 불리기도 한다(Ikenberry 2018).

반면,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초점을 두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핵확산과 테러리즘과 같은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였고, 2010년 러시아와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서명하였다. 나토의 동진 및 EU의 확대와 관련해 미·러 관계가 갈등 상황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양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 유지와 같은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이루었다.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내세우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표방하였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전임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유산을 거부하고 다자질서를 회복할 것임을 내세웠다. 또한 미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주장하였다.

이처럼 미국 외교정책에서 행정부마다 국제주의의 지향하는 목표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의 미국적 가치를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은 공통의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바이든 정부에도 이어지고 있다.

Ⅲ. 나토 확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과 원인을 나토의 확장과 연관 지어 미국의 책임과 러시아의 책임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나토의 확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된다.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무엇보다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Vladimir Putin)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푸틴의 독재 정부는 나토가

러시아에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편집증적 외교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Owen 2022; Mulligan 2022).

반대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신념에 따른 나토의 동진 확장에 안보적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Mearsheimer 2014).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공격,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나아가 2022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확대에 따른 러시아의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나토의 확장정책과 관련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나토 정책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에 의해 설립된 군사동맹으로, 전후 나토를 출범시킨 것은 구소련을 봉쇄하고 소련의 유럽으로의 확장을 견제하여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나토는 하나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는 집단 방어를 담보하고 있다(Cottrell 1960). 이에 대응해 구소련은 1955년 소련·동유럽 집단안보체제로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를 설립하였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바르샤바조약 기구도 해체되었으나, 나토는 1997년 이후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12개 국가들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편입시켰다.

미국은 소련이 와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황에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토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유럽의 새로운 민주국가를 포함하는 것이 강력한 나토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여긴다(Rutland 2015). 반대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의해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황에서 나토를 확대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비판하였다(Gavin et al. 2022).

나토의 확장과 관련한 상반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토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1994년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 1997년 유럽·대서양 동반자이사회 등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1997년 나토는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구성원이었던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나토가입을 승인하여 1999년 이 국가들을 가입시켰으며, 2004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7개국의 나토 가입이 이루어졌다.¹⁾ 2008년 다시 한번 나토의 확장 시도로서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1) 나토는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Estonia),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와 동유럽

나토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려는 선언문 채택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나토의 확대와 관련한 러시아의 우려에 대해 나토의 창설 조항은 동맹의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럽 국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나토의 국가 중에서 러시아 국경과 연결되는 국가는 소수이며, 나토가 방어 동맹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²⁾

나토의 영역 확대가 지속되면서, 나토의 개입도 확장되었다. 나토는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9년 유엔안보리 결의 없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나토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어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 군대의 훈련,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소탕 작전 등을 전개했다.

부시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편입시키겠다고 결정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국경의 서쪽 방파제로 만들고자 시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담공유(burden-sharing) 문제로 미국-나토 사이의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도 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에 대한 재활성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2021년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공약을 천명하면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협상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White House 202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탈냉전 이후 계속된 나토의 활동영역 및 확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봉쇄전략을 내세웠던 전 소련 대사 케난(George Kennan)은 1997년 나토를 확장하는 것은 “국가주의, 반서구 및 군국주의 경향에 불을 붙일 것이기 때문에 운명적 오류”가 될 것으로 지적하였다(Goldgeier 1999). 봉쇄정책 연구의 권위자인 개디스(John Gaddis)도 나토의 확장은 탈냉전기 현실을 잘못 반영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Beinart 2022).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역시 본인의 회고록에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고자 한 것은 지나친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게이츠는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인들이 중요한 국가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Gates 2014). 실제 그에 따른 결과는 2008년 조지아와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4개국인 불가리아(Bulgaria), 루마니아(Romania),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총 7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2) 출처: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521392> (검색일: 2022. 05. 31.).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2014)는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 사태의 책임이 서방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어샤이머는 EU와 나토의 동진은 미국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앞마당이듯,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안보에 중요한데도 미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Mearsheimer 2014).

미어샤이머의 이러한 비판은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한 외교정책결정 실패를 지적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의 나토 확대, EU 확장, 민주주의의 축진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긴다. 특히 그는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한 것과 러시아의 뒷마당에서 전략적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실패라고 주장한다(Mearsheimer 2014).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염려는 과한 주장이라고 본다. 아무도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안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심지어 나토조차도 러시아를 위협하지 않았으며, 러시아가 자신들의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여긴다(Chotiner 2022).

2. 나토 팽창에 대한 러시아 반응

냉전 종식 후 러시아 외교는 좌절의 연속이었다. 경제력과 영향력을 상실한 러시아는 미국 패권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구소련 공화국의 나토 가입 반대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하였고, 1999년 나토군이 유고슬라비아에 폭격했을 때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보호할 수 없었다. 또한 러시아는 구공산권 동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인 조지아의 장미혁명(2003년), 오렌지혁명(2004년)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나토의 영역 확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미국으로부터 나토 확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으려 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소련의 내정 불안으로 무력해진 고르바초프는 나토 확장과 관련해 서면에 의한 어떠한 공식적인 약속도 보장받지 못했다. 계속된 나토 확장에 대해 고르바초프 이후 집권한 엘친과 푸틴은 유럽의 안보는 유럽인들이 처리해야 한다며 나토가 러시아에 근접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특히 푸틴은 강한 러시아의 회복을 주장하며 러시아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푸틴은 국유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의 통제 역할을 강조하였고, 러시아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취하면서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과

서방에 대응하고자 했다(이종문 2010).

푸틴 정부는 미국의 나토 확장과 EU 확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는 '나토의 확장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가'라며 미국에 불만을 쏟아냈고, 2007년 3월 푸틴은 뮌헨에서 나토의 러시아 국경으로의 병력 배치에 미리 간 상호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한겨레 08/04/01). 이어 2008년 4월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자 푸틴은 나토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게 된다면 국가 분열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러시아는 나토 동맹의 설립 근거가 구소련을 봉쇄하는데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나토 확대를 통해 러시아의 안보이익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유럽 안보구조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러시아가 협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 안보구조가 미국과 유럽만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러시아의 상황을 반영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하였다. 러시아는 2013년 우크라이나가 당시 진행 중이던 EU 가입 논의를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취하도록 압박하였다. 친러성향의 야누코비치가 EU 가입을 중단하자 이에 반대하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나면서 2014년 야누코비치 정부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Rutland 2015). 러시아는 유로마이단 시위가 크림반도의 러시아인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하였다.

러시아의 공격적 의지를 보여준 크림반도 합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나토 가입에 적극적 정책을 내세우자, 러시아는 2021년 4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어 2021년 12월 7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민스크 협정과 노르망디 형식 회담³⁾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상준 2022).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지정학적, 안보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 등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중·동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유럽 국가와 러시아 사이에서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며,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수송로로도 중요하다. 또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는 러시아 함대가 흑해에 직접 접근하여 유라시아에 주둔을 유지할 수

3) 민스크 협정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후 2015년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체결한 평화협정이다. 노르망디 형식 회담은 2019년 12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프랑스·러시아·우크라이나 4개국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해 논의한 회담이다.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Cohen 2014).

둘째, 안보적 이유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빠르게 나토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적극적 나토 가입 정책은 세계 강국으로서의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로서는 향후 동유럽 질서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활적 이익으로 양보할 수 없다.

셋째,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러시아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2010년 1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맺고, 세 국가 간 무관세 무역을 도입했다. 2013년 9월과 12월에는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연합에 가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유라시아경제 연합의 전신이다(Rutland 2015).

넷째, 문화적 동질성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일부로 여겨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인식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와 사회적·문화적으로 긴밀한 동질성을 갖고 있다. 러시아 디아스포라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약 800만 명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 러시아는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보장받고자 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2022년 2월 17일 미국에 '안전보장협상'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하며 동유럽의 안보구조를 구소련 해체 시기로 되돌려 놓을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자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남동우 외 2022, 1064).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현 민주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시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나토의 동진 확대를 저지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와 같은 탈 소비에트 국가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며, 강한 러시아를 위해 구소련권 국가들과 연대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Carpenter 2022).

3.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과 러시아와의 갈등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친서방 정책을 취해왔는데 그 이유는 크게 안보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서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안보적 측면에서 친 EU, 친 나토 정책이 자국의 안보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직후 약 1,900여 기의 전략 핵탄두를 가진 세계에서

세 번째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의 대가로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였다.⁴⁾ 이는 1994년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기존 국경을 존중해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며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데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미국이 핵 철거 비용을 부담하면서 핵탄두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가 강제 합병되는 등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9년 헌법에 EU와 나토 가입을 명문화한 개헌안을 승인하였다(Pifer 2019).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의 집단방어 원칙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경제권에 편입시키고자 하였지만,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우크라이나는 EU 블록에 가입하게 되면 효율적인 금융 시장이 확보되어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안정되면 경제적 불확실성의 감소로 투자가 장려되고, 이에 따른 고용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여긴다.

무엇보다도 EU 블록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신청했다고 해서 EU 가입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E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신청국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모든 영역에서 EU 규칙과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 안정된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통해 러시아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야누코비치 재임 당시 이루어졌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시도는 러시아에 의해 무산된 바가 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EU 가입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EU는 안보협력체가 아닌 경제협력체로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 러시아가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 민주화를

4)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reaties.un.org](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3007/Part/volume-3007-I-52241.pdf). December 5, 1994.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3007/Part/volume-3007-I-52241.pdf>(검색일: 2022. 06. 10.).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2004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오렌지혁명은 서방의 지지를 받았고 이후 당선된 유셴코(Viktor Yushchenko)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임을 내세웠다. 2014년 3월 러시아에 의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합병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연합에서 탈퇴하였고, 나토와 EU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2022년 3월,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은 탄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이유는 “유럽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EU 블록에 가입하기 위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결사 항전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다.

IV.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외교정책

우크라이나 침공이 6개월을 넘기며 애초 예상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적인 주권 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몇 가지 측면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전략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수정주의 권위주의 국가와의 대결 구도로 인식하고 이 전쟁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위협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들이 러시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푸틴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하였고, 4월 13일에는 러시아 침공에 대해 집단학살(genocide)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에 파괴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방어할 무기를 보유하게 할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먼저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금융제재, 수출규제, 에너지 관련 금수 조치, 정치인 및

제재 주요 인사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금융제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러시아군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기는 군사은행 등 2곳의 러시아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및 유럽과의 거래를 전면 봉쇄하였다. 또한 러시아 국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서구 국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존의 국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미국은 2022년 3월 13일부터 러시아 국책은행인 VTB 은행 등 러시아 7개 은행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시키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보유외환 동결 조치 등을 단행하며 러시아를 재정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첨단 기술 관련 제품과 부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가하고 최혜국대우를 박탈하였다(매일경제 22/02/25).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 품목 번호를 추가하였으며, 이밖에도 러시아산 수산물과 다이아몬드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러시아 에너지 금수 조치도 단행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8일 러시아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원유 및 천연가스를 비롯해 석탄 등에 대한 수입을 전격 중단시켰고, 미국인이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같은 날 영국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발표했으며, 독일은 이러한 조치에 앞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 송유관 ‘노드스트림2’ 승인을 중단했다(일요신문 22/02/23).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통해 러시아 경제를 1980년대 이전 상황의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Bennett 2022). 이 제재의 결과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투자 금지가 이루어지고 600개 이상의 러시아 주재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고 주식이 폭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은 다르게 나타난다. 천연가스의 50%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독일을 비롯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본래 경제제재의 목적은 상대 국가의 행동을 교정하여 그 국가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을 증대시

키고 있다. 즉,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와 직접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초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이상의 긴급 안보 지원을 제공한 후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포함하는 추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미 의회는 지난 4월 28일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가결해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실시간·무제한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텔스 지대공 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과 함께 저격소총, 유탄발사기, 야간투시경, 레이더, 초계함 등 다양한 장비를 제공하였다.⁵⁾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대응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실시한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83%가 우크라이나군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양당 평균 89%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elhami 2022).

2.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방안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스타일이 다자주의와 협상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가 이루어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통치 행태를 보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제재에 초점을 두면서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내 여론이 군사 개입에 부정적이다. AP 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72%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elhami 2022; Pew Research Center 2022).

셋째, 안보적 이유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유럽과

5) 출처: <https://www.cfr.org/background/ukraine-conflict-crossroads-europe-and-russia>
(검색일: 2022. 05. 30.).

푸틴 러시아의 갈등 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유럽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중요한 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확대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직접 미군을 파병하지는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다(White House 2022).

미국은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옵션을 선택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으로 확산하여 나토 동맹국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시행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이 공격받을 때만 비행금지 구역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줄곧 미국에 동조하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은 푸틴을 축출하여 러시아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바르샤바에서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 미국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정권교체를 하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러시아가 정전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 리비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국가에 대한 정권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김일수 2019, 117).

3.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미국의 역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에서 내세우는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은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따라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이루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중립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도 러시아가 제안하는 중립화 방안은 거부한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에 의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안전보장이 제공되어야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The

Gurdain 22/03/30).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은 그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미국의 나토 동진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 정책에 있다고 여기는 학자들에게서 강조됐던 주장이다. 미 국무장관을 역임한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일찍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신 편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강조하였다.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전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의 중립화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Beinart 2022).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러시아에 확신시켜야 하며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earsheimer 2014).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지난 4월 26일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블링컨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이나 비동맹국가가 되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중앙일보 22/04/2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 미국과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느 쪽도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도 절대적 힘을 바탕으로 다른 쪽을 억지하지 못하며 전쟁이 종료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듯, 열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크라이나가 대치 상태를 이어가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입장차이로 이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가 어렵다는 것을 직시시키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영토 문제를 절충하도록 하여 친러 성향의 지역을 독립지역으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를 철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바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 속에서 미·러 한쪽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에서의 미국 패권 유지와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 의지에 따른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즉, 탈냉전 이후 계속된 미국의 나토 확장, 미국의 동유럽에서의 미사일방어 건설 추진, 조지아 및 우크라이나 등에서의 민주화 혁명,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에 따른 EU 및 나토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푸틴 행정부의 강한 러시아 정책 등 다양하고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EU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국가 기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미국과 나토의 지원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패퇴시킬 가능성은 작아지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가 붕괴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쉽게 몰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과 대응이 이루어지며 예상치 못한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대될 것이다. 경제침체는 국내적인 불만을 일으켜 푸틴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바마 행정부 이후 외교의 중심축을 아태지역으로 조정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에 몰두해 온 미국에게 외교적 딜레마이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나토와 러시아는 신냉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에서 동맹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고 이후의 유럽 안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전쟁을 평화적으로 중단시킬 것인지, 전쟁 이후 나토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또한 아태지역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이 유럽 안보와 관련해 나토 역할을 유지 또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방어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을 종식하고 향후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을 통한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아닌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와 EU의 확대가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훼손해 현재의 전쟁이 발생했다는 푸틴 정부를 '범죄자'로 치부하기보다는, 빠르게 휴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주도록 노력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에 민스크 협정을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허용하지만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을 방침을 내세워 전쟁이 종식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동부는 자치국이 되거나, 러시아가 침략을 끝내는 대가로 러시아 일부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 김도희. 2020.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79호. 2020.12.15.
- 김동수. 202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자유주의적 헤게모니로의 회귀. 인문사회과학연구 22(1), 415-438.
- 김동열. 2015. 미국의 대러시아 외교: 지정학의 회귀?. JPI정책포럼 2015-07, 1-13.
- 김성진. 2022.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변화. 중소기업 45(4), 175-218.
- 김일수. 2014.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론과 실제. 충북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9.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 정책 : 쟁점 및 전망. 한국정치정보학회 22(1), 99-126.
- 남동우·김덕기.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역사적 근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 인문사회 21 13(2), 1063-1074.
- 박정호 외. 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2(6), 2022.3.21.
- 신범식. 2009. 21세기 러시아의 동맹·우방 정책의 변화와 전망. EAI NSP Report 41.
- _____. 2019.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러 관계 2030. 신아세아 26(3), 134-172.
- 윤익중. 2016. 러시아-미국 관계발전과 중앙아시아: 푸틴 3기 정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40(3), 223-268.
- 이상준. 2022.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issue brief 2022-06, 1-12.
- 이종문. 2010. 푸틴시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국가경제발전모델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26(1), 69-105.
- 이태림. 2021. 3.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러 관계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56, 1-30.
- 이홍섭. 2015. 푸틴의 반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JPI정책포럼 2015-01, 6-17.
- 전재성. 2020.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 공약과 미래의 세계질서. EAI스페셜 리포트 2020.08, 1-18.
- 제성훈. 2016. 탈냉전기 미·러 관계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위기’. 국제지역연구 20(1), 31-58.

- 조한범. 2022. 우크라이나 사태 평가와 국제질서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22.4.14.
- 최재덕.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국제질서의 변화와 러시아의 외교전략. 중소연구 44(3), 49-53.
- 홍완석. 2021. '신 냉전 2.0'으로의 질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미·러 관계. 슬라브학보 36(1), 207-236.
- Bennett, John T. 2022. Biden's Actions and Words since Warsaw Align with Walked-back Declaration that Putin must Go.
<https://rollcall.com/2022/04/07/bidens-actions-and-words-since-warsaw-align-with-walked-back-declaration-that-putin-must-go/>
- Carpenter, Ted Galen. 2022. Ignored Warnings: How NATO Expansion Led To The Current Ukraine Tragedy.
- Chotiner, Isaac. 2022. The Soft-Power Politics That Exploded Into War: Did Russia repel Ukraine, or did Europe pull it in?.
- Cohen, S. 2014. U.S. Reaction to Russia in Ukraine: Time for Realism and Common Sense on Ukraine. The Nation.
- Copp, Tara. 2022. Biden's Nuke Review Omits 'No First Use', Kills Naval Cruise Missile.
<https://www.defenseone.com/policy/2022/03/bidens-nuke-review-omits-no-first-use-kills-naval-cruise-missile/363823/>
- Cottrell, Alvin J. 1960. NATO: Cornerstone of U.S. Foreign Policy. Current History 39(229), 139-146.
- Deni, John R. 2021. U.S. Force Structure Changes in Europe: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pril 19, 2021.
<https://www.fpri.org/article/2021/04/u-s-force-structure-changes-in-europe-necessary-but-not-sufficient/>
- Febber, John. 1996. The Costs and Dangers of NATO Expansion.
https://ips-dc.org/the_costs_and_dangers_of_nato_expansion/
- Gates, Robert M. 2014. Duty: Memoirs of a Secretary at War. Knopf Publishing Group.
- Gavin, Francis, Joseph S. Nye, and Stephen M. Walt. 2022. Was NATO Enlargement

- a Mistake?. April 19, 2022.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was-nato-enlargement-mistake>
- Goldgeier, James. 1999. The U.S. Decision to Enlarge NATO. *Brookings Review* Summer 1999, 19-21.
 - Ikenberry, John G. 2009. Liberal Internationalism 3.0: America and the Dilemmas of Liberal World Order. *Perspectives on Politics* 7(1), 71-87.
 - _____. 2018. The end of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Affairs* 94(1), 7-23.
 - Krauthammer, Charles. 1990.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70(1), America and the World 1990/91, 23-33.
 - Krieg, Andreas. 2022.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risis of liberalism, 14 April, 2022.
 - Kyl and Joseph Lieberman. 2016. The Case for American Internationalism. <https://www.bushcenter.org/catalyst/leadership/the-case-for-american-internationalism.html>
 - Marks, Ramon. 2022. Ukraine Has Forever Changed Europe's Balance of Power.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ukraine-has-forever-changed-europe%E2%80%99s-balance-power-201498>
 - Mazumdar, Arjun. 2022. UChicago Professors Weight in on the War in Ukraine. <https://chicagomaroon.com/article/2022/4/24/uchicago-professors-weight-war-ukraine/>
 - Mearsheimer, John. 2014.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14, 1-12.
 - Memorandum, Budapest. 1994.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reaties.un.org](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3007/Part/volume-3007-I-52241.pdf). December 5, 1994. <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3007/Part/volume-3007-I-52241.pdf>
 - Mulligan, William. 2022. Erosions, Ruptures, and the Ending of International Orders: Putin's Invasion of Ukraine in Historical Perspective, *Society* 59, 259-267.

- Nixon, Richard M. 1967. Asia After Vietnam. *Foreign Affairs* 46(1), 111-125.
- Nye, Joseph. 2022. Realism about Foreign-Policy Realism. Feb 2, 2022.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ukraine-and-limits-of-foreign-policy-realism-by-joseph-s-nye-2022-02>
- Owen, John M. 2022. “Is the War in Ukraine the Fault of the West?” <https://millercenter.org/war-ukraine-fault-west>
- Peter Beinart. 2022. America’s Generation Gap on Ukraine. Jan 24, 2022. <https://peterbeinart.substack.com/p/americas-generation-gap-on-ukraine?s=rJon>
- Peterson, Robert and Michael McFaul. 2022. What Putin Fears Most. April 2022.
- Rielly, John E. 1999. Americans and the world: a survey at century's end. *Foreign policy*, 97-114.
- Pifer, Steve. 2019. Why Care about Ukraine and the Budapest Memorandum. December 5, 2019.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12/05/why-care-about-ukraine-and-the-budapest-memorandum/>
- Rutland, Peter. 2015. An Unnecessary War: The Geopolitical Roots of the Ukraine Crisis. April 9, 2015.
<https://www.e-ir.info/2015/04/09/an-unnecessary-war-the-geopolitical-roots-of-the-ukraine-crisis/>
- Shiffrin, Joshua R. 2020. NATO enlargement and US foreign policy: the origins, durability, and impact of an idea. *International Politics* 57, 342-370.
- Sullivan, Becky. How NATO’s Expansion Helped Drive Putin to Invade Ukraine. US Department of Defense, Fact Sheet: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 Telhami, Shibley. 2022. What do Americans Think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of the US Response?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2/03/31/what-do-americans-think-of-the-russia-ukraine-war-and-of-the-us-response/>
- White House. Joint Statement on the U.S.-Ukraine Strategic Partnership. September, 1,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9/01/joint-statement-on-the-u-s-ukraine-strategic-partnership/>

-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Russia's Unprovoked and Unjustified Attack on Ukraine. February 24, 2022.
- Wittkopf, Eugene R. and McCormick, James M. 1999. The Domestic Sources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sights and Evidence.
- 뉴스핌. 키이우 깜짝 방문 펠로시 "美, 우크라이나 승리할 때까지 지원할 것"(22/05/02)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02000005> (검색일: 2022. 06. 05.).
- 한겨레21. 러시아 경제제재 누가 오래 버틸까?(22/03/13). 출처: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1720.html (검색일: 2022. 05. 27.).
- BBC코리아. 우크라이나: 나토는 무엇이고, 러시아는 왜 이를 불신하나?(22/02/27) 출처: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521392> (검색일: 2022. 05. 31.).
- 1945. Ignored Warnings: How NATO Expansion Led To The Current Ukraine Tragedy(22/02/22). 출처: <https://www.19fortyfive.com/2022/02/ignored-warnings-how-nato-expansion-led-to-the-current-ukraine-tragedy/> (검색일: 2022. 06. 10.).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kraine: Conflict at the Crossroads of Europe and Russia(22/04/01). 출처: <https://www.cfr.org/backgrounder/ukraine-conflict-crossroads-europe-and-russia> (검색일: 2022. 05. 30.).
- Journal of democracy. What Putin Fears Most(22/04). 출처: <https://www.journalofdemocracy.org/articles/what-putin-fears-most/> (검색일: 2022. 06. 15.).
- Middle east eye.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crisis of liberalism(22/04/14). 출처: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russia-ukraine-war-liberalism-crisis> (검색일: 2022. 06. 21.).
- npr. Ukraine Russia NATO explainer(22/01/29). 출처: <https://www.npr.org/2022/01/29/1076193616/ukraine-russia-nato-explainer> (검색일: 2022. 06. 19.).
- Pew research center. Public Expresses Mixed Views of U.S.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22/03/15). 출처: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2/03/15/public-expresses-mixed-views-of-u-s-response-to-russias-invasion-of-ukraine/> (검색일: 2022. 06. 10.).

- The New Yorker, The Soft-Power Politics That Exploded Into War(22/03/22).
출처: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soft-power-politics-that-exploded-into-war> (검색일: 2022. 06. 19.).

- 매일경제
- 일요신문
- 중앙일보
- 한겨레

● 투고일: 2022.07.06. ● 심사일: 2022.07.24. ● 게재확정일: 2022.08.15.

| Abstract |

The U.S. Strategy on Russia's Ukraine War

Kim Ils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U.S. strategy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o this end, I discuss the U.S. NATO expansion policy, Russia's response against it, and Ukraine's pro-EU, Pro-NATO policy. I argue that the cause of the Ukrainian war resulted from a conflict between different policies promoted by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Yet,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the NATO enlargement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d.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promoted foreign policy based on liberal internationalism. Citing values such as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US promoted NATO expansion and missile defense policies in Eastern Europe. Russia responded to this by maintaining its influence in Eastern Europe through Warsaw Treaty Organization. These opposing military policies and strateg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bound to act as factors of conflict. In this paper, I argue that it is high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seek new countermeasures to end the current Ukrainian war. Prioritizing the Asian rebalancing foreign policy, the US should come up with a negotiated solution for the current dilemma, and critically review the NATO policy for future European security.

〈Key words〉 U.S. NATO expansion, Liberal internationalism, American internationalism, Ukraine war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



정 호 경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jhkworldcup@naver.com)

국문 요약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개시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소 소극적인 대응과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중·러 관계, 중·우크라이나 관계, 중·미와 중·EU관계로 인해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과 대응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시점을 점검하고 중국의 입장 변화를 분석해 향후 중국의 대응을 전망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입장, 중국의 딜레마, 중·러 관계

I. 서론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와 2022년 초, 벨라루스와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경 전반에 걸쳐 행해진 합동 훈련 및 대규모 병력의 이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암시하는 요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료들은 침공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중앙일보 22/01/26).¹⁾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유럽의 평화는 쉽게 깨지리라 생각하지 않았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반발 예상과 명분이 부족한 러시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고대로 푸틴은 2월 21일 우크라이나 돈바스(Donbass)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시작으로 사흘 뒤인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개시하였다.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군사력으로 인해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과 함께 단기간에 전쟁이 끝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지난 6월 3일 전쟁 발발 100일째를 지나며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는 예상외로 강한 항전 의지를 보였고 서방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장기화의 단계로 돌입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앞날을 쉽게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소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쟁의 성격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의 대결 구도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양상으로 바뀌었다(박성준 2022, 14). 우크라이나 전쟁은 문명 간, 이익 간, 이데올로기의 충돌 등 다양한 성격이 중첩된 전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주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정경 2022).²⁾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다. 2022년 2월 이후 시행된 대러시아 제재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최근까지 시행된 제재와는 그 규모와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교역, 금융, 에너지를 비롯해 광범위한 경제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57개의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유럽연합을 포함한 일본, 캐나다 한국까지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핵심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고 미국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의 채권 발행 및 유통이 제한되었다(조영관 2022).³⁾ 이외에도 러시아

1)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715> (검색일: 2022. 07. 12.).

2)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39> (검색일: 2022. 07. 12.).

3)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81> (검색일: 2022. 07. 12.).

은행들을 대상으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⁴⁾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푸틴의 일방적인 침공 결정을 비난하면서 한편에서는 중국의 행보에 관심을 가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밀착 행보를 보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왔다. 2021년 우크라이나 갈등상황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시종일관 중립적인 태도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중국의 태도가 러시아로 편향되는 태도를 보인 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푸틴(Putin)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나서부터였다. 시진핑과 푸틴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고,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계속 유지하며, 에너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강화, 과학 기술 혁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재정 및 금융 정책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금융 위협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와의 협력의 의사를 표현했고 러시아 역시 중국을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이자 뜻을 같이하는 친구로 간주한다고 회답했다(新华网 22/02/04).⁵⁾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조짐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할 가능성과 중국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에 행해지는 경제제재의 실효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국제사회가 중국의 입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다소 소극적인 대응과 함께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딜레마에 빠졌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중국은 복잡한 처지에 처해있다. 중국은 중·러 관계, 중·우크라이나 관계 그리고 미국 및 EU와의 관계 모두를 고려해 행동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러시아와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와는 일대일로 유럽-중국 화물철도 노선의 경유지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중요 거점 국가이다. 미국과 EU가 앞장서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는 것은 그동안 공들여왔던 EU 시장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 다른 충돌 지점을 만드는 것이다.

4)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달러화를 기반으로 현재 200개국 1만 150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어 사실상의 글로벌 금융결제의 표준이며, 러시아 금융 거래의 80%가 SWIFT 결제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SWIFT 거래국이다.

5) 출처: http://www.xinhuanet.com/asia/2022-02/04/c_1128330398.htm (검색일: 2022. 07. 12.).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시각,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추세를 전망하기 위한 중국의 입장 관련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이영학 2022; 임진희 2022; 정태요 2022; 표나리 2022; 성기영 외 2022; 황상필 2022; 최소령 외 2022; 서정경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으로 중국의 입장표명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전쟁 상황의 수시 변화라는 변수를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전망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까지 나온 중국의 대응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딜레마적 상황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Ⅱ.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국제사회의 대응

지난 2022년 7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11,000여 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약 5천 명에 이르고 있다.⁶⁾ 군인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난민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전쟁 발발과 함께 유럽의 주요국과 세계의 언론들은 러시아의 침공행위를 일제히 규탄하였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졌고 전쟁을 직접 지시한 푸틴은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한 항전 의지와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인해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남기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긴 남부 해안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100만 명의 군을 집결시키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TheTimes 22/07/10).⁷⁾

1.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1)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라면 푸틴의 침공 결정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푸틴이 침공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리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6) 출처: <https://www.ohchr.org/en/news/2022/07/ukraine-civilian-casualty-update-4-july-2022> (검색일: 2022. 07. 12.).

7) 출처: <https://www.thetimes.co.uk/article/ukraine-has-one-million-ready-for-fightback-to-re-capture-south-3rhkrhstf> (검색일: 2022. 07. 12.).

고립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게 된 원인은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선 2014년에 병합된 크림반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크림반도에 위치한 세바스토폴은 소련 시절부터 흑해 함대가 오랫동안 주둔하며 핵심 군사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러시아가 2042년까지 세바스토폴 항구의 이용 권리를 획득하고 난 뒤, 러시아계 주민의 이민이 늘어났다. 결국, 절반 이상의 러시아계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서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발트해로의 진·출입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태평양과 크림반도를 통한 흑해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의 숙명인 남진을 위한 노선의 시작점이 크림반도였고 러시아로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북쪽과 서쪽으론 유럽, 동쪽으론 아시아, 남쪽으론 중동을 향할 수 있는 곳이다. 러시아로선 서방세력과의 완충지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곳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의 가스관이 지나가고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모스크바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500km 내외라는 점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반하는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은 러시아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일찍이 브레진스키(Brezinski)가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야지만 5,200만 명의 인구와 주요한 지하자원, 흑해로 통하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러시아를 다시 유라시아의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푸틴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Z. Brzezinski 2000, 70).

2) 나토(NATO)의 동진

우크라이나가 가지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의 동진을 유인하기에 충분했고 우크라이나로 확대되는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유럽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서유럽 지역, 폴란드, 헝가리 등의 중간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유럽과 발칸 유럽의 외곽지역 등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나토는 주로 중간지역과 동유럽 및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종분규와 영토분쟁 등이 서유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시급한 임무로 판단했고, 서유럽의 평화를 중·동유럽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토의 확대 정책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였다(이수형 2022, 3).

러시아는 나토의 확대를 1989년 독일 통일을 위한 미·소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나토의 확대 금지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94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확대 정책이 공식화되면서 1999년 1차 신규회원국(헝가리, 폴란드, 체코)을 받아들이며 2020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동진해갔다.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다. 1998년 엘친 대통령 집권 시기 러시아는 나토에 상주대표부를 개설해 분쟁 예방, 군축, 핵안전 이슈 등의 문제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홍완석 2005, 524-531). 다만,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나토 가입, 코소보 사태에서 일방적인 군사개입을 하는 등 나토의 활동 범위가 점점 구소련 및 기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자 이에 반발해 나토 대표부를 철수시켰다(김규철 2022, 7). 미국 봉쇄정책의 틀을 세웠던 조지 케난(George Kennan)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와 발틱 3국에 대한 나토의 동유럽 확장이 특별한 안보 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인식과 반감만 사는 치명적 실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신성호 2022).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건 2008년에 있었던 부쿠레슈티(Bucharest) 나토 정상회담이었다. 미국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과 관련된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프랑스와 독일 등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두 국가의 가입은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고 결국 두 국가의 회원 자격 행동계획의 비준을 무기한 연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다.⁸⁾ 당연히 러시아의 반발을 샀고 회담 4개월 뒤인 2008년 8월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공했고 14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표적이 되었다.

3) 회색지대전략을 통한 미국의 러시아 압박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러시아는 아주 제한된 전력만을 통해 목표를 이루었다.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불리는 새로운 방식은 회색지대 전략과 함께 21세기 안보 지형을 뒤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2008년 조지아 침공을 통해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러시아는 개혁을 통해 새롭게 러시아군을 재편했고 2014년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크림반도를 손에 넣었다.⁹⁾

반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 러시아는 전면전을 선택했다. 미국이 2014년 이후 꾸준히 발전시켜온 회색지대전략이 러시아의 선택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정학적 공간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사이버 분야 등 다방면에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8) 출처: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8443.htm?selectedLocale=en (검색 일: 2022. 07. 12.).

9) 러시아의 군사 개혁과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해서는 김경순(2018), Barabanov 외(2012) 참조.

전쟁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영역과 관련해서는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상대를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활동 영역을 축소해 버리는 방식을 사용한다(고명현 2022, 6-7).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미 의회 조사국(CRS)의 새로운 강대국 경쟁: 미 국방성에 대한 함의와 의회 현안(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보고서에는 미국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선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정보작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행해지는 중국의 살라미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다. 특히 부록E에서 하이브리드 · 회색지대전략과 관련된 목록을 보면 2015년부터 미국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

미국은 2014년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과거와 달리,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 정보기관을 이용해 러시아를 상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정보전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침공 시기까지 예측을 당하며 다음 행보까지 꿰뚫리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정보 공작을 수행할 수 없었고 2014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은 위력은 발휘하지 못했다. 물론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러시아로 하여금 전면전과 후퇴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몰아붙였고 군사적 우위에 있던 러시아는 전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말이다(고명현 2022, 8-9).

4) 동맹의 부재와 역제의 실패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후퇴함으로써 푸틴이 받아야 했던 정치적 압박도 존재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졌던 동맹의 부재와 미국과 EU의 역제가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제는 본질적으로 적의 싸우려는 의지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역제의 효과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결합되어 적절한 수준의 보복 위협이 수단으로 제시되어야 기대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역제수단은 군사력이며 정치외교적 조치와 경제제재 등도 비군사적 수단으로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제공하는 후견국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신뢰성이 결정되는데 잠재적 공격국이 후견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면 신뢰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미국과 EU가 보여준 군사력은 러시아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했다(이흥석 2022, 22).

러시아의 침공 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한 병력은 러시아에 비해 형편없을

10) 출처: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3838/92> (검색일: 2022. 07. 12.).

정도로 적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에 관한 대응이라곤 그저 우크라이나에 무기만을 지원하는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 대신에 선택한 역제의 수단은 경제제재의 방식이었는데 러시아는 이를 비롯 2022년 1분기 사상 최고치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YTN 22/04/19).¹¹⁾ 러시아에게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한 것은 과거의 경험도 한몫했다.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나토는 적극적인 개입을 지양했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면전에 미국과 나토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이뤄졌다면 쉽게 침공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 쉽게 예견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면전의 결정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취한 모호한 태도가 푸틴에게 기회를 준 것임은 분명하다.

2. 국제사회의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유럽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정치경제에서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전략 자원의 공급자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고 우크라이나는 농산물의 주요 글로벌 공급자였기 때문에 상호의존에 얽여 있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UN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고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¹²⁾ 나토는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국경에 전투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ALJAZEERA 22/02/25).¹³⁾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은 받지 못한 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대전차 무기와 각종 보급품을 보급받으며 러시아를 향한 항전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Karim Khan) 검사는 관할권을 행사해 우크라이나 내에서 저지른 대량 학살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전쟁범죄를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UTERS 22/02/28).¹⁴⁾

11) 출처: https://www.ytn.co.kr/_ln/0104_202204190354281355 (검색일: 2022. 07. 12.).

12) 출처: <https://press.un.org/en/2022/ga12407.doc.htm> (검색일: 2022. 07. 12.).

13)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2/2/25/nato-allies-to-provide-more-weapons-to-ukraine-stoltenberg-says> (검색일: 2022. 07. 12.).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로 접어들 기미가 보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면서¹⁵⁾ 전쟁의 성격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진 나토의 직접적인 참전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행하였다. 우선 러시아를 SWIFT 결제망에서 제외시켰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시켜 약 6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외환을 사용 불능으로 만들어버렸다. 영국은 러시아 은행을 영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시켰고 모든 러시아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방면에서도 EU는 2022년 말까지 러시아에서 해상으로 수입되는 모든 석유를 금지할 것을 밝혔고 미국 역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러시아 국가가 아닌 개인을 향한 제재도 이뤄졌다. 미국, EU,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은 1,000명 이상의 러시아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다. 여기엔 러시아 정부의 관리와 가족들까지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러시아산 금의 수입이 금지되고 사치품 수출 금지되고 심지어 러시아의 항공편까지 금지되었다. 이런 상황에 버티지 못한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였다(BBC 22/06/27).¹⁶⁾

그러나 한 국가를 향한 전 세계의 동시다발적 경제제재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제재에 따른 반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를 향한 제재의 영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서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침공 후, 4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채 국제유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100달러를 넘어섰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러시아의 팔라듐 수출, 우크라이나의 네온 수출 관련 문제로 반도체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될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심각한 것은 식량난인데 전쟁의 여파로 식량가격이 상승하면서 최빈국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연합(AU)의 경우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구입에 대한 대금 지급을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나섰고(시사저널 22/06/20)¹⁷⁾ 예일대의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는 푸틴이 전쟁을 통해 식량난민을 생산해 유럽으로 난민 유입을 유도해 유럽의 불안정을 유발할

14)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e-lodges-case-against-russia-world-court-zelensky-2022-02-27/> (검색일: 2022. 07. 12.).

15) 유엔총회에서 진행한 러시아의 전쟁 중단 및 군대 철수 결의안의 찬성국은 141개국에 달했지만, 반대와 기권은 각각 5개국, 35개국이다.

16)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0125659> (검색일: 2022. 07. 12.).

17) 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753> (검색일: 2022. 07. 12.).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¹⁸⁾

경제제재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론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나토는 유럽에서 더욱 팽창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 중립 노선을 취해온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난 5월 18일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랫동안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지켜온 두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입 요구의 여론에 편승해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고 핀란드에 전력 수출과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단순히 회원국 2개가 늘어나는 수준 이상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선 냉전 이후 유지해왔던 완충지대를 잃게 되는 것이고 나토와 1340km라는 국경선을 직접 맞대야 하는 부담감도 생긴다. 더 큰 문제는 발트해가 나토의 내해(內海)가 되고 이는 결국 러시아가 서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잃게 되는 셈이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복잡한 주사위를 굴리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적인 지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악화에서 파급되는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아시아 국가가 미국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와 중국이다. 인도는 양 진영 사이에서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과거 소련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틈을 타 중국을 견제할 또 다른 대안으로 소련의 관심을 받았다. 인도와 소련의 우호관계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이어받았고 현재까지 인도의 최대 군사 장비 및 기술 공급국으로써 자리잡고 있다(SIPRI 2022, 6).

인도는 UN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유엔총회 결의에서도 기권했고 경제제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비동맹주의에 영향도 있고 러시아와 관계 악화 시 라이벌인 파키스탄과 중국을 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윤영관 2022). 중국은 전쟁 발발 초기 '전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해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모두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유엔총회 결의에서 기권했고 전쟁의 성격을 중국이 먼저 규정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특정국 편중의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측에 균형을 맞춘 정치적 해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성기영 외 2022, 64-65).

18) 출처: <https://twitter.com/timothydsnyder> (검색일: 2022. 07. 12.).

Ⅲ. 중국의 시각과 대응

1. 중국 정부의 입장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중국의 입장이 드러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침공 다음 날인 25일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央视网 22/02/25).¹⁹⁾ 침공 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같은 날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영국 외교장관, EU 외교 고위대표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고문과의 전화통화 후, 발표한 5가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a).²⁰⁾

첫째,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이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게 적용된다; 둘째, 중국은 공동 · 통합 · 협력 · 지속가능한 안보관을 옹호하며,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는 존중받아야 하며, 5차례에 걸친 나토의 동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요구는 중시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전개에 주목하며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통제 불능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반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직접 대화 협상을 환영한다.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가 유럽 안보문제에 있어 평등한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안보기제를 창출할 것을 지지한다; 다섯째,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각국의 보편적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또한, 안보리는 상황을 고조시키기보다 긴장을 완화하는 외교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보리 결의가 무력 사용과 제재의 권한을 부여하는 7장을 인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

19) 출처: <http://tv.cctv.com/2022/02/25/VIDEgZRP9aE1IUhNDfTyK4BP220225.shtml> (검색일: 2022. 07. 13.).

20) 출처: http://newyork.fmprc.gov.cn/web/wjzbzhd/202202/t20220226_10645790.shtml (검색일: 2022. 07. 13.).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옹호하며, UN의 무력 사용 및 제재 결의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러시아 편향적인 입장은 3월에 접어들면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데, 3월 18일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부터다.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물질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결과와 대가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고(The White House 2022) 중국은 이에 명시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충돌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친강(秦剛) 주미중국대사가 3월 23일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는 금지 구역이 없지만, 마지노선은 존재한다고 밝히며, UN 헌장 원칙, 공인된 국제법,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 등이 마지노선이라는 발언을 한다(凤凰网视频 22/03/23).²¹⁾ 이는 지난 2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호에는 한계가 없다던 표현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 변화와 함께 주목해 볼 것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면서 그 범위와 제재로 인한 영향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 간의 대립에서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어 국제전 양상을 띠고, 중국도 전쟁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이해득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전쟁을 안보문제의 시각에서 본다면 EU와 러시아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넘어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곧 국제질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중국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이 진영 대립을 꾀하며 대만 문제와 연결 짓고 있다고 인식한다(성기영 외 2022, 68).

이런 중국의 인식 변화는 지난 7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자이산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 표명에서 드러난다. 왕이 부장은 기회를 틈타 냉전적 사고를 선동하고 진영 대립과 ‘신냉전’을 조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중잣대를 적용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고, 타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와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인민망 22/07/08).²²⁾

21) 출처: <https://finance.ifeng.com/c/8EbnZqDX8qa> (검색일: 2022. 07. 13.).

22) 출처: <http://kr.people.com.cn/n3/2022/0708/c203278-10120689.html> (검색일: 2022. 07. 13.).

2. 중국 내 시각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 정부와 고위 관료들은 다소 원칙적이고 전형적인 입장을 보여줬지만, 중국 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시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관한 시각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응의 측면에서 중국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시각과 중립적 태도를 버리고 세계의 주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시각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가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전략가들의 시각이라면, 후자는 이를 비판하는 전략가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중국-러시아 삼각관계, 중국-유럽-우크라이나 삼각관계, 외교-안보-경제 삼각관계, 정부-언론-국민 정서의 삼각관계 등 4가지의 삼각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 차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소령 외 2022, 109). 반면, 후자의 경우는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고, 결국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회복한 뒤 유럽과 더 긴밀한 운명공동체를 형성할 것이 전망한다. 중국이 러시아와 선을 확실히 긋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최소령 외 2022, 110).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키이우(Kyiv) 점령에 실패하고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반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실패도 귀를 기울일만한 의견이다.

전쟁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다양하다. 후웨이싱(胡伟星 2022)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지정학적인 대결이며 소련의 붕괴로 생겨난 유라시아의 심장부(heartland)의 지정학적인 공백을 나토가 침식해감으로 인해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푸단(复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부원장이자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 주임인 평위쥔(冯玉军, 22/05/21)²³⁾교수 역시 이번 전쟁을 러시아가 '탈소련공간'의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거대한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은 이번 전쟁에서 원인으로 주목받는 나토의 동진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본질은 냉전의 결과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의 심각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일극 세계를 구축하고 유럽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나토를 약화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토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할 잠재적 적으로 러시아를 인식했다. 반면,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30년 동안 유럽으로 진정 통합되려는 노력을 했지만, 러시아가

23) 출처: <https://m.aisixiang.com/data/133907.html> (검색일: 2022. 07. 13.).

꿈꿨던 ‘유럽의 꿈’은 실패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에서의 민족 정체성의 차이가 지금의 충돌을 가져왔다고 본다(倪峰 외 2022, 61).

중국의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번 전쟁을 바라본다. 일련의 언론 보도들은 이번 전쟁을 미국 위주의 서구 대 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고 중국이 러시아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관련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나토를 조종해 러시아의 정당한 행보를 막으려고 노력하며 최종적으로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공고화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영향력이 감소하던 중 발생한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을 자극해 나토와 미국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임진희 2022).²⁴⁾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정세 및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사건이 되리라는 점에선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전문가들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신냉전과 전쟁으로 인한 대균열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러시아는 서방과 급속한 디커플링이 이뤄질 것이며, 세계화는 지역화의 흐름으로 변화해 갈 것이란 견해들이 제기되었다(闫琪 22/05/22).²⁵⁾

IV. 중국의 딜레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막강한 러시아의 군사력과 과거 크림반도 합병의 사례를 경험 삼아 전쟁이 초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뜻밖에 끈질긴 우크라이나의 저항 능력과 서방의 지원,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제제재 등의 이유로 전쟁은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고, 3~5일의 초단기 전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푸틴의 구상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²⁶⁾ 전쟁이 단기간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났다면 중국은 초반 러시아의 입장을

24) 출처: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6344&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2. 07. 13.).

25) 출처: http://www.cssn.cn/zx/bwyc/202205/t20220522_5409167.shtml (검색일: 2022. 07. 13.).

26)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대사는 위키트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점,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했다는 점, 미국과 나토의 대응을 과소평가했다는 점 등 푸틴이 3가지 오판을 한 탓에 러시아와 푸틴이 수세에 몰렸다고 밝혔다. 위키트리 22/03/08. 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37414> (검색일: 2022. 07. 13.).

지시하여 중·러 관계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 국제사회한테서 나올 수 있는 비난과 중국 책임론을 시간차로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일방적인 침공을 단행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강한 규탄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전략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겨워졌다. 중국은 당사국과 주변국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1. 미·중·EU의 복잡한 삼각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후, 당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강대국들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전쟁의 양 당사국을 포함해 대러시아 제재에 앞장서는 국가들과도 중요한 관계에 놓이다 보니 쉽지 않은 대응이 예측된다.

우선,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대외문제는 미국과의 경쟁이다. 트럼프의 대중 견제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바이든은 트럼프 시기보다 더 치밀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기를 연상시켜 ‘신냉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해 냉전 시기와 같은 극단적인 단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미래세대를 주도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중의 패권경쟁은 무역, 첨단기술을 넘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가치의 경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을 통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진행 중이다.²⁷⁾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EU를 결속시켜 반권위주의 진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내리는 결정들이 향후 미·중 패권경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yan Hass 2022).²⁸⁾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지원은 제한적이고 절제되어 나타난다. 러시아의 안보를 우려를 이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졌지만, UN의 두 차례에 걸친 결의에선 기권을 선택했다. 이는 러시아의 안보 불안에는 동의하지만, 무력을 동원한 전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황상필 2022, 67).

27) 출처: <https://www.state.gov/further-information-the-summit-for-democracy/> (검색일: 2022. 07. 13.).

28) 출처: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2/03/01/ukraine-presents-opportunity-to-test-chinas-strategic-outlook/> (검색일: 2022. 07. 13.).

중국은 서방 대 러시아의 ‘신냉전’구도를 바라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벌인 전쟁으로 인해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을 중국이 나눠서 지고 있는 상황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과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소수민족이라는 약점을 가진 중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것도 러시아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그동안 맺어왔던 밀착 행보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다.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지난 2월 4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 가졌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과 연 100억㎥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또 다른 에너지 회사인 중국석유화공(SINOPEC)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논의를 중단했다.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제재가 중국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Chen Aizhu 외 2022).²⁹⁾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쌓아온 긴밀한 협력관계를 비춰봤을 때 경제제재의 위기를 벗어나면 양국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보여주는 모호한 태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선택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EU는 중국과의 중요한 교역파트너이자 거대시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U와 러시아와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토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을 신청했다는 것은 유럽 안보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나토의 회원국이던 덴마크가 지난 6월 1일, 30여 년 만에 EU 공동방위 정책에 합류하기로 했다. 때의 회원국 27개국 중 공동방위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덴마크마저 태도를 바꾼 것은 유럽 전체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한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비중을 줄이는 대응을 하는데,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확대와 같은 조치들은 이 같은 EU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중국의 러시아 지원 행위가 EU의 인내심을 넘어선다면 중국 역시 EU의 거대한 시장을 잃을 수 있게 된다.

29)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kraine-crisis-china-russia-idCNL2N2VS0WS> (검색일: 2022. 07. 13.).

2. 일대일로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특수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러시아와는 에너지 사업과 군사 관련 협력을 해왔고 우크라이나와는 중국의 대러시아 협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업과 일부 산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러시아가 이전을 꺼리는 군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형성된 군수 가치사슬을 활용하며 협상력을 키워온 것이다(김석환 2022, 115). 특히,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고 201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래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교역액은 93억 7천만 달러로 2020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했다. 유라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1).³⁰⁾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의 거점 국가로서 양국은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 심화에 관한 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乌克兰政府关于深化基础设施领域合作的协定)」을 체결하기도 했다(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21).³¹⁾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중국-유럽’ 화물 열차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거나 노선 변경되었다. 이 노선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것으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물류 계속해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일대일로의 중심이 되는 철도 노선 등의 연결과 물류의 역동성 확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물류망은 중국의 생산지와 유럽의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일대일로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미국과 서방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재 대상이 되어 있는 러시아 철도가 운영하는 노선을 활용해 물류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김석환 2022, 118).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는 초연결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과 중국을 잇는 초연결에 단절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중국이 더욱 복잡한 심경인 것은 바로 자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국가 러시아에

30) 출처: https://www.mfa.gov.cn/chn/pds/gjhdq/gj/oz/1206_40/sbgx/t7133.htm (검색일: 2022. 07. 13.).

31) 출처: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blhdhd/202107/20210703172615.shtml> (검색일: 2022. 07. 13.).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러시아의 남하 전략을 봉쇄시켜 영원히 유라시아 대륙에 고립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돈바스-마리우폴-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종단회랑을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선 유럽으로 이어지는 ‘일대일로’ 라인을 끊어버리는 비수(匕首)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의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고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구국가의 연대가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양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있었던 분쟁의 경험과 ‘일대일로’ 추진 당시 중앙아시아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던 러시아(윤성학 2022, 94)를 떠올려보면, ‘확장된 유라시아(Greater Eurasia)’ 전략을 추진하는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대일로’ 추진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중국의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일대일로’가 맞이할 수 있는 최대 위기는 전략 추진의 효과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미국과 유럽의 사이에서의 전략적인 이득과 유럽 시장의 확보라는 목적을 내포한 ‘일대일로’가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돈독해진 미·유럽 관계 속에서 전략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러시아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유럽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게다가 전쟁이 진행 중이던 6월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와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항해 6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결정되었다는 점(Reuters 22/6/27)³²⁾은 앞으로의 ‘일대일로’ 추진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3. 중국 내 분리독립과 대만 문제

왕이 외교부장이 표명한 중국의 5가지 입장에는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이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게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언급된다. 이는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토의 동진과 그리고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침공행위 자체는 1953년 저우언라이 총리가 천명한 중국외교의 기본 원칙인

32)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refile-us-aims-raise-200-bln-part-g7-rival-chinas-belt-road-2022-06-26/> (검색일: 2022. 07. 13.).

‘평화공존 5원칙’과는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다. 중국이 만약 러시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다면, 러시아가 침략의 명분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분리독립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꼴이 된다. 문제는 분리독립 문제를 동일한 관점에서 중국에 적용했을 때 신장위구르와 티벳 나아가 홍콩의 분리독립 주장에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크림반도 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승인한 돈바스 지역의 독립문제를 중국이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신장위구르와 티벳, 홍콩, 그리고 중국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대만에게 독립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는 작년 7월 26일에 미 국무부 장관인 웬디 셔먼(Wendy Sherman)과 왕이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중국이 제시한 대미 3대 마지노선을 통해 더욱 확실히 증명된다. 중국이 제시한 3대 마지노선의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중국의 국가 주권을 침해해선 안 되고 중국의 영토보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장·시짱(티벳)·홍콩·대만과 관련한 주권과 안보가 훼손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 미국은 신중히 행동하길 충고한다고 밝혔다(인민망 21/07/27).³³⁾

중국이 더욱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이 같은 처지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4일, 우크라이나의 외교장관인 쿨레바는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을 옹호하고 실천하는 위대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중국이 휴전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b).³⁴⁾ 이는 러시아의 침공행위가 평화공존 5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이며, 러시아 지원에 대한 중국의 선택에 많은 부담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주목을 받은 지역은 대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수복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표출되었다. 물론 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수복 의지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가 연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c).³⁵⁾ 그러나

33) 출처: <http://kr.people.com.cn/n3/2021/0727/c203278-9877268.html> (검색일: 2022. 07. 13.).

34) 출처: https://www.mfa.gov.cn/web/wjzbzd/202204/t20220404_10664583.shtml (검색일: 2022. 07. 13.).

35) 출처: https://www.mfa.gov.cn/web/wjzbzd/202207/t20220709_10717967.shtml (검색일: 2022. 07. 13.).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만 통일을 향한 미래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우선 전쟁 후, 대만의 반응이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담반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중국의 무력 침공 우려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연례 방어훈련인 한광(漢光)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역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군사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BBC 22/05/23).³⁶⁾

하지만, 중국은 이런 대만과 미국의 반응보다도 스스로가 이번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력을 통한 대만 수복의 방식을 재고하리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막강한 군사력 차이와 육로가 연결된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의외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만해협이라는 천연장벽과 대만을 지원해줄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이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대만을 손쉽게 수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 진영에서의 대러시아 제재 참여 적극성과 강도가 생각보다 강력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무력을 동반한 방식의 침공행위를 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할 것인데, 이는 중국이 무력의 방식을 동원해 대만을 수복을 시도할 시 예상되는 결과이다. ‘인류운명공동체’를 제기하고 ‘평화공존 5원칙’을 천명한 중국이 무력을 동반해서 대만을 점령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의도를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권위주의 진영에 대한 반발심과 더불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결국, 대만과의 통일 문제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더욱 딜레마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판단되고,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대만 통일이라는 미래 영원히 이루지 못할 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V. 결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대륙에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전면전이다.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세계는 미국과 서방 국가를

36)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1548531> (검색일: 2022. 07. 13.).

중심으로 뭉치는 민주주의 국가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국가 진영으로 균열과 단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전쟁은 그동안 국제사회를 휘감고 있던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신냉전의 위기감을 본격적으로 폭발시킨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침공 이후 닷새가 지나지 않아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협상은 3월 2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만5개월이 다 되어가는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쟁 발생과 함께 일제히 러시아를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달리 중국은 초기 러시아를 향한 규탄 결의에 기권하는 등 우회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7일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에 관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착종복잡(错综复杂)’이라 언급하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존은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d).³⁷⁾ 이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입장 지지에서 한 발짝 물러난 발언이다. 하지만, 전쟁의 원인이 복잡하다는 표현은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나토에 의한 안보 위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은 다소 모호한 입장의 노선을 가져가며 전쟁에 관한 중국의 책임론³⁸⁾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중재자의 역할을 모색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유럽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중재자 역할은 앞선 우크라이나 외교부 쿨레바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평화공존 5원칙이 언급되었던 4월의 통화 이전인 3월에 가진 통화를 통해 중국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하였다(동아일보 22/03/01).³⁹⁾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기대하는 시선과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공존하지만, 중국으로선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를 하나 더 가진 셈이다.

37) 출처: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zt_674979/dnzt_674981/qtzt/gwyyjwj_bzwyhdzjzwtw/ (검색일: 2022. 07. 15.).

38) 러시아가 서방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침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 것. REUTERS 22/02/27.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white-house-calls-china-condemn-russias-invasion-ukraine-2022-02-27/> (검색일: 2022. 07. 15.).

39)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01/112103819/1> (검색일: 2022. 07. 16.).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중국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미국의 견제에서도 벗어나면서 유럽의 시장을 지켜야 하며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관리해 일대일로 주도국으로서 참여국들에게 보여줄 중국의 지위와 리더십 등의 문제에서 정치·외교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지원 요청에도 큰 몸뚱이를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기권하는 등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소 모호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료되거나 만약 장기화로 간다면 역할 부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러시아 은행이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으로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왔다. 2015년에 이르러선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을 개발해 SWIFT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왔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독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스위스 등 23개 은행 및 404개 금융기관과 연결된 자체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를 보유하고 있는데 CIPS와 연결된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서정경 2022).⁴⁰⁾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증가시킨 통화량의 영향으로 유발된 세계인플레이션 문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 패권의 하락을 가속화한다든지, 강력한 제조업이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진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위상과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터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관점에서도 유럽의 안보 불안을 초래한 러시아로 인한 나토의 확장과 유럽의 군비 확장,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 진영의 분열과 격돌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번 전쟁은 중국에게 있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자극해 대만해협의 위기를 일으켜 미·중 패권경쟁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러시아 제재 통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결속시킨 힘을 대중국 봉쇄에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반면,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된 경제의 중요성에 주목해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가 더욱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일대일로는 일부 부채의 경고 속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코로나

40)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39> (검색일: 2022. 07. 12.).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백신을 공급하는 등 안정과 평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전쟁이 언제 종료될지는 알 수 없으나, 종료된 후에는 경제를 어떻게 다시 발전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고 여기서 중국 취할 영역이 많다는 사실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의 상황을 선불리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최대 수혜를 봤고 최대 피해는 중국이 봤다는 견해와 그 반대의 견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전쟁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각국의 입장에 자세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고명현.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함의: 억지력 개념 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김경순. 2018.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우크라이나사태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제4호.
- 김규철. 2022.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전망. 글로벌국방, 7.
- 김석환.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전략에 파장-. KIET 산업경제 22년 6월, 115-118.
- 박성준. 2022.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국제전략 Foresight Vol. 08, 14.
- 서정경. 2022.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 학계의 다양한 인식. 다양성+Asia 17호,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39> (검색일: 2022. 07. 12.).
- 성기영 외.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가와 향후 국제질서 전망. 국가전략연구 2022-1, 64-65.
- 신성호. 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관계 및 한반도. 아시아브리프 2권 19호.
- 윤성학. 2022.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2권 제1호, 94.
- 윤영관. 2022.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아시아브리프 2권 23호.
- 이영학. 2022.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분석 및 향후 전망. KIDA동북아안보 정세분석.
- 이흥석. 2022. 억제와 동맹 관점에서 본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국방, 22.
- 임진희.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과 시사점-정부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CSF전문가오피니언. 출처: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6344&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2. 07. 13.).
- 정태요.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입장 연구. CSF전문가오피니언. 출처: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6280&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2. 07. 10.).
- 조영관. 2022.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변동: 미·중·러를 중심으로. 다양성+Asia 17호,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81> (검색일: 2022. 07. 12.).

- 최소령 외.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시각. 성균차이나브리프 제10권 제2호(통권63호), 109-110.
- 표나리. 2022.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역할. IFANS FOCUS. 출처: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989&cIcode=P07&menuCl=P07> (검색일: 2022. 07. 13.).
- 황상필. 2022. 시진핑 시기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5(2), 67.
- 홍완석 역. 2005.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한울아카데미, 524-531.
- Aizhu, Chen et al. 2022. EXCLUSIVE-China's Sinopec pauses Russia projects, Beijing wary of sanctions -sources (검색일: 2022. 07. 13.).
- Barabanov, Mihail et al. 2012. Military Reform: Toward The New Look of The Russian Army. Valdai Discussion Club.
- Brzezinski, Z. 김명섭 옮김. 2000. 거대한 체스판. 삼인, 70.
- Hass, Ryan. 2022/03/01. Ukraine presents opportunity to test China's strategic outlook. The Brookings Institution. 출처: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2/03/01/ukraine-presents-opportunity-to-test-chinas-strategic-outlook/> (검색일: 2022. 07. 13.).
- Timothy Snyder twitter. 출처: <https://twitter.com/timothydsnyder> (검색일: 2022. 07. 12.).
- 冯玉军. 2022/05/21. 俄乌战争的起源 前景与战略影响. 爱思想. 출처: <https://m.aisixiang.com/data/133907.html> (검색일: 2022. 07. 13.).
- 胡伟星. 2022. 俄乌冲突, 大国竞争与世界地缘政治格局的演变-以地缘政治学为研究视角. 亚太安全与海洋研究 No.4.
- 倪峰 외. 2022. 俄乌冲突对国际政治格局的影响. 国际经济评论 No.3, 61.
- CRS. 2022.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Version: 92.
- SIPRI. 2022.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1. 6.

- The White House. 2022. Background Press Call by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on President Biden's Call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출처: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2/03/18/background-press-call-by-a-senior-administration-official-on-president-bidens-call-with-president-xi-jinping-of-china/> (검색일: 2022. 07. 13.).
- 동아일보. 우크라, 중국에 중재 요청…中 “협상 통해 문제 해결해야”(22/03/01).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01/112103819/1> (검색일: 2022. 07. 16.).
- 시사저널. 아프리카연합 “러시아산 곡물·비료는 제재 예외로 해야”(22/06/20). 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753> (검색일: 2022. 07. 12.).
- 위키트리.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대사 단독 인터뷰 ①] “푸틴, 세 가지 오판… 전투서 이기고 전쟁서 졌다”(22/03/08). 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37414> (검색일: 2022. 07. 13.).
- 인민망. 왕이, 우크라 사태에 대한 中 3가지 입장 피력(22/07/08). 출처: <http://kr.people.com.cn/n3/2022/0708/c203278-10120689.html> (검색일: 2022. 07. 13.).
- _____. 왕이,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의 3대 마지노선 제시(21/07/27). 출처: <http://kr.people.com.cn/n3/2021/0727/c203278-9877268.html> (검색일: 2022. 07. 13.).
- 중앙일보. 우크라이나 "러시아 걱정 말고 자자"…8년 내전에 무더졌나(22/01/26).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715> (검색일: 2022. 07. 12.).
- YTN. 서방 제재 비웃는 푸틴…"러시아 흑자 사상 최고"(22/04/19). 출처: https://www.ytn.co.kr/_ln/0104_202204190354281355 (검색일: 2022. 07. 12.).
- ALJAZEERA. NATO to deploy thousands of commandos to nations near Ukraine(22/02/25).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2/2/25/nato-allies-to-provide-more-weapons-to-ukraine-stoltenberg-says> (검색일: 2022. 07. 12.).
- BBC. What are the sanctions on Russia and are they hurting its economy? (22/06/27).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0125659> (검색일: 2022. 07. 12.).
- _____. Biden vows to defend Taiwan in apparent US policy shift(22/05/23).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1548531> (검색일: 2022. 07. 12.).

13.).

- NATO. Bucharest Summit Declaration. 출처: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8443.htm?selectedLocale=en (검색일: 2022. 07. 12.).
- REUTERS. White House calls on China to condemn Russia's invasion of Ukraine(22/02/27).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white-house-calls-china-condemn-russias-invasion-ukraine-2022-02-27/> (검색일: 2022. 07. 15.).
- _____. Ukraine rejects Russia's genocide claim, asks U.N. court to halt invasion (22/02/28)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e-lodges-case-against-russia-world-court-zelensky-2022-02-27/> (검색일: 2022. 07. 12.).
- _____. G7 aims to raise \$600 billion to counter China's Belt and Road(22/06/27)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refile-us-aims-raise-200-bln-part-g7-rival-chinas-belt-road-2022-06-26/> (검색일: 2022. 07. 13.).
- UN. General Assembly Overwhelmingly Adopts Resolution Demanding Russian Federation Immediately End Illegal Use of Force in Ukraine, Withdraw All Troops. 출처: <https://press.un.org/en/2022/ga12407.doc.htm> (검색일: 2022. 07. 12.).
- UNOHCHR. Ukraine: civilian casualty update 4 July 2022. 출처: <https://www.ohchr.org/en/news/2022/07/ukraine-civilian-casualty-update-4-july-2022> (검색일: 2022. 07. 12.).
-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further-information-the-summit-for-democracy/> (검색일: 2022. 07. 13.).
- 闫琪. 专家学者共议世界变局下的“大裂化”趋势(2022/05/22). 출처: http://www.cssn.cn/zx/bwyc/202205/t20220522_5409167.shtml (검색일: 2022. 07. 13.).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21. 中国与乌克兰签署政府间 深化基础设施建设领域合作协定. 출처: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bldhd/202107/20210703172615.shtml> (검색일: 2022. 07. 13.).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a. 王毅阐述中方对当前乌克兰问题的五点立场. 출처: http://newyork.fmprc.gov.cn/web/wjzbzd/202202/t20220226_10645790.shtml (검색일: 2022. 07. 13.).
- _____. 2021. 中国同乌克兰的关系. 출처: https://www.mfa.gov.cn/chn/pds/gjhdq/gj/oz/1206_40/sbgx/t7133.htm (검색일: 2022. 07. 13.).

- _____ 2022b. 王毅司乌克兰外长库列巴通电话. 출처: https://www.mfa.gov.cn/web/wjzbzhd/202204/t20220404_10664583.shtml (검색일: 2022. 07. 13.).
- _____ 2022c. 王毅司美国国务卿布林肯举行会晤. 출처: https://www.mfa.gov.cn/web/wjzbzhd/202207/t20220709_10717967.shtml (검색일: 2022. 07. 13.).
- _____ 2022d.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 출처: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zt_674979/dnzt_674981/qtzt/gwwywjwjbzwyhdzwjztw/ (검색일: 2022. 07. 15.).

- 中国标准服务网 <https://www.cssn.cn>
- 凤凰网视频 <https://finance.ifeng.com>
-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
- 央视网 <http://tv.cctv.com>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http://www.mofcom.gov.cn>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newyork.fmprc.gov.cn>

● 투고일: 2022.07.21. ● 심사일: 2022.07.24. ● 게재확정일: 2022.08.16.
--

| Abstract |

The Study on The Ukraine War and China's Position

Jung Hokyu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eace Research Institution)

On 24 February 2022, Russia launched a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With the prolonged war and Western sanction, Russia requested China for military and economic support. However, China is showing a rather passive response and ambiguous attitude. China is in a dilemma of choice due to China-Russia relations, China-Ukraine relations, and China-U.S.-China-EU re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organize discussions related to China's position and response in a dilemma situation, and to analyze problems related to China. This is expected t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to check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krainian war and analyze China's position changes and predict China's response in the future.

〈Key words〉 Ukraine war, China's position, China's dilemma, China-Russian relations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의 기원과 미래 : A. 스미스의 에스니에(ethnie) 개념을 중심으로



송 태 희 (SBS비즈)
(bigsmilesong@naver.com)

국문요약

이 글은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을 A. 스미스의 에스니에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단일한 우크라이나를 지역적 단위로 나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던 에스니에가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분석한다. 이를 역사문화적 차원, 정치적 차원으로 나눠 분석한다.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주조한 것은 서부 에스니에였다. 정치적 차원에서 독립 후 동서부 에스니에는 2014년 이전까지는 권력을 교체, 공유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러시아의 크림 병합, 동부 일부 지역의 독립 선언은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권력체제를 낳았다. 그 결과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이 형성되고 있고, 이를 우크라이나 내부 시계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시민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 민족형성의 방향을 점치기는 어렵다. 민족 형성을 위한 '포용'이 과제이다. 또 나치 협력이라는 과거사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큰 과제이다.

주제어 : 우크라이나, 동서부, 에스니에, 민족, 2014년

I. 들어가며

1. 문제의식과 분석 방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이 각각 주장하는 전쟁의 정당성과 관련해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있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비(非)나치화’를 내세운 것이다.¹⁾

이를 국내 미디어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 제압을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분석 정도였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상징을 이용하려는 푸틴의, 고도로 계산된 다목적 전략으로 분석된다. 푸틴의 이른바 비나치화 명분은 첫째 우크라이나 동서 균열을 자극해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둘째 러시아 민족주의로 러시아 내부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푸틴은 제2차 세계대전을 환기시켜 러시아내 민족주의를 다시 소환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 민족주의의 핵심 기억은 나치와의 제2차 세계대전이다. 조정남(1996)에 따르면 러시아 민족주의는 나치와의 제2차 세계대전을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 왔다.²⁾

여기에 더해 푸틴은 반나치를 환기시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분열까지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폭발력이 있는 노림수는 우크라이나 동서 분열이다. 우크라이나 동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동족상잔(同族相殘)의 기억이 있다. 서는 나치의, 동은 소련의 전위대가 되어 전투를 치렀다. 서는 자발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나서기도 했다.

나치에 대한 기억은 현재 우크라이나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숨기고 싶은 역사다. 반(反)폴란드, 반(反)소련의 기치 위에 독립을 위해 안간힘을 썼던 약소 민족주의의 비극이다.

1) 푸틴 “탈나치화 추진”...젤렌스키 “홀로 남겨져 싸우는 중”(KBS 2202/02/25)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4292&ref=A> (검색일: 2022. 06. 15.); 우크라이나 전방위 급습한 푸틴, 우크라이나의 ‘괴뢰국화’ 노리나 (한국일보 2022/02/25)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511320004659> (검색일: 2022. 06. 05.); 러 외무장관 “3차대전은 파멸적인 핵전쟁 될 것” (연합뉴스 2022/03/03)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2194652080> (검색일: 2022. 06. 01.).

2) 구소련과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을 ‘대조국전쟁’으로 상징화하고 이를 민족주의 고양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러시아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 요소는 짜리즘, 전제정, 러시아정교가 꼽힌다. 이런 관점에서 푸틴의 독재와 러시아정교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정체성과 최근 전쟁발발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부 서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은 나치의 전위대 역할을 한 바 있다. 소련의 점령에 반대하고 독립 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이었다. 독립 운동과 친나치 사이의 간극은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내외 정치기제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민족국가 형성과 관련해 극복해야 할 난제이다.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은 가변적이다. 1991년 독립 이후 국민국가(Nation State)를 형성해 가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부 갈등과 러시아와의 대결 속에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렌지혁명, 유크로마이단, 크림합병, 최근의 전면전 등 극도로 긴장된 역사적 파고 속에 강렬하고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다. 찰스 틸리(2018)의 지적처럼 전쟁이 민족국가를 만들고 민족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생겨난 독립국가들에서는 명칭(titular)민족과 남아 있는 러시아 민족 간에 갈등과 긴장이 있어 왔다. 우크라이나도 그러한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푸틴의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로 작용해 왔다. 동서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은 사회적 충돌, 국내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자 귀결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서 갈등을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즉 민족은 만들어 진 것이라는 근대론의 관점을 수용하되, 우크라이나 민족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동서의 갈등 속에 민족형성(nation building)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론은 논리적으로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념과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간결해 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강진웅 2021, 123-135). 특히 서유럽 국가와 역사적 경로가 다른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례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는 A. 스미스의 에스니에(ethnie)³⁾의 개념을 적용해 두 에스니에가 민족(Nation) 형성하는 과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는 19세기 민족주의 발흥에서 소련의 공화국, 소련 해체와 독립 등 일련의 과정과 그 연결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3) 에스니에(ethnie)는 인종적 민족주의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A. 스미스의 표현을 한글로 그대로 쓴다. nation은 민족, nation state는 민족국가, 국민국가로 쓰되 필요할 경우 영어를 병기한다. ethnic과 nation이 우리말 구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민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두 에스니에의 갈등과 통합을 역사문화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민족(Nation) 형성에 있어 동부, 서부 에스니에의 정체성 변화, 시민권에 대한 정체성 변화 방향까지 분석을 모색한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와 전쟁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것이다. 또 향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경로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를 설명, 이해하는데 있어 러시아의 시각에 경도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제, 안보 논리에 편중될 수 있는 관점을 좀더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과거사’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풀어야할 내부문제 일 뿐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단일대외 외침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국가의 미묘한 온도차이 기저에 경제적 이해 뿐 아니라 이같은 ‘과거사’ 문제가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외를 둘러싼 정치, 국제관계의 동학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도, 미래도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를 만들어진 ‘하나’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하나를 향해 가는 ‘둘’로 볼 경우, 좀더 적실성 있는 분석의 도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 에스니에(ethnie)와 민족(Nation)형성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의 경우 개념 적용이 더욱 어렵다. 구소련의 공화국은 국가(state)인가? 각 공화국의 명칭(titular) 민족은 민족(nation)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독립후 민족주의는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근대론의 관점에서 근대화가 민족주의의 짝이라면 이들 국가들의 근대화는 구소련시절 이루어진 것인가? 일부에서 탈민족주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 과정과 독립 후 나타나는 민족주의 현상은 어떤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런 개념 적용의 어려움 속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동서 갈등을 지역갈등으로 보거나 국가(nation) 형성의 과제로서 주목했다(우준모 1997; 문명식 2001; 김경순 2004; 박태성 2007; 박종호 2010; 우준모·김종현 2013; 이선우 2015 등).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동서 갈등은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의 현실 정치와 국제관계에 주요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김경순 2004, 2017; Timm Beichelt 2004 등).

하지만 지역갈등으로만 설명할 경우, 독립 후 우크라이나의 국가 형성에 있어 동서

갈등의 정치적 동학을 협애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로 표출되는 결과를 단순히 지역 간 대결만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국가 형성 초기, 아니 그 이전부터 배태되어 있던 에스니에의 문제가 행정적 지역 그리고 정치 과정과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폴란드,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두 에스니에간 갈등과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맥락 이해가 풍부해 질 수 있다.

민족주의는 소련해체를 추동했다. 그리고 소련해체 이후에는 국가가 다시 민족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이같은 역동성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A. 스미스의 에스니에(ethnie) 개념을 적용, 분석한다. 즉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구소련시절 각 공화국별 명칭민족(titular nation) 즉 에스니에가 독립 후 새로운 민족(nation)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명칭 민족은 구소련 공화국의 다른 명칭 민족과 성격이 달랐다. 역사문화적으로 단일성이 확보된 구소련의 다른 명칭 민족과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경우 동서 두 개의 에스니에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에스니에 개념은 A. 스미스가 제시했다. 그는 근대 이전, 아직 민족(nation)과 같은 정치 단위가 되기 전에 문화적, 인종적 민족을 에스니에로 개념화했다. 에스니에는 공동의 신화, 역사, 문화, 특정한 영토와 연대의식을 갖고 있으며 명명된 집단이다(A. 스미스·이재석 역 2018, 10).

모든 에스니에가 민족(Nation)이 되지는 않지만 모든 민족은 에스니에였다. 에스니에는 종족적, 문화적 공동체 즉 원초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민족(Nation)이 되는 과정은 다양하다.

그런데 모든 민족은 에스니에 요소와 영토적 원리를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통된 분업체계(경제 영역), 구성원의 평등한 법적 권리, 즉 시민권(정치 영역)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민족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국가체제 안에서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 민족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권은 혈통과 문화의 공동체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통합의 민족 정체성을 제공하는 제도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시민권은 개인의 권리와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즉, 종족을 넘는 정치적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시민권은 신분과 계급의 경계를 횡단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특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종족을 넘어선 안정적인 민족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종족 간 통합 대신 내부 분열과 갈등이 재생산된다. 과거 미국의 남북 전쟁 등은 물론 최근 유럽의 통합과 이주민 문제(홍태영 2011, 237-242), 한국의 이주민 문제는 모두 시민권과 정체성 형성, 통합의 문제를 낳은 사례이다.

민족형성 과정⁴⁾에서 A. 스미스는 영토 안에 다양한 에스니에가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배적 에스니에가 자신의 신화를 강요하거나 시민권에 있어 차별이 있을 경우 민족 형성은 파열을 낼 수 밖에 없다. 즉, 에스니에가 민족을 형성하는데는 동원과 더불어 ‘포용’이 수반되어야 한다(A. 스미스·이재석 역 2018, 340-350). 시민권은 주권내 포용을 의미한다.

에스니에의 민족(Nation) 형성은 어떤 과정과 차원에서 이뤄지는가. 여기에 대해 A. 스미스는 문화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동시에 강조한다. 에스니에가 민족이 되는 경로는 군사, 재정, 행정 등을 통해 중산층과 외딴 지역을 통합하는 국가지원 전환(state-sponsored transformation)이 있고, 엘리트가 교육 등을 통해 전환시키는 동원화가 있다(엄구호 2011, 173-176). 두 차원은 시간적 순서를 두고 진행될 수 있다.

A. 스미스의 에스니에 개념의 장점은 근대론과 원초론 입장을 절충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이 근대적 현상임을 받아들이면서도 근대론이 갖는 단절성을 극복하고 전근대와 근대의 연속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근대론이 갖는 유럽 중심의 제한적 설명 범위도 확장시켰다(김지옥 2013, 357-370).

따라서 A. 스미스의 개념은 소련 성립 이전과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을 분석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는 언어, 인종, 종교 등은 물론 구조적 시절에도 각각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동서 구분은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구분이기도 하지만 근대화를 이루기 전에 종교, 언어 등에 있어서 다른 에스니에를 구분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통합 기억은 20세기 초 짧게 있었다. 이는 19세기 민족주의자들의 발명품이었다.

동부는 인종적으로 동슬라브인이며 대규모 러시아인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적으로 동방정교회가 주류를 이뤄왔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약 20%가 러시아인이며 이들 중 80%가량이 정교회를 믿는다. 크림, 드네프르 강 동부에 살고 있다. 서부는 서슬라브 영향이 강하다.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받아 정교 카톨릭(우니아트) 문화 속에서 자의식을 키우며 유럽의 일부라는 의식이 강하다(문명식 2001, 1-3).

언어도 다르다. 서부가 우크라이나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동부는 러시아어 사용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경제적으로도 동부가 구조론에 의한 군수, 항공 등 제조업이 발달했다면 서부는 농업, 관광이 발달했다.

4) A. 스미스의 에스니에와 민족 형성 논의에 대한 반론도 있다. 사례 중심이라는 비판이다. 박동천은 A. 스미스의 에스니에 개념이 체계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에스니에가 근대 민족형성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박동천 2008, 3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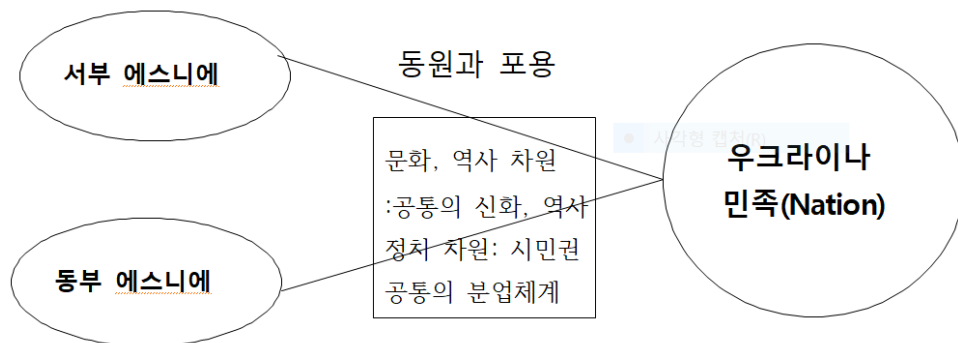
두 에스니에 간 역사적 정체성의 기원은 키이우 공국, 카자크 등에 대한 해석에 있다. 역사적 기원에 대해 러시아와 다른 정체성을 제시한 주체는 19세기 이후 발흥한 서부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였다.

폴란드, 러시아의 ‘수탈’이 동부와 서부를 하나로 묶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기간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경험한다. 하지만 다시 폴란드 지배하에 들어간 서부 에스니에는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폴란드, 러시아로부터 독립한다는 명분으로 나치에 협력하며 반소 무력 투쟁까지 전개했다. 전후 결국 서부는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 되어 동부 에스니에와 함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다.

구소련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국민국가(Nation State) 형성은 2014년을 분기점으로 극적 변화를 맞고 있다.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국민국가 형성이 강화되고 있다. 2014년을 전후로 유로마이단 시위, 러시아의 크림 침공 등으로 탈러시아화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 탈러시아화 정체성은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에스니에와의 단일성을 강조할수록, 또 이를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록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은 단순한 지역갈등이 아니다. 두개의 에스니에가 충돌, 배제, 통합을 시도하며 새로운 국가(State)와 짝을 이루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민족(Nation) 형성을 의미한다. 본고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민족은 원래 하나였는데 동서로 균열된 것이 아니라 두개(혹은 그이상)였던 에스니에가 동적 역학을 거쳐 하나의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단순화 할 수 있다.

〈그림 1〉 우크라이나 동서 에스니에의 민족 형성 개념도



II.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의 기원과 미래

1. 역사 문화적 차원

역사, 지리, 인종, 언어적 분포와 시기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지역적 구분은 기준에 따라 흔히 2개(동부, 서부) 3개(동부, 서부, 중부) 혹은 4개(동부, 서부, 중부, 남부), 5개(서부, 서남부, 중부, 동부, 남부) 지역으로 나뉜다. 이중 가장 세분화된 5개 지역적 특성을 살펴본다(우준모 1997; 박태성 2007 등).

5개 지역적 구분은 키이우 지역을 중부로 구분한다. 동부는 하리코프와 돈바스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역사, 언어, 경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인종적으로 러시아인의 비율이 30~40%에 이른다. 종교는 러시아와 같은 동방정교를 믿고 있다.

남부는 크림 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와 그 배후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러시아의 무력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러시아는 크림을 러시아 공화국의 자치공화국으로, 세바스토폴을 러시아 연방의 연방시로 승인했다. 하지만 아직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했다. 크림 반도는 인구의 3분의 2가 러시아인이다. 역사적으로 흐루시초프가 우크라이나에 양허한 지역으로 구소련의 흑해함대가 위치한 곳이다.

서부는 리비우⁵⁾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와 밀접하다. 리비우는 지리적으로 11세기~16세기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코프와 약 330km 떨어져 있다. 수도 키이우 보다 가까운 거리이다. 이 지역은 할리치나⁶⁾ 지역으로 불리며 러시아와 구분되는 민족적(ethnic) 색채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⁷⁾ 오랜 기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지배를 받았다.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통치를 받은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종교적으로 동방 카톨릭, 우니아트교(Униатская Церковь, the Uniate Church)⁸⁾를

5) 주변국이 이 도시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함축적으로 복잡한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어 Львів (리비우), 러시아어 Львов (리보프), 폴란드어 Lwów (르부프), 독일어 Lemberg (렘베르크)로 불린다.

6) 우크라이나어 Галичина (할리치나), 러시아어 Галиция (갈리치야), 폴란드어 Galicja (갈리치아), 독일어 Galizien (갈리치엔) 영어는 Galicia (갈리시아)로 표기한다.

7) 할리치나 또는 갈리치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폴란드 왕국의 수도 크라쿠프까지 포함한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갈리치아 서부는 폴란드, 동부는 우크라이나령을 의미한다. 갈리치아 지역의 2대 도시는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던 크라쿠프, 그리고 지금의 리비우이다. 이글에서 할리치나는 우크라이나 지역만을 한정해 칭하기로 한다.

8) 1592년 브레스트 회의에서 공식 출범했다. 통합을 의미하는 우니아트 교회는 지배층 카톨릭 폴란드 귀족과 피지배층 정교 농민이 갈등을 빚다가 타협한 정치적 산물이다. 동방 정교와는

민는 지역이다. 제레는 동방정교이지만 로마교황청의 권위체계를 따른다.

서남부는 체르니우치(Чернівці)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래는 루마니아의 전신 중 하나인 몰다비아 공국의 영토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병합했다.

우크라이나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키이우를 포함한 중부, 리비우 중심으로 남서부를 포함한 서부, 크림과 배후 지역을 포함한 남부, 하리코프, 돈바스를 중심으로 한 동부로 구성된다. 또 서부, 중부, 동부 3개 지역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경우 동부는 크림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를 동서, 2개 지역으로 나눌 경우 기준은 드네프르 강이 된다. 강을 경계로 기존 서부에 드네프르 강 서편의 중부, 크림반도 좌측의 서남부를 포괄한다.⁹⁾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 구분 외에 언어 사용에 따라 동북부 수미주에서 오데사에 이르는 비스듬한 직선을 동서 구분선으로 보기도 한다. 이 경우 키이우 등 중부지역이 서부에 포함되는 대신 헤르손 등 크림반도 배후 남부가 동부에 포함된다(허승철 2009, 317-318).

이 글에서는 데이터 자료에 따라 지역구분을 소개하되 동부와 서부 에스니에를 언급할 때는 언어,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동북부 수미주에서 오데사에 이르는 사선의 구분을 따르기로 한다. 에스니에의 주요 구성요인인 언어, 종교적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도,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이 선에 좀 더 가까운 경향이 있다.

우크라이나 동서 에스니에가 통합된 것은 20세기 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공화국,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이렇게 세시기다. 20세기 초 짧은 통합의 경험에는 19세기 이후 발흥한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가 있었다. 서부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와 다른 역사적 정체성을 주조했다.

극렬한 대결을 벌이곤 했다. 언어와 함께 동서 에스니에를 나누는 역사문화적 차원의 핵심 요소다.

9)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한 동서 구분을 드네프르 강 좌안(Лівобережний), 우안(Правобережний)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좌안은 강 동쪽 즉 동부를, 우안을 강 서쪽, 서부를 의미한다. 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다.

10) 지역별 여론 조사와 분석에 있어서는 해당 자료의 지역 구분에 따른다. 또 크림 사태 이후의 크림지역을 아예 남부에서 제외한 구분과 자료도 있는데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림 2〉 수미-오데사 선에 따른 동서 에스니에 구분¹¹⁾



하지만 서부 우크라이나는 다시 폴란드 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토가 된다. 동서 우크라이나의 본격적 통합은 역설적으로 구소련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의 대결 속에 서부 중심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다시 강화된다.

1-1 두 에스니에의 기원

에스니에는 공동의 신화, 역사, 영웅을 주요한 상징체제로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신화, 역사, 영웅은 19세기에 만들어 졌다. 유럽의 민족주의 세례 속에 서부 에스니에가 만들어 낸 것이다. 셰우첸코(Тарас Григорович Шевченко, 1814년~1861년)는 우크라이나어를 민족어로 만들었고(성동기·허승철 2018), 흐루세우스키(Михайло Сергійович Грушевський, 1866년~1934년)는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다른 우크라이나 역사 정체성을 만들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역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1917년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의회 격인 라다의 의장)였다(한정숙 2014).

제1차 세계대전과 볼셰비키 혁명 이후 혼란기, 동서 우크라이나는 각각의 국가를 건설하고 1920년 통일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서부는 폴란드, 동부는 소련의 영토가 된다.¹²⁾

11)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ua-ko/index.do>)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를 바탕으로 재가공하여 만든 것임.

12) 이 시기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간이었다. 세계 제1차대전, 오스트리아 제국의 해체, 볼셰비키

● 키이우(Київ, 러시아어 키예프 Киев) 공국

서부 에스니에의 역사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키이우 공국과(9세기~13세기)과 카자크다. 키이우 공국의 계승자는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것이 서부 에스니에가 주조한 역사다. 키이우 공국 - 리투아니아 대공국 -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키이우 공국의 전통성을 모스크바 공국이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정숙 2014, 395-396).

호루세우스키는 키이우 공국을 건설한 이들을 루테니아(Ruthenia)민족으로 서술한다. 그에 의하면 루테니아인은 슬로바키아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로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러시아인과 구별되는 단어다(박정호 2014, 65-66).

모스크바 공국은 키이우 공국과 달리 러시아인이 세운 별개 국가라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정체성은 결국 우크라이나는 원래 유럽의 일부였고,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라는 해석에 이르게 된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인과 다른, 이 루테니아인이 형성한 군사정치적 집단이 코자크다(미하일로 호루세브스키, 허승철·한정숙 역 2016).

● 코자크(козак, 러시아어 카자크 казак)

서부 에스니에는 민족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 코자크의 활동과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호루세우스키에 따르면 루테니아인 코자크는 폴란드 통치와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해방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독립 국가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주변 강대국의 간섭에서 자율성을 확보한 사실상의 자치국가 정치체제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코자크는 지도자인 헤트만(Гетьман)이 다스렸는데 헤트만은 오늘날 의회적인 라다(Rada)에서 선출됐다. 세습 체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코자크는 강력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던 러시아, 폴란드, 오스만튀르크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군사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자크의 주요 내부 규율은 두가지다. 코자크에 들어 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하며 동방정교를 믿어야 했다(성동기 2004, 290-297).

우크라이나 곳곳에 생겨난 코자크 집단은 공통의 배경을 갖고 태어났다. 주변 강국으로부터의 '수탈'과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위적 항거'가 배경이다. 하지만 수탈의 주체가 달랐다.

서부는 폴란드 귀족으로부터, 동부는 러시아 차르로부터 '수탈' 당했다. 돈 카자크

혁명, 러시아 적백군간 내전 등 힘의 공백과 교체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동유럽과 발칸에서는 수많은 공화국이 탄생을 선포하고 소멸했다.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도 그중 하나다. 짧은 기간 독립의 경험은 서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했다.

집단은 모스크바 공국과 종교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경향이 강했다. 드네프르 카자크는 폴란드의 착취 속에 정체성을 키워 왔다.

수탈 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동부의 돈 카자크는 농업과 러시아 변방을 지키는 전사라는 신분적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러시아 제국 해체 때까지 이어진다. 러시아 제국은 코자크에게 일부 자치를 허용하면서 군사능력을 높게 평가해 러시아 변방의 국경을 맡겼다. 용병의 성격을 띄고 있었지만 러시아는 형제애를 강조했고 이는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중서부 코사크는 이와 성격이 달랐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수탈을 피해 온 이들과 그 후손으로 구성된 자포로자(Запорожжя)의 코자크가 그런 사례다. 헤트만이 예속을 선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치성 확보에 나섰다. 주변 국가와 전쟁, 연합 등 좀더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에 나선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은 국가의 역사적 원형으로 본다(구자정 2017, 10-18).

19세기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자들은 코자크를 동서 공통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상징화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서부의 할리치나 지방은 정작 코자크 공동체를 구성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폴란드 지배의 할리치나에서 탈출해서 결사한 것이 코자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사크의 내부 규율 원리 중에 하나인 동방정교를 서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부에서는 폴란드 귀족과 대지주간의 타협으로 로마카톨릭 산하의 우니아트가 뿌리를 내린다. 중세체계의 정치 원리 중에 하나였던 종교에 있어서 동서 에스니에는 구분되었다(우준모·김종현 2013, 141-162).

● 페레야슬라우(Переяслав, 러시아어 페레야슬라프 Переяслав) 조약

서부 에스니에가 역사해석과 정체성에 있어서 러시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페레야슬라우 조약이다. 17세기 카자크의 헤트만 흐멜니츠키(Богдан Зиновій Михайлович Хмельницький)는 폴란드와 전쟁을 치르면서 같은 슬라브족이자 정교회 국가 모스크바공국과 동맹 조약을 체결한다. 1653년 페레야슬라우 조약이다.

이 조약에 대한 의미가 부여가 상이하다. 러시아는 이 조약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즉 러시아가 종주권을 갖게 되고 키이우 공국의 정통성을 이어 받아 재통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해석에 따라 러시아는 대리시아, 우크라이나는 소러시아가 된다.

반면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자들은 당시 우크라이나가 맺었다가 파기한 군사동맹조약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즉, 우크라이나는 조약의 결과로 흐멜니츠키가 사실상 코자크 자치국가를 수립했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구로카와 유지 저, 안선주

역 2022, 119-131).

17세기 페레야슬라우 조약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동남부 지역 일대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다.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동화 과정을 겪으며 독립적 정체성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결국 종교, 언어 등에 있어서 구별되는 동서부 에스니에가 각각 강화된다.

페레야슬라우 조약 이후 할리치나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폴란드의 수탈과 갈등 속에서 독자적 민족 자의식을 발전시켜 나간다. 18세기 말 폴란드가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의해 분할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토가 된다. 서부 에스니에는 오스트리아 제국 통치하에서 유럽의 한 부분이 되어 언어와 교육, 문학에서 자의식을 키운다.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 세력 속에 자의식을 키운 할리치나는 1917년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동서 우크라이나의 단일성도 강조된다.

이런 가운데 동부에서도 볼셰비키 혁명 중에 오데사 소비에트 공화국, 도네츠크-크리보이로크 소비에트 공화국 등이 수립되었다. 1920년 동서 우크라이나는 통일을 선언했다. 하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곧 다시 서부 할리치나는 폴란드, 동부는 소련의 지배에 들어간다.

● 대러시아론과 우크라이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질적 요소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에스니에와 서부 에스니에를 하나의 정체로 묶은 것은 소련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할리치나를 편입한 소련은 우크라이나와 민족 간의 우애를 강조한다. 구소련 시절 1953년 니키타 흐루시초프는 페레야슬라우 조약 체결 300주년을 기념에 우크라이나에 선물을 줬다. 바로 크림반도다.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우의의 표시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의 양여한 것이다. 구소련의 러시아는 대러시아론을 내세우며 러시아와 소러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시아가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한다. 이른바 ‘만형론’이다(조정남 1996, 260-263).

대러시아론은 푸틴에 의해 소러시아(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를 러시아의 일부로 여기는 쪽으로 강화되었다. 나토의 동진으로 이런 인식은 국제관계에도 표출됐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08년 4월 루마니아에서 열린 나토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은 “실존적 위협”이라며 “반드시 저지 하겠다”고 맞섰다. 푸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말했다. “조지, 우크라이나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는 동유럽에 있고 더 큰 영토는 우리 것이었어”¹³⁾ 이는 할리치나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현재

13) 출처: <https://www.nytimes.com/2022/01/24/opinion/russia-ukraine-putin-biden.html> (검색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에스니에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전쟁 발발전 2021년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민족적 관계에 대해 공식 문서를 발표한다. 고대사에서부터 현대의 역사를 되짚으며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소비에트의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현대 우크라이나의 탄생으로 러시아의 일부였던 영토가 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푸틴 2021).¹⁴⁾

1-2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의 비극: 영웅인가? 악마인가?

19세기 후반 서부 에스니에의 민족적 각성은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한다. 그 결과 세계 제1차대전 이후 독립단체가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 OUN(Organization of Ukrainian Nationalists, 우라이나어 ОУН, Організація українських націоналістів)이다.

동부 에스니에는 1932년 1933년 대기근으로 수백 만 명이 기아로 사망한 홀로도모르(Голодомор)¹⁵⁾를 겪는다. 스탈린의 무리한 집단농장 추진 때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부에서도 민족적 각성이 강화했다. ‘수탈’의 의한 민족주의를 소환한 것이다. 반소 감정이 높아진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자들은 OUN 산하에 반소 무장독립 단체 활동을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저항군 UIA(Ukrainian Insurgent Army, 우크라이나어 УПА, Українська повстанська армія)은 게릴라 투쟁을 통해 반소, 반스탈린 독립투쟁을 이끌었다.

독소 전쟁 발발 당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독일을 폴란드와 소련 세력으로부터 구해줄 해방군으로 여겼다. 그들은 자생적 파시즘 성격을 띄고 있었다(구자정 2015, 2-6). 나치의 침략을 환영하고 일부는 그 전위대가 되어 소련과의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나치가 소련과의 전투를 위해 병력을 보충했을 때는 8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자원했다. 독일군은 이렇게 만들어진 사단을 제14 나치 무장친위대 전투사단 ‘갈리치나(Galizien)’으로 명명했다(구자정 2015, 9-11; Wylegala Anna 2017, 780-797).

일: 2022. 06. 25.).

14) Стать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2021. 06. 12.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영문으로도 볼 수 있다. Vladimir Putin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http://kremlin.ru/catalog/countries/UA/events/66181> 고대사에서부터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까지, 양국 관계에 대해 이례적으로 통치권자가 문서와 tv 대담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사실상 전쟁 명분을 국내외에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

15) 기아 죽음이라는 의미로 사망자를 최소 100만 명에서 많게는 1500만명까지 추정하는데 대략 약 300만 명이 사망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대기근이 볼셰비키 지도자들의 인종 학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련의 전위대 역시 상당수가 중부, 동부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되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부와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각각 나치의 전투사단과 붉은 군대로서 전투에 나섰다. 두 에스니에가 맞붙은 대표적인 전투가 1944년 6월 브로디 전투다.¹⁶⁾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일부 서부 중심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포그롬, 유태인 학살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시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는 대표적인 유태인 거주 국가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140만명~2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 약 20%내외가 유태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또 독립을 명분으로 폴란드인에 대한 인종학살에도 나섰다. 할리치나와 볼린(Boлнн, Volhynia) 등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12만 명 이상의 폴란드인들을 학살했다. 연령과 성별의 구분도 없었다. 서부 에스니에 중심의 우크라이나 무장 조직은 "폴란드인들에게 죽음을, 모스크바-유대 공산주의에게 죽음을"이라는 가사의 군가를 부르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김용덕 2010, 24-34).¹⁷⁾

비극은 냉전시대에도 이어졌다. 나치 독일 패망 이후 서부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반소 게릴라 투쟁과 첩보전을 나섰다. 1956년에야 소련 지역에서 UPA의 마지막 부대가 소탕됐다. UPA에게는 우호 세력의 지원이 있었다. 소련과 대결하던 미국과 영국이다. OUN 조직원의 상당수는 친나치 전위대에서 반공투사로 변신한다(Bartov Omer 2007).

대표적인 인물이 할리치나 출신의 스테판 안드리요비치 반데라(Степан Андрійович Бандера)이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운동가이자 나치협조자다. 그는 1929년 리비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OUN)을 주도했고, 이를 무장조직으로 정비해 나치의 반소련 정책에 동조했다. OUN은 소련의 니콜라이 바투틴 대장을 암살했고 폴란드인 유대인 학살에도 참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미국 CIA의 지원을 받아 반소 투쟁을 주도했다. 냉전초기 반데라의 OUN은 요원들을 침투시켜 소련 내에서 첩보 작전을 전개했다.

반데라는 구소련 시절에는 반소투쟁 활동으로 나치부역자로 평가되었다. 러시아는 파시즘 옹호자이자 민간인 학살 등을 주도한 전쟁범죄자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독립이후 서부 에스니에를 중심으로 그는 우크라이나 독립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Marples 2006, 55-66). 우크라이나 현실정치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16) 나치의 소련 침공 작전, 바르바로사 작전의 초기 전투로 브로디 전투 또는 두브나 전투 등으로 불린다. 1941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독일 1 기갑군단, 3 군단, 68 기계화군단이 소련 5 군단, 제 6군단과 벌인 전투로 나치가 승리했지만 큰 피해를 봤다.

17) 볼히니아(볼린) 학살 사건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풀지 못하고 현재에도 갈등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이다.

2010년 서부 에스니에를 대표한 빅토르 유센코 대통령이 반데라에게 우크라이나 영웅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동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다. 동부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훈장 수여 결정을 무효 처리 했다(Yurchuk Yuliya 2017,107-137).

2014년 유로마이단(Euromaidan, 에우로마이단 Євромайдан) 혁명 이후 또 상황이 바뀐다. 서부 에스니에의 지지를 받고 있던 포로셴코 정부는 2018년 12월 영웅 칭호를 내리기로 했다. 서부 에스니에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신이 유대인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데라의 독립 투쟁은 인정하면서도 2019년 8월에 반데라에게 영웅 칭호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푸틴은 이같은 과거사의 맥락속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만나치 전쟁으로 선언한 것이다. 푸틴은 2021년 우크라이나 서부 에스니에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은 폴란드인에 의해 만들어진 혼합물이라고 밝힌다. 반데라는 나치 부역자 일뿐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영웅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개탄한다.¹⁸⁾

역사는 현재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해석 된다는 점에서 반데라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과거는 향후 우크라이나 동서 에스니에의 통합과 민족형성에 있어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2. 정치적 차원 - 권력 공유에서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독립 이후 민족국가를 형성함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동부 에스니에와 서부 에스니에가 권력을 공유하며 정권을 교체해 왔다. <표 1>에서와 같이 한쪽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은 다른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총리를 기용하는 형태였다.

<표 1> 2014년 이전 우크라이나 역대 대통령 주요 총리

	대통령	지지 에스니에	주요총리	지지 에스니에
1991~1994	크라프추프	서부	쿠츠마	동부
1994~2005	쿠츠마	동부	유센코/ 야누코비치	서부/ 동부
2005~2010	유센코	서부	티모셴코/야누코비치	서부/ 동부
2010~2014	야누코비치	동부	아자로프	동부

18) Статт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2021. 06. 12.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영문으로도 볼 수 있다. 출처: <http://kremlin.ru/catalog/countries/UA/events/66181>

하지만 동서 에스니에 간 불안한 국가 권력 공유는 2014년 이후 서부 에스니에 주도로 변화한다. 가장 큰 요인은 유로마이단과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이다. 친유럽 서부 에스니에 주도의 유로마이단 시위는 동부 에스니에를 자극했다. 그러자 동부 에스니에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2014년 독립을 선언했다. 여기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자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이 변화했다.

동부 에스니에의 핵심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현실 정치에서 배제됐기 때문에¹⁹⁾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동서부 에스니에 사이의 권력구조가 변하는 결과를 낳는다. 크림, 도네츠크, 루간스크 등을 제외한 동부 에스니에 지역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주도권을 쥔 서부 에스니에는 내적으로 야누코비치 시절 동부지역 지방정부에서 일했던 러시아어의 공용어 지정 등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어가 유일 공용어임을 확인했다. 외적으로 친유럽, 탈러시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 전후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는 동서부 에스니에의 균형에서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민족(Nation)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구체적 조사결과를 통해 2014년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짚어 본다. A. 스미스는 에스니에가 민족화 하는 모델로 종족-계보적 유형(ethnic-genealogical model)과 시민 영토적 유형(civic-territorial model)을 제시했다(엄구호 2011, 167-168). ‘시민권’은 에스니에의 민족 형성에 있어 중심적 요소다(A. 스미스, 이재석 역, 2018, 345-346). 시민권을 중심으로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민족 형성의 방향도 살펴본다. 이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미래 전망에도 유용할 수 있다.

2-1 동서의 권력 공유 시기 - 2014년 이전

〈표 2〉에서와 같이 1991년 독립 찬성하는 여론이 동서부 에스니에 양쪽에서 모두 압도적이었다. 우크라이나인 90.32%가 독립에 찬성했다. 다만 남부 크림주는 독립 찬성이 34.19%에 그쳤다.

하지만 동서간 독립 요구의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서부지역에서 인구에서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는 19세기 유럽의 발흥했던 민족주의가, 잠재 되어 있다가 다시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와 다른 독립적 민족국가 성립이 목표였다(김경순 2004).²⁰⁾

19) 도네츠크인민공화국(약 200만명), 루간스크인민공화국(약 150만명) 크림공화국(약 196만명) 세바스토폴시(약 42만명)으로 약 588만명의 동부 에스니에 지역이 우크라이나나 정치제제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인구(약 4,150명)의 15%에 가깝다.

반면 인구의 20% 이상이 러시아인이었던 동부의 경우, 탈소련 움직임이 민족주의에 의해 추동되기 보다는 구소련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무능함에 대한 항거 성격이 짙었다. 즉,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민주화와 독립을 향한 요구로 이어졌다. 러시아화 정도가 강했던 돈바스 지역의 광부들의 시위와 우크라이나의 법적 주권 확립 요구가 그러한 예이다(박태성 2007).

〈표 2〉 1991년 주요 지역 독립 찬성 투표 비율²¹⁾

동부	남부	중부	서부	남서부
도네츠크 83.9%	크림 34.19%	키예프 95.52%	리비우 97.46%	체르니프치 92.78%
루간스크 83.86%	오데사 85.38%	폴타바 94.93%	볼린 96.32%	

하지만 1994년 대선이후 동부와 서부 에스니에는 정치적 정체성의 대결을 본격화한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크라우츠크(Леонід Макарович Кравчук, 러시아어 크라프츠크 Леонид Макарович Кравчук)는 과거 친러 세력과 대립각으로 집권했으나 경제가 발목을 잡았다. 전총리 쿠츠마(Леонід Кучма)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내걸었다. 또 명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러시아의 일부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며 동부지역 표심을 자극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리비우를 중심으로한 서부에서 크라우츠크는 87.4%나 득표했음에도 전체 서부지역 득표율이 54.1%에 그쳤다는 점이다. 서부 에스니에 민족주의 세력이 패배했다.

〈표 3〉 1994년 우크라이나 대선 주요지역별 득표율²²⁾

	쿠츠마	크라우츠크
동부지역	65.9%(동부 75.6%)	
키이우		59.7%
서부지역		54.1%(서부 87.4%)
합계	52.1%	45.1%

20) 초기 우크라이나 체제 이행과 국가 형성과정에서도 동서간 통합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혔다.

21) 우크라이나 민족과 민족주의의 진로. 러시아 지역연구 내용을 변형한 것임(우준모 1997, 86).

22) 우크라이나 동서 지역갈등과 주변국가의 역학구조. 슬라브연구23(2). 지역분류를 셋으로 할 경우 동부지역, 서부지역과 키이우로 분류했고, 괄호 안의 동부, 서부는 5개 지역구분시 분류를 따른 것임(박태성 2007, 63).

동서 에스니에간 정치적 정체성의 대결은 2004년 오렌지 혁명으로 극화된다. 재선거까지 치른 양자 대결에서 경제 악화, 대외 문제, 쿠츠마의 독선과 부패 등이 이슈가 되었으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동서 대결로 귀결되었다. 1994년 선거와 비교할 때 대결이 더 심화되었고 리비우 중심의 서부 에스니에의 결집력이 서부지역 전체로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1994년 서부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크라우츠크는 54.1%를 득표했는데 2004년 유센코(Віктор Ющенко)는 69.79%를 득표했다. 1994년 동부 에스니에를 대표하는 쿠츠마는 동부지역에서 65.9% 득표했는데 2004년 야누코비치(Віктор Янукович)는 72.02%를 얻었다. 유센코는 리비우에서 94%, 야누코비치 도네츠크에서 94%를 각각 득표했다.

<표 4> 2004년 대선 결선 투표²³⁾

	유센코	야누코비치
동부지역		72.02%(동부 78.51%) *도네츠크 94%, 크림 81%
키이우	80.54%	
서부지역	69.79%(서부 85.83%) *리비우 94%	
합계	51.99%	42.20%

서부 에스니에는 집권에 성공했지만 유센코와 티모셴코(Юлія Володимирівна Тимошенко), 포로셴코 간의 내부 분열이 이어지고 경제 정책에 실패한다. 여기에 세계금융위기까지 겹쳐 러시아가 현실적인 지원세력으로 부각하면서 결국 2010년 야누코비치는 티모셴코를 결선 투표에서 48.9%대 45.4%로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다.

야누코비치의 집권은 서부 에스니에 정치엘리트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티모셴코 등이 투옥되었다. 야누코비치는 EU협력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여기에 경제난에 IMF의 지원까지 끊긴데다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어렵게 집권한 친러 동부 에스니에의 정권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힌다. EU와의 협정 거부로 유로마이단 시위가 격화되고 결국 야누코비치는 탄핵되고 러시아로 도피하기에 이른다. 야누코비치의 실정과 유로마이단으로 서부 에스니에 정권이 다시 탄생했지만 동부의 도네츠크

23) 박태성(2008, 68)의 표를 단순화하여 변형한 것임.

크,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내전 상태에 들어 갔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크림을 침공, 병합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부 에스니에의 핵심 지역이 우크라이나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서부 에스니에를 중심으로 하는 포로셴코(Петро Порошенко), 젤렌스키(Володимир Зеленський)가 집권한다. 결국 2014년 이후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민족형성이 가속화된다.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과 내전, 러시아의 크림 무력 병합은 이들 지역을 제외한 동부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키고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을 변화시킨다.

2-2 서부 에스니에의 권력 강화와 시민권 - 2014년 이후

2014년 이후 서부 에스니에를 중심으로 한 민족 형성 강화는 단순히 정치권력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에스니에의 정체성 변화도 엿볼 수 있다. 특히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 변화가 주목된다.

〈표 5〉 지역별 전통과 관습에 따른 친밀도²⁴⁾

	서부	중부	남부	동부
키이우	6.7→ 6.6	8.5→ 8.2	7.3→ 7.8	7.4→ 6.9
할리치나	8.6→ 8.1	6.2→ 5.6	4.3→ 4.7	4.4→ 5.1
크림	4.7→ 4.6	6.9→ 4.9	7.9→ 7.5	7.8→ 7.1
돈바스	4.4→ 4.0	6.9→ 4.3	7.4→ 7.2	9.0→ 7.4
러시아	3.7→ 1.5	6.4→ 3.0	7.3→ 5.2	8.4→ 5.7

* 0~10. 10이 최대 호감도를 의미

** 남부는 러시아의 점령으로 2016년, 2021년 모두 크림지역을 제외하였음.

*** 2006년 조사결과 → 2021년 조사결과

24) 라쭌코프센터(Razumkov Center, Центр Разумкова). 2021. Ukraine: 30 Years ON The European Path. 139. <https://razumkov.org.ua> 라쭌코프센터는 우크라이나 대표적 사회조사기관이다. 독립이후 30년간 우크라이나의 경제, 사회 정치, 외교 등 각 분야에 대한 변화에 방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30년간 사회적 변화를 통해 구소련체제에서 유럽 민주주의 체제로 변신중이라고 진단한다. 인용한 조사결과는 2006년 5월과 2021년 6월에 실시된 것을 비교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는 30년은 물론 2014년을 기점으로 7년 전후의 변화상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 조사는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물이다.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은 독일기민당의 정당 재단으로 유대인에 대한 사과와 보상, 프랑스와의 화해를 이끌었던 아테나워 전수상의 업적을 기려 창립되었다.

전통과 관습은 에스니에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라쭌코프센터의 2006년과 2021년 전통과 관습에 대한 지역별 친밀도 조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표 5>에서와 같이 동부 에스니에의 경우, 서부의 할리치나 에 대한 친밀감이 4.4에서 5.1로 소폭 높아졌다. 반면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이 있는 동부 돈바스에 대한 친밀도는 9.0에서 7.4로 대폭 낮아졌다. 여기에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 점령과 이후 충돌이 동부 에스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동부 에스니에의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 역시 8.4에서 5.7로 대폭 낮아졌다.

2014년 이전 동서 에스니에의 권력 교체와 공유를 주도했던 중부도 크게 변했다. 중부의 크림, 돈바스,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낮아 졌다.

이 조사에서 우크라인 전체의 러시아에 대한 친밀도는 6.8에서 3.5로 대폭 낮아 졌다. 2021년 조사결과 러시아의 호감도 10점 만점의 3.5는 벨라루스(6.0→4.6), 폴란드(3.7→4.4)슬로바키아(3.2→4.1) 몰다비아 (3.0→3.8) 헝가리(2.8→3.7)보다 낮은 수치이다.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러시아와 같은 종교와 언어이다. 그런데 2014년 이후 급격하게 변화가 있음을 다음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6> 문화적 전통과 연관성(%)²⁵⁾

	2006년5월	2013년12월	2015년3월	2017년12월	2021년6월
우크라이나	56.3	67.7	65.5	68.9	72.9
범유럽	6.6	7.5	10.0	13.1	9.8
소비에트	16.4	12.5	13.8	9.9	9.8
러시아	11.3	6.2	4.2	2.0	3.3
기타	1.5	1.7	2.2	0.9	0.8
응답 어려움	7.9	4.4	4.2	5.1	3.4

<표 6>에서와 같이 문화적 전통이 소비에트와 러시아와 연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006년 5월에는 27.7%(소비에트 16.4%, 러시아 11.3%)였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EU협정 연기로 발흥한 2013년 11월 유로마이단 시위이후 대폭 낮아진다. 소비에트와 러시아라고 답한 비중은 2015년 18%로 낮아지고 이후에도 러시아와 충돌과 갈등이 점증되자 2021년에는 13.1%로 다시 낮아진다. 15년 사이에 소비에트, 러시아와 문화적 전통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인이 절반으로 줄어 든 것이다.

25) 라쭌코프센터(Razumkov Center, Центр Разумкова). 2021. 출처: <https://razumkov.org.ua>

이와 대비되게 우크라이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정체성은 강화됐다. 즉, 문화적 전통이 러시아, 소비에트와 관련이 있다는 정체성을 크게 낮아졌지만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다는 응답은 2006년 56.3%에서 2021년 72.9%로 높아졌다. 문화적 차원에 있어서도 서부 에스니에의 정체성이 강화, 확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에스니에의 구성요소인 언어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읽고 싶은 외국서적이 번역될 경우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어느쪽 번역을 선호하겠느냐는 질문에 둘다 상관없다는 대답이 2006년 28.3%에서 2021년 34.5%로 늘었다. 주목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어만을 선호하는 응답이 28.7%에서 32.0%로 늘어난 반면, 러시아어만을 택한 이는 2006년 36.8%에서 16.5%로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²⁶⁾ 이는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 변화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가 어느 쪽과 통합 경로를 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02년에는 러시아가 31.6%, EU 31.4%로 거의 같았다. 경제난이 가중된 2009년에는 러시아라는 응답이 52.5%로 EU 23.8%를 압도했다. 경제난과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 속에 동부 에스니에가 결집, 강화되면서 2010년 야누코비치가 집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유로마이단, 러시아의 크림 점령 등으로 상황은 극적으로 변한다. 러시아를 택한 응답이 17.6%로 추락하고 EU라고 답한 우크라이나인이 57.6%로 늘어난다. 2021년 조사에서 EU는 51.5%로 큰 변화 없지만 러시아라고 답한 이는 9.6%, 한자리수로 내려 앉는다.²⁷⁾ 1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미래 선택지 항목에서 사실상 러시아를 지우고 있는 셈이다. 여러 연구에서 2014년 유로마이단, 러시아의 크림 점령 전후로 우크라이나 국민 정체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Grigore Pop-Eleches 외 2018, 107-118)²⁸⁾

결국 2014년 전후 약 15년간 우크라이나 현실정치에서 동부에스니에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에스니에의 정체성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²⁹⁾

26) 출처: <https://razumkov.org.ua>

27) 출처: <https://razumkov.org.ua>

28) 예를 들어 Grigore Pop-Eleches & Graeme B. Robertson은 2012년 라쭌코프 데이터와 2015년 조사를 통해 정치적 선호(EU지지, 러시아지지)와 인종정체성, 사용언어, 시민정체성과의 상관성을 조사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고, 정치적 선호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사용언어로 나타났다.

29) 이를 Kulyk(2016, 588-608)은 유로마이단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족정체성의 러시아성 벗어나기(shedding of Russianness)라고 명명한다. 스스로를 우크라이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늘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인종적으로 러시아인이면서도 우크라이나 민족이라고 답하는 정체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을 형성할 수 있을까? A. 스미스는 서로 다른 에스니에가 하나의 민족(Nation)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분업, 혈연보다 영토에 기반한 구성원의 평등한 법적 권리 즉 시민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한데 지배적 에스니에가 다른 에스니에를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0개 소수인종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는 헌법적으로 영토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체성으로 내화되느냐다. 아래 표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영토 시민적 변화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지난 15년간 누가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인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는 조사결과이다.

〈표 7〉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에 대한 정의(%)³⁰⁾

	2006년5월	2015년12월	2021년6월
1. 인종, 언어, 전통과 상관없이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all of citizens of Ukraine)	43.1	55.7	51.3
2. 종과 상관없지만 우크라이나어와 전통을 따른 우크라이나 시민	15.1	17.0	18.3
3. 종족(ethnic) 우크라이나인, 조상이 우크라이나 인인 우크라이나 시민	19.8	11.2	14.8
4. 시민권과 상관없이 인종적 우크라이나인	14.2	7.7	9.7
응답 어려움	7.8	8.3	5.8

〈표 7〉에서와 같이 문항의 1번과 2번은 영토적 시민에 기반한 민족이라는 응답으로 볼 수 있다. 1,2번은 2006년 58.2%로 3번 4번 혈연적 개념 34%보다 높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점령 이후인 2015년 조사에서는 1,2번의 합은 72.7%로 거의 20% 가까이 상승한다. 반면 3,4번 응답은 18.9%로 약 15%이상 낮아졌다. 이런 흐름은 2021년까지 이어졌는데,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조사가 이뤄진다면 영토적 시민권 개념의 민족(Nation) 응답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유추된다.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와 러시아의 크림 침공은 우크라이나인 동서 에스니에 역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독립 이후 동서 에스니에 권력 공유 구조가 깨졌을 뿐 아니라 동서 에스니에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부 중심으로 에스니에가 민족(Nation)을

30) 출처: <https://razumkov.org.ua>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속에 동서 에스니에는 영토 시민적 기반의 민족(Nation)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결론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에 대해 서구 시각은 매우 단순하다.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서쪽과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쪽을 고식화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인식의 바탕위에 우크라이나 동서 갈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설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 지배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민족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봉합이지 해소가 될 수 없다. 동부 우크라이나가 서부와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동부가 과거처럼 러시아와 강한 유대감을 갖고 동화 될 지는 미지수다.

2014년 이후 러시아와의 대결로 우크라이나 동서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고 동부에서는 과거와 다른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국민 정체성은 역사 문화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2014년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구별된다.

이를 A. 스미스의 에스니에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서유럽 근대국가와 다른 경로를 걸어 온 우크라이나에 적용할 때 적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역사 문화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의 동서 에스니에는 주변 강대국의 약탈과 착취 속에 민족의식을 키워갔고 이를 주도한 것은 19세기 서부 에스니에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실적으로 소련에 의해 국가(state)가 성립했고 소련의 해체와 독립으로 민족(nation)을 형성해 가고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독립후 2014년까지 동서 에스니에는 권력을 교체, 공유해 왔지만 2014년 이후는 서부 에스니에가 주도하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 측면에서 동부에스니에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크림공화국 등의 독립은 현실 정치에서 서부 에스니에의 권력을 강화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직접 개입 등은 동부 에스니에의 정체성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 러시아와 전면전 이후 더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론 된다.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민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요인, 러시아의 직접 개입으로 동부 에스니에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드는 역설을 낳았다. 러시아의 분리에 의한 우크라이나 민족의 재통합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이선우 2015)

하지만 아직 서부 에스니에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민족(nation)의 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A. 스미스가 지적한 동원과 포용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크라이나 민족(nation) 형성은 외부, 러시아의 침략에 의한 동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포용의 민족 형성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동부 에스니에 대한 사회, 정치적 강압적 동화나 강압이 진행 경우, 민족 형성은 커녕 다시 분화를 맞을 수도 있다.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인종적 요소보다는 영토 시민적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홀로코스트 등의 기억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거이자 미래다.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동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의 국제 관계, 특히 러시아, 폴란드 등과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지정학적 특성상 이는 다시 우크라이나 내부 갈등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



- 강진웅. 2021. 민족주의의 근대론적 성찰 - 정치와 경제의 근대적 역동성. 민족연구. 77. 123-135.
- 구로카와 유지 저. 안선주 역. 2022.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 글항아리. 119-131.
- 구자정. 2017. 16세기 말 17세기 초 자포로지에 카자크 집단을 통해 본 우크라이나 역사의 카자크적 기원과 루스(Rus') 정체성. 슬라브 연구. 33(4). 10-18.
- 구자정. 2015. 악마와의 계약? 우크라이나 파시즘 운동 1929~1945. 슬라브연구. 31(4). 7-11. 49-51.
- 김정순. 1998. 우크라이나의 국가형성과 정치변화. 슬라브학보 13(2). 147-161
- 김정순. 2004. 탈소 우크라이나의 체제이행 특성과 전망. 중소연구. 101. 125-129, 131-142.
- 김정순. 2017.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안보정책과 함의. 민족연구. 70. 96-110
- 김용덕. 2010. 폴란드-우크라이나의 과거사 문제 연구 : 보위인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7(1). 24-34.
- 김지옥. 2013.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방식 - 족류-상징주의(Ethno-symbolism)를 중심으로 -. 숭실사학. 31. 357-370.
- 문명식. 2001. 우크라이나의 민족문제와 러시아. 슬라브연구. 17(2). 1-3.
- 미하일로 흐루셰브스키, 허승철·한정숙 역. 2016. 우크라이나의 역사 1,2 한국연구재단 총서
- 박동천. 2008. 민족의 실체성에 관한 철학적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2(3). 38-40.
- 박정호. 2014.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집단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연구. 11(4). 65-66.
- 박태성. 2007. 우크라이나 동서 지역갈등과 주변국가의 역학구조. 슬라브연구. 23(2). 51-59, 61-62.
- 성동기. 2004. 우크라이나 코사크의 초기 형성과정과 정체성.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5. 290-297.
- 성동기, 허승철. 2018. 타라스 셰브첸코 : 생애와 문학 - 우크라이나의 민족 시인. 문예림

- 엄구호. 2011. 중앙아시아 국가의 탈소비에트 국민정체성. 중소연구. 35(1) 173-176, 167-168
- 우준모. 1997. 우크라이나 민족과 민족주의의 진로. 러시아 지역연구. 1. 77-79
- 우준모·김종현. 2013.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민족주의와 국가형성과정 비교고찰. 국제지역연구 17(1). 141~162.
- 이선우. 2015. 유라시아의 지정학, 민족 균열, 그리고 재민주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사례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31(3). 99-101.
- 조정남. 러시아 민족주의 연구. 1996. 고려대학교출판부. 129-143. 260-263.
- 찰스 틸리. 지봉근 역. 2018. 유럽 국민국가의 계보. 그린비.
- 허승철. 2009. 우크라이나의 이중 언어 상황과 언어의 정치학.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30. 317-318
- 한정숙. 2014. 역사서술로 우크라이나 민족을 만들어내다: 흐루셰프스키의 우크라이나 역사와 우크라이나 정체성. 러시아연구. 24(2). 388-394, 395-396.
- 홍태영. 2011.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국민국가의 전환과 극우 민족주의.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20(2). 237-242.
- A. 스미스. 이재석 역. 2018. 민족의 인종적 기원. 그린비. 10. 340-350.
- Bartov, Omer. 2007. Erased. Vanishing Traces of Jewish Galicia in Present-Day Ukrai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igore Pop-Eleches & Graeme B. Robertson. 2018. Identity and political preferences in Ukraine – before and after the Euromaidan. Post-Soviet Affairs. 34(2-3). 107-118.
- Kulyk, Volodymyr 2016. National Identity in Ukraine: Impact of Euromaidan and the War. Europe-Asia Studies. 68(4). 588-608
- Marples, David R. 2006. Stepan Bandera: The Resurrection of a Ukrainian National Hero. Europe-Asia Studies. 58(4). 555-66.
- Timm Beichelt. 2004. Autocracy and democracy in Belarus, Russia and Ukraine. Democratization. 11(5) 123-126
- Wylegala Anna. 2017. Managing the difficult past: Ukrainian collective memory and public debates on history. Nationalities Papers. 45(5) 780-797.
- Yurchuk Yuliya. 2017. Reclaiming the past, confronting the past: OUN-UPA

memory politics and nation building in Ukraine (1991-2016). War and memory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Palgrave Macmillan, 107-137.

- KBS. 2022.02.25. 푸틴 “탈나치화추진”…젤렌스키 “홀로 남겨져 싸우는중”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4292&ref=A> (검색일: 2022. 06. 15.).
- 한국일보. 2022.02.25. 우크라이나 전방위 급습한 푸틴, 우크라이나의 괴뢰국화'노리나'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511320004659> (검색일: 2022. 06. 05.).
- 연합뉴스. 2022.03.03. 러 외무장관 "3차대전은 파멸적인 핵전쟁 될 것"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2194652080> (검색일: 2022. 06. 01.).
- 뉴욕타임스 <https://www.nytimes.com/2022/01/24/opinion/russia-ukraine-putin-biden.html> (검색일 2022. 06. 25.).
- 라쭈코프센터(Razumkov Center, Центр Разумкова). 2021. Ukraine: 30 Years ON The European Path. <https://razumkov.org.ua> (검색일 2022. 06. 10.).
- 러시아 대통령실 <http://kremlin.ru/catalog/countries/UA/events/66181> — Статт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2021. 06. 12. «Об историческом единстве русских и украинцев»

- KBS
- 한국일보
-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
- 라쭈코프센터 (Razumkov Center, Центр Разумкова) <https://razumkov.org.ua>
- 러시아대통령실 <http://kremlin.ru>

● 투고일: 2022.07.27. ● 심사일: 2022.07.29. ● 게재확정일: 2022.08.28.

| Abstract |

Ukraine East, West, it's the origins of conflict and future. : to the concept of ethnie in A. Smith's

Song Taehee (SBS Biz)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East-West conflict in Ukraine through the concept of A. Smith's 'ethnie'. It is not analyzed by dividing a single Ukraine into regional units, but rather by seeing it as a process of forming a nation by two Ethnies. This is analyzed into two dimension, historical and cultural dimension and a political dimension. A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level, it was Western Ethnie who cast Ukrainian nationalism. On the political level, after independence, the East-West ethnie had replaced and shared power until 2014. Since 2014, however,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parts of the east have resulted in a power system centered on Western Ethnie. As a result, The Ukrainian nation centered on Western Ethnie has been forming, and thi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Ukraine internal time series survey. It can also be seen that civic identity is strengthened.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predict the direction of Ukraine's nation formation. Integration is a task for nation formation. Also, how to overcome the past history of Nazi cooperation is a big task for Ukrainian nation.

〈Key words〉 Ukraine, Ethnie, East-West, Nation, The year of 2014

기획 시리즈 II

국가와 미학 ①

미학과 정치

-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중심으로 -

김영진



미학과 정치

-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을 중심으로 -

김 영 진 (대구대학교)
(galinlove@hanmail.net)



국문요약

이 논문은 표상의 감각론과 비 표상의 감각론의 문제점을 각각 검토하고, 화이트헤드의 상징적 연관이라는 개념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미학과 정치의 문제로 연결된다. 표상주의 미학과 비-표상주의 미학이 각각 어떻게 정치와 관계를 맺는지를 검토하며, 그것들의 관계가 화이트헤드의 개념인 '향유'와 '관심'을 통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근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에서도 몸을 통한 미적인 자기 향유를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정치 및 윤리의 관심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음을 리요타르와 레비나스의 철학을 통해 살펴본다. 그들은 칸트의 숭고의 미학을 중심으로 미를 탐구하면서, 결국은 미를 정치 및 윤리의 핵심적인 개념인 타자에 대한 중요성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개체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미적 행위가 결국 정치 및 윤리의 가치로 전락하는 방식이 된다. 이것은 이미 마르크스가 근대에서 비판한 지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이 미학과 정치에 대한 이분법의 사유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아본 것이다.

주제어: 화이트헤드, 리요타르, 랑시에르, 레비나스, 들뢰즈, 마르크스, 미학, 정치

I. 들어가는 말

사람은 언어를 통해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각을 통해 연대하며, 특히 ‘침’을 통해 느낀다. 옛날에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 딱딱한 음식이 있으면 자신의 입에 넣어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손주 입에 다시 넣어 주었다. 지금은 잘 보기 힘든 장면이기는 하지만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타인과 입을 마주치면서 상호 간에 침을 교환한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애정을 느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느낌의 행위는 사랑의 상징이다. 그와 같은 침의 상호 작용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고립되고 단절될 것이다.

요즘 코로나 19의 경우 침을 통해 작은 바이러스들이 타인의 입이나 콧속에 들어가면서 질병을 감염시킨다. 이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는 더 이상 당신의 침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제품이다. 이제 침을 통한 연대라는 우리네 삶의 전통이 어느 순간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과 단체나 조직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백인은 아시아인을 미워하고,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

현대 윤리와 정치 및 경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을 중시하는 근대 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도 은근히 감각과 몸의 결합을 통해서 연대했다.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삶의 지점에 이르고 있는데, 도시의 삶은 진정으로 홀로 사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로빈스쿠루소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몸’과 ‘감각’이 우리의 삶에서 연대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음을 몸소 느끼게 된다. 과연 몸이나 감각의 공유 없이 삶이 가능할까?

근대 이후, 몸은 미학과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매개층이다. 초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한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소유와 자유를 주장했다. 그것에 대한 학문적인 정초는 미학과 정치학이다. 미학이 사적인 자율성을 강조한다면, 정치학은 공적인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적인 것은 과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인간의 활동을 고려하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미학은 육체에 관한 탐구이다. 사회 내에서 육체는 옷을 입고 활동하며, 그 옷은 계급, 인종, 성별로 구분된다. 결국 미적인 것이 육체에 관한 탐색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그것은 정치적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몸에 대한 이해는 미학뿐만 아니라 정치와 윤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근대의 철학자들에게 미는 다양한 영역과 매개되는 핵심적인 지층이다. 가령, 바움가르텐에게 미의 인식은 이성의 보편성과 감각의 특수성과 연관이 있다면, 칸트에게

자연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 미적 개념이 이용되고, 키에르케고르는 윤리와 종교의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 미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쇼펜하우어와 니체 역시 미적 경험을 이성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가치로 보고, 마르크스, 루카치, 아도르노 역시 미적 경험을 정치 및 경제적 활동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미학과 정치(윤리)에 대한 학문이 독립된 영역으로 연구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미학의 기초를 제시한 버크(Burke) 역시 미학과 정치의 상관성을 일찍부터 보여주었다(Burke 2003). 아도르노(Adorno)도 미학과 정치의 관련성을 논의하였고(Adorno 1970), 랑시에르(Rancière) 역시 미학이 자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Rancière 2009, 19-44). 이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미학과 정치의 관련성을 알아볼 것이다.

이 논문의 목표는 감각을 표상으로 보는 측면과 비-표상으로 보는 측면을 화이트헤드의 상징적 관련성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미학과 정치가 연관성이 있다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과정 철학(process philosophy)¹⁾, 특히 화이트헤드와 레비나스의 철학을 통해서 미학과 정치의 상관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다.

II. 미학과 정치의 관련성: 표상주의와 비표상주의

우선 우리는 감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각은 감각에서 가장 원초적이라고 보며, 관찰과 실험을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미학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구 철학사에서 보자면 미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움가르텐(Baumgarten)은 데카르트의 계보를 잇는 철학자이다. 바움가르텐은 미학을 ‘이성에 비해 열등한 감성의 논리학’이라고 했다. 그가 제시하는 Aesthetica는 지각(perception)이라는 의미의 희랍어 아이스테시스(aisthesis)에서 온 것이다. 즉, 지각에 의한 감성 작용인 아이스테나(aistheta)는 눈이나 귀로 보고 들으면서 지각하는 것이다(박성봉 2012, 15).

바움가르텐에게 감각은 최대한 명료한 ‘표상’의 틀 속에서 놓여야 한다. 이때 그는 감성적 표상이 주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미학이라고 본다. 바움가르텐에게 미학의 탄생은 이성의 보편성과 감각의 특수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미학에서 다루는 “지각과 경험의

1) 여기서 과정철학이라 함은, 실체 철학(substance philosophy)과 대척점에 있으며, 개체 중심의 실체철학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베르그손, 하이데거, 화이트헤드, 들뢰즈 등의 철학을 고려한 것이다. 그것은 동일성 보다 차이성 및 관계의 존재론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세계는 추상적인 보편적인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적절한 담론을 요구하고, 열등하긴 하지만 자체의 내적 논리를 드러 낸다는 인식으로부터 탄생했다”(Eagleton 1990, 4).

그렇다면 바움가르텐을 위시한 철학자들은 왜 표상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대표적인 이유는 이성 혹은 사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인식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과학의 객관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에 가장 근접한 감각에 대한 이해는 표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표상주의란 함은, 외부의 대상을 지각할 때, 우리는 외부의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감각에 의해 지각된 것만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재현된 것이 표상이다.

화이트헤드는 한 시대의 철학을 비판할 때는 그 시대의 대표자들이 옹호하는 주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지자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근본 전제”(Whitehead 1989, 80)의 자명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그 시대의 대표자들조차 자신들이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Whitehead 1989, 80). 우리는 그 전제 중의 하나가 ‘표상주의’라고 본다. 근대 과학, 예술, 정치 및 윤리에서 표상주의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검토해볼 것이다.

과학의 표상주의는 데카르트에서 시작된다. 데카르트는 좌표 기하학을 통해서 곡선상의 모든 점을 수를 통해 대체하면서 움직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데카르트의 명석 판명한 지각은 수학이 갖는 엄밀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뉴턴 역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오직 이성을 통해서 실험과 관찰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드러내며, 그 수단으로써 미분과 적분이라는 수학을 사용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뉴턴의 운동법칙은 한 마디로 “단순 정위(simple location)”라고 하며, 질료나 물질은 단순정위의 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시간의 추이가 순간적인 분할을 통해 모두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시공간의 영역과 관계될 필요가 없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Whitehead 1989, 80-83). 이것이 근대 물리학의 정통 신조가 되며, 흄과 그 이후의 철학의 절대적인 정초가 된다. 그 결과 단순정위는 인과성과 귀납법에 커다란 난점을 가져온다.²⁾

이와 같이 자연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방식은 흄의 인식론에 그대로 적용된다. 흄의

2) 이것은 베르그손(Bergson)이 “지성에 의한 실재의 공간화”라는 비판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화이트헤드 역시 베르그손의 비난에 동의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지성이 반드시 자연의 파악에 해악만을 끼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베르그손과 다른 입장에 있다. 화이트헤드는 지성을 통해서도 자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점에서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러셀은 베르그손을 비합리주의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다.

경험주의는 데카르트와 뉴턴의 과학주의에서 비롯된다. 카팔디(Capaldi)에 의하면, “훔의 철학적 프로그램이 뉴턴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Capaldi 1975, 49). 또한 “그것은 훔이 『인성론』을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Capaldi 1975, 49). 따라서 훔은 뉴턴처럼 자신의 『인성론』에서 이 저서의 목표 중의 하나는 “이성의 실험적 방법을 도덕적 주제에 도입하려는 시도”이며, 인간의 본성은 “신중하고 정확한 실험, 그리고 상이한 여건과 상황으로부터 유래하는 개별적 실험 결과들에 대한 관찰”(Hume 1978, xvii)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표상주의자인 훔(Hume)에게 명료한 지식의 기반은 ‘인상’과 ‘관념’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며, 그것은 칸트의 감각 및 미학의 근거로서 자리를 잡고, 당대의 정치(윤리)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아담 스미스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당대에 인간은 실험할 수 없고 오로지 관찰을 통해서만 인간의 감각과 관념의 본성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훔에게서, 뉴턴의 시공간에 대한 관념은 절대적인 기초가 된다. 훔은 자신의 인식론의 출발점이 되는 ‘단순 인상’을 위해서 뉴턴의 ‘단순 정위’(simple location)의 시공간을 받아들인다.

시간은 공존하지 않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변치 않는 대상은 공존하는 인상을 낳을 뿐이다. 그러므로 불변의 대상은 시간관념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낳지 않는다(Hume 1978, xvii).

뉴턴은 수리적으로 시간의 순간, 공간의 점과 물질의 입자를 자연을 설명하는 궁극적인 원리로 보았고, 훔은 이 원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여 자신의 인식론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즉, ‘불변의 대상’, ‘불변의 시간과 공간’을 받아들인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훔을 인용하면서 훔 자신이 뉴턴의 과학을 통해 감각에 대한 기초를 설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훔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나 감각이 나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채색된 점들의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눈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느낀다면, 내게 그것을 지적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광학의 저자들이 널리 승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제나 눈은 동일한 수의 물리적 점들을 보고 있으며, 산의 정상에 있는 사람의 감각에 나타나는 심상은 그가 지극히 비좁은 마당이나 거실에 윤택되어 있을 때의 심상과 똑같은 크기를 갖는다(Whitehead 1991, 237-238).

추정컨대, 여기서 흄이 말하는 광학의 저자는 뉴턴일 것이다. 흄이 “채색된 점들의 인상”과 “동일한 수의 물리적 점”과 같은 문장은 수리적 용어를 관찰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흄이 인식론의 기초를 위해 제시한 단순 인상과 단순 관념은 결국 뉴턴 물리학 및 당대의 ‘단순정위’라는 표상주의에서 착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흄의 감각 이론에서는 어떤 발생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게 된다.³⁾

흄의 감각 이론을 계승한 칸트는 객관적 감각과 주관적 감각으로 감각을 나눈다. 객관적 감각은 표상을 통해 주어지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뉴턴에 의해서 객관화된 선험적 형식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규정된다. 객관적 감각은 『순수이성비판』에서 다루어진다. 이에 반해 주관적 감각은 『판단력 비판』에서 설명된다. 주관적 감각은 일종의 감정이다. 칸트에게 이 감각은 ‘인식판단’이 아니라 ‘취미판단’이다. 칸트에게 취미판단은 미적 판단이다. 그것은 주관의 상상력을 통해 쾌와 불쾌의 감정과 연관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칸트는 감성론과 예술론을 구별짓는 방향으로 나아간다(Brigitte 2016, 109). 결국 과학에 다루는 감각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 미학에서 다루는 감정은 주관적으로 보는 이분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칸트는 바움가르텐과 흄에 의해 시작되는 감각의 표상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인간의 쾌와 불쾌의 기준인 미적 판단을 위해서 별도의 취미 판단을 다룬 것이다.

칸트의 인식판단과 취미판단의 분류법은 로크가 자연을 제 1 성질과 제 2 성질로 나누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로크에게 자연의 제 1 성질은 크기, 형태, 운동 등의 속성을 말하며, 제 2 성질은 감각에 수용되는 색채, 맛, 소리, 냄새 등의 속성이라고 보며, 이 2 성질은 대상에는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의 주관에만 있다. 이로 인해서 지각자가 느끼는 감정은 오로지 지각자에게만 주어지고, 자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화이트헤드가 볼 때 이와 같은 표상주의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상이다. ……이러한 역설은 다만 추상 관념을 구체적인 실재로 오인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Whitehead 1989, 89-90)이다. 화이트헤드는 자연에 소리도, 냄새도, 빛깔도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자연이란 “단순정위”된 물질이며, “지각하고 고민하여 추리하지만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정신이라는 관념을 낳았던 과학적 추상 관념이 크게 성공한 결과”(Whitehead 1989, 91)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와 같이 표상을 통한 감각에 대한 정의는 주체와 대상을 분리시키며, 대상은 오로지 주체와 외적 관계만을 갖는다. 대상이라

3) 성기현(2019)은 『들뢰즈의 미학-감각, 예술, 정치』에서 칸트와 들뢰즈에 관해서 논하면서 감각의 발생 문제가 미학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칸트와 들뢰즈가 ‘숭고’의 발생에 전념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결국 감각과 미의 개념을 흄에게서 계승한 칸트의 입장에서는 ‘숭고’를 제시하지 않고는 새로운 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는 타자는 오로지 정신적 표상으로만 다가올 뿐, 그 대상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가질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근원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표상주의에는 서구 철학의 전제가 되는 실체 철학이 깔려 있다. 실체 철학은 ‘존재하기 위해 그 자신 이외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실체는 항상 주어이며, 술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관계를 거부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 주관주의적 원리와 감각주의적 원리이다. 주관주의에서 보는 경험의 행위는, “여건은 보편적인 것, 다시 말해 추상적 보편 관념만으로 충분히 분석될 수 있다는 것”(Whitehead 1991, 157)이며, 감각주의 원리는, “경험의 행위에서의 최초의 활동은 수용의 주체적 형식 없이, 여건을 있는 그대로 주관적으로 마음에 품는다는 것”(Whitehead 1991, 157)이다. 다시 말해서 실체와 실체는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나는 타자를 추상적인 형식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마치 이것은 먼지가 없는 깨끗한 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국 방을 진공상태로 꾸며서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한편 표상주의는 예술에도 동일한 효과를 드러낸다. 결국 표상주의는 주체는 다른 주체 혹은 타자와 구체적인 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오로지 외적인 관계만을 가진다는 것이 확정된다. 가령, 주관적인 표상적 시각은 예술에서 원근법에 객관성을 부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파노프스키(Panofsky)에 따르면, “주관적 시각 인상이 대폭 합리화됨에 의해, 바로 시각 인상이야말로 확고한 기초를 지닌, 그리고 전적으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무한한’ 경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Panofsky 2014, 65). 다시 말해서 이제 시각 인상은 “주관적인 것의 객관화”(Panofsky 2014, 65)가 된 것이다. 마틴 제이(M. Jay)에 의하면, 이러한 시각성의 체제를 “데카르트적 원근법주의”(Cartesian Perspectivalism)이며, 이 시각 체제에서 자연과 대상들은 동질적이며 엄격한 기하학적 공간 속에서 정위한 것으로 본다(Jay 1994, 272-274). 이 주체의 시각은 신을 대신해서 초월적이며 보편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대상들을 일거에 거머쥘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따라서 예술은 표상주의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을 정초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표상주의는 정치(혹은 윤리)⁴⁾ 및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표상주의 윤리 및 경제의 대표적인 인물이 경제학의 기초를 놓은 아담 스미스(A. Smith)이다. 스미스는 흄의 인식론을 그대로 수용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윤리(정치)와 경제에 대한

4) 이 논문에서는 에토스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로 윤리와 정치를 보며, 결국 윤리와 정치는 타자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가 사적인 자율성을 염두에 둔다면, 윤리와 정치는 타자에 대한 관심과 염려하는 점에서 공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기초를 세운다. 그는 아름다움과 동정심은 단지 흠과 같이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물은 결코 연결될 수 없고 오직 상상력에 의해 옮겨진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물이 흔히 동시에 나타날 때, 인간의 상상력은 한 사물로부터 신속하게 다른 사물로 옮겨가는 습관이 있다. 첫 번째 사물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두 번째 사물이 뒤이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예를 들어 한 벌 옷의 경우, 만약 그 옷에 항상 붙어 있던 극히 사소한 장식물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심지어 사소한 허리 단추 하나만 없더라도 우리는 천박하다거나 어색하다고 느끼게 된다(Smith 2010, 365).

미의 모든 매력은, 관습이 각 종류의 사물에 대한 상상력에 새겨 놓은 인상인 관습과 아름다움이 일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Smith 2010, 375).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없고,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상상을 통해 우리가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느끼게 될지를 상상할 수는 있다(Smith 2010, 4).

따라서 흠의 표상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스미스는 미와 윤리에 대한 사유는 습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오로지 상상력을 통해서만 그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그는 인간이란 교환이라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오로지 피상적인 외적인 관계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인간성의 핵심은 “교환하는 성향”(Smith 2014, 17)이며, 이러한 성향은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기타 동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다른 동물들은 이러한 교환이나 기타의 어떤 종류의 계약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Smith 2014, 17)고 한다. 그래서 교환 성향은 이기심에 의해 촉진되어 분업을 활성화하고, 교환을 통해서 인간의 상이한 재능들은 서로 간에 협력하고 공유하면서 훨씬 유용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Smith 2014, 21). 이때 노동 역시 “교환가치의 진실한 척도”(Smith 2014, 37)로 본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에게 분업을 통해 교환의 활동만이 인간과 사회에 유익하며,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성향으로 간주했다.

근대의 인식론, 미술, 정치, 경제는 모두 무의식적으로 근대의 과학주의의 전제가 되는 표상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표상주의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한 철학자가 마르크스이다. 그는 미적인 것, 즉 몸이 어떻게 표상주의에 갇혀 있고, 그것에 벗어나는 것이 정치 및 경제의 해방의 열쇠임을 강조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신의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교환, 분업, 사유재산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업이 사회적 힘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분업은 결국 “개인적으로 보자면, 각자의 능력을 빼앗고 쇠퇴시킨다.”(Marx 2014, 148) 그는 사회로부터 도출되는 노동의 분업과 교환은 시장의 유용성과 인간의 부의 축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분업에 의해서 개인의 활동은 빈약해지고,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Marx 2014, 151). 마르크스는 교환과 분업과 같은 추상적인 방식은 인간을 “외면적인 유용성이라는 관점”(Marx 2014, 102)에만 보는 것이다. 그는 표상을 통한 자연과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성을 통해서 인간을 보는 산업과 자연과학으로 전환되어야 참된 인간 해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산업이란, 자연의, 따라서 자연과학의, 인간에 대한 현실적인 역사적 관계이다. 따라서 산업이 인간적인 본질적 힘의 누구에게도 알 수 있는 개시라고 이해된다면, 자연의 인간적 본질이나 인간의 자연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과학은 그 추상적이고 물질적인 경향을, 또는 오히려 관념적인 경향을 잃고, 그것이 현재 이마-비록 소외된 형태이기는 하지만-참다운 인간적인 생활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과학의 기초도 될 수 있을 것이다(Marx 2014, 103).

마르크스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지각이 모든 과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Marx 2014, 104)고 보았다. 그는 감각을 통해 과학, 정치 및 경제의 토대를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감각이 형식적인 표상주의에 갇혀 있다고 보며, 이것이 정치와 경제에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고 본다.

우선 그는 자본주의 정치 형태를 완성한 헤겔을 정치적 형식주의라고 비판한다. 이글턴(Eagleton)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헤겔의 국가 비판』에서 헤겔은 국가 내에서 개체들을 추상적인 평등을 강조하며, 개체들의 구체적 차이들과 불평등에 무관심했다고 비판하면서, 참된 민주주의는 구체적 특수성이 공적인 정치적 역할과 일치해야 함을 강조한다(Eagleton 1995, 233). 즉, 마르크스에게는 풍부한 모든 감각의 실현만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상에게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통해서 척도와 중용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Eagleton 1995, 234). 바로 감각의 표상주의가 어떻게 정치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경제학에서 표상주의는 스미스에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제대로

구별을 못한 것이라고 본다. 즉, 스미스는 상품의 사용가치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유용 노동과 교환 및 상품 가치를 형성하는 추상적인 노동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며,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투하 노동과 그 상품이 임금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지배 노동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구분하면서 교환가치란, 바로 내용이 없는 표상 속에서 교환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사회의 표상 방도들은 교환가치의 방도들이다”(Eagleton 1995, 240). 마르크스는 표상주의가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경제를 몰고 가면서 사용가치라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유령의 상품이 되게 했다고 본다.

한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관계에서는 모든 인간은 감각을 박탈당한 채 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즉,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감각들을 박탈한다면, 마찬가지로 자본가는 자신의 감각들도 몰수한다”(Eagleton 1995, 221).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육체에서 박탈된 힘, 즉 감각적 충만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전제를 폐지해야 한다. 결국, 사유재산의 폐지만이 감각을 불구로 만든 자본주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사유재산의 폐지는 인간의 모든 감각과 속성의 완벽한 해방이다. 다만 이런 해방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이들의 감각이나 성질이 주체적으로나 객체적으로 인간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때 눈은 인간적인 눈이 되고, 그 대상은 사회적 대상, 즉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태어나는 인간적인 대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욕구나 향유도 이기적인 성질을 잃고, 자연은 단순한 유용성을 잃게 될 것이다(Marx 2014, 100).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직관하고, 깨닫고, 의욕하고, 활동하고, 사랑하고 등의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글턴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이 공리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없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마르크스는 “미적”이며, 마르크스 자신은 오로지 자본주의적 사회 관계가 전복됨이 없이는 추상적으로만 이용되는 인간의 육체와 감각이 특수한 사용가치로 결코 복구될 수 없다고 보았다(Eagleton 1995, 223) 그래서 육체 및 감각에 대한 관심인 미학은 언제나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사상이다. 왜냐하면 “조잡한 욕구와 해체된 이성 사이의 갈라진 틈이 아물려면, 오직 인간의 합리성의 뿌리를 생산적 육체의 필요와 능력에 숨어 있는 그 근원에까지 추적하는 혁명적 인간학에 의지”(Marx 2014, 230)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치와 미학은 추상적인 표상주의에 함몰되어 있기에 참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감각과 육체의 해방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는 “사유재산을 없앴에 의해서 인간은 스스로의 전면적인 본질을 전면적인 방법으로, 따라서 하나의 총체적인 인간으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Marx 2014, 99). 이것은 인류 역사의 커다란 전환점의 역할을 한 이론이며, 실천의 모험으로 전개된 이야기이다.

한편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인간의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형식주의를 전복시킬 것을 강조하지만, 문제는 “교환가치를 부정함으로써 형식에 갇혀 있는 내용이 숭배되는 경제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내용에 의한 형식의 정복”(Eagleton 1995, 243)을 감행해야 한다. 마르크스가 진정으로 꿈꾼 세상과 일치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환가치의 형식을 완전히 배제한 공산주의의 실패를 역사적으로 목격했다.⁵⁾ 이글턴에 의하면, “칸트의 미가 마르크스의 정치적 목적에 비해 너무 정태적, 조화적, 유희적이라면, 마르크스의 숭고는 너무 무형식적이다”(Eagleton 1995, 244). 무엇보다도 하버마스(Habermas)의 주장에 따르면, 마르크스 역시 상호주관적 소통의 과정을 간과하는 주체의 철학에 묶여 있다(Habermas 1981, 3장). 그 이유는 마르크스도 자본가와 노동자를 절대적으로 분리된 개체로 보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가진 풍부하고 다양한 논의를 충분히 전개할 수는 없다. 다만 마르크스가 감각의 표상주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미학과 정치가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보여준 철학자임을 기억하자.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 내에서도 어떤 비판의 지점이 있음을 일부 학자들의 비판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제한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런 비판은, 그 이후 표상주의를 극복하는 비-표상주의 미학과 정치 이론의 전개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바타이유(Bataille)는 표상의 절대적 기준인 시각 경험은 동일성과 보편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며, “주관주의가 세계를 자신의 물화적 폭력으로 뒤덮어 버리고, 세계를 기술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상들의 총체성”(Habermas 1990, 215)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에게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시각은 일종의 폭력의 장치이다.

5) 『천개의 고원』에서 교환과 분업 및 소유를 절대적으로 연결하는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입장을 비판한다. 그는 영토에 대한 소유는 동물들이 교환과 분업 이전부터 본능을 통해 갖춘 것으로 본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영토는 두 개체 간에 거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며, 그 거리를 세우는 행위는 모든 생물체들이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유(사유재산), 교환 및 분업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본 스미스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옹호나 자본주의의 부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 Guattari) 2003, 589-667).

그래서 그는 동질성에 포섭되지 않는 ‘이질성(heterogeneous)’이라는 개념을 전개한다. 그것은 과학, 경제, 철학에서 동일성의 기준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껴가는 것, 즉 포섭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바타이유의 이런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질성이란, “주체가 자기 자신이 세계와 친밀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범주들이 붕괴되는 순간에, 즉 매혹되면서 충격을 받는 그 폭발적 순간에만”(Habermas 1990, 212)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동질성에 포착되지 않는 “타자”에 관한 것이며, “세계에 대한 어떤 동질적 표상의 철학적 체계도 반대”(Bataille 1985, 97)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표상주의 미학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내의 정치 및 경제체계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다. 그는 자본주의에 의한 교환의 방식에 따른 동질성이 “인간과 우주를 오직 합리적 소비, 생산의 보존, 조직에 맞도록 조정”(Bataille 1985, 97)할 뿐이라고 한다. 그는 이중적인 것과 동질적인 것과 변증법적으로 섞이면서 사회가 발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타이유에게 동질적인 것은 “엄격하게 동일화되고 정의된 대상들의 추상적이고 중성적인 측면”(Bataille 1985, 143)이라면, 이질적인 것은 “흥분이나 가치, 힘과 충격”(Bataille 1985, 143)으로 본다. 이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 신체에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다. 가령, 하혈한 피, 소변, 정액, 배설물 등이나 성스럽고, 신성한 것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서 그는 동질적인 어떤 규범과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지점을 이질적인 것에서 찾았다. 바타이유는 교환의 가치에 포섭될 수 없는 우리의 몸과 감각을 통해 미학과 정치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명의 비표상주의자는 리오타르(Lyotard)이다. 그는 ‘담론적인 것(the discursive)’과 ‘형상적인 것(the Figural)’을 구별한다. 그에게 담론적인 것은 바로 표상적이며, 형상적인 것은 비표상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대해 제이(Ja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담론적인 것’은 “지각에 비해 텍스트성을, 선반성적 개시에 비해 개념적 표상을, 타자에 비해 합리적 정합성을 우위에 두며, 논리, 개념, 형식, 상징적인 것의 영역이며 소통과 의미화를 위해 기표의 물질성이 상실된다.” 다시 말해서, “담론적인 것은 투명성과 명쾌함에 대한 믿음을 수반한다.” 이에 반해 ‘형상적인 것’은 “담론적인 영역에 불투명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형상적인 것은 언어적 의미의 자기 충족성에 저항하며, 어떤 질서가 완전한 정합성으로 결정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M. Jay 1994, 564).

리오타르에 의하면, 형상적인 것은 지각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으며 접근할 수 없고, 개념화되지 않는 영역이다. 예술은 그런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며, 예술은 형상적인 것이다 (Lyotard 1984, 69-70). 가령, 피카소의 해체된 인물들이나 잭슨 폴락의 페인팅 작품

등이다. 그러므로 형상적인 것은 상호 간에 소통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바타이유와 리오타르로 대표되는 비-표상주의는 합리적인 이성과 시각을 거부하고 실재를 의식 이전의 세계 경험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조경진에 따르면, 비-표상주의의 실천들은 근본적으로 표상주의의 체계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실재를 상징하며, 의식 이전의 세계 경험을 들어내며, 시각에 의해서 분절되기 이전의 신체 활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념과 시각에서 벗어나는 보다 원초적인 경험을 통해 실재를 포착하는 것이다(조경진 2012, 770). 이와 같은 비-표상주의적 실천이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다양한 비-표상적 사유와 실천이 표상주의에 맞서서 어떤 잠재적이고 구체적인 미적인 몸의 힘을 보여주하고자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여전히 표상에 대한 비판과 비-표상의 강조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한 리오타르와 바타이유처럼, 표상주의를 비판하고 비-표상주의에 입장만이 실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인가? 이것은 결국 근대의 과학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즉 추상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구체로만 실재를 탐색하려는 베르그손 방식의 과정 철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화이트헤드와 들뢰즈는 구체성과 추상성은 언제나 함께 맞물려 있음을 강조한다.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상징적 관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은 표상과 비표상의 맞물림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 장에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통해서 표상주의와 비-표상주의의 어떻게 상호 연관을 맺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며, 무엇보다 미학과 정치가 존재론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개념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Ⅲ. 현실적 계기와 상징적 연관

3-1. 현실적 계기: 향유와 관심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상징적 연관’(symbolic reference)의 개념을 통해서 표상주의와 비-표상주의가 어떤 측면만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표상주의는 과학에 근거한 지각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표상주의는 그런 과학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양 측면이 지각의 어떤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양 측면은 상징적 관련을 통해서 함께 작용함을 밝혀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표상과 비-표상으로 이분화된 사유 방식을 비판적으로 극복해

볼 것이다. 우선 화이트헤드의 지각 이론을 살펴보기 전에, 화이트헤드의 존재론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그는 존재론을 통해서 제시되는 개념을 지각작용, 인과성, 자연과학, 예술 등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한다. 그래서 그의 존재론은 미학과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화이트헤드에게 가장 궁극적인 존재는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이며, 그것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호칭이다.⁶⁾ 모든 현실적 계기는 ‘자기 원인(causa sui)’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각 계기가 자기 실현의 존재이다. 신이든, 미세한 먼지이든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갖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 계기는 자유와 평등의 존재론의 근간이 된다. 각자 자기 실현이라는 자유를 가지며,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는 평등한 존재이다.

다른 한편 현실적 계기는 자기실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타자이다. 자기 실현하는 주체는 타자에게 자신이 실현한 것을 반드시 공적으로 내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 계기는 대상의 기능과 주체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화이트헤드는 주체의 기능을 ‘자기 향유(self enjoyment)’라고 하며, 대상의 기능을 ‘관심(concern)’이라고 하며, 그것은 자기실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야 하며, 대상을 통해 자기 실현된 주체는 타자에게 자신을 관심의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자신을 내어주는 대상의 기능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현실적 계기는 대상-주체-대상이라는 삼중의 포함 기능을 갖는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주체(subject)이자 자기 초월체(superject)’의 기능에서 모든 현실적 계기를 본다.

따라서 모든 현실적 계기를 주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것은 “절대적인 자기 향유를 함의하고 있는 것”(Whitehead 1992, 174)이며, 자기 향유의 과정은 생명의 사유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대적이고 개체적인 것으로 본다(Whitehead 1992, 174). 그런 사유화의 과정이 곧 느낌 혹은 파악(prehension)이며, 그런 활동을 총칭해서 현실적 계기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현실적 계기는 “다른 어떠한 계기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도”(Whitehead 1992, 174)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Whitehead 1992, 174).

다음으로 자기 향유의 과정은 언제나 ‘관심’의 과정을 포함한다. “각각의 현실적 계기는 퀘이커교에서 말하는 관심의 활동이다. 그것은 초월과 내재의 결합이다. 계기는 느낌과 지향을 통해, 본질적으로 자신 밖에 있는 사물들과 관계한다”(Whitehead 1992, 191). 관심이란 “영혼이 깊어지는 짐을 함의한다. 무언가가 나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때, 나는 그것을 모르는 척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심이란 타자에 의해서 촉발되는 본의 아닌 경험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든 나를 바깥으로 이끈다. 그것은

6) 화이트헤드는 신에서 가장 하찮은 먼지 역시 현실적 존재 혹은 현실적 계기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칭하는 대상이든, 상상의 대상이든 모두 현실적 계기라는 특성으로 묶을 수 있다. 이 점에서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사변적 실재론’이라고 한다.

나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이끈다”(Shaviro 2021, 40). 즉 따라서 현실적 계기는 자기 향유를 실현하면서 거의 동시에 외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Whitehead 1992, 191).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타자가 외부의 타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타자의 의미를 함축한다.

이것은 과정 철학의 범주에 속하는 들뢰즈(Deleuze)의 타자에 대한 고려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르트르(Sartre)에게 타자는 언제나 외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내가 대상이 되면 타인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면 타자는 대상이 된다. 타자와 나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대립적인 존재이다. “지옥, 그것은 타자이다”라고 사르트르는 말한다. 그래서 타자는 언제나 갈등의 존재이고,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을 갖는다. 마르크스가 자본가와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기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들뢰즈에게 그런 타자는 거짓된 차이의 운동이라고 본다(김영진 2022, 155-157). 들뢰즈에게 타자는 “타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 어떤 타자, 어떤 균열된 나”(Deleuze 2004, 551)이다. 그러므로 들뢰즈에게 차이는 화이트헤드와 마찬가지로 내 안의 차이가 우선한다. 외부의 타자를 통해서 대립과 갈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타자를 통해서 다른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화이트헤드에게 이와 같은 사고의 방식은 시간에 대한 뉴턴의 ‘단순정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뉴턴 및 근대 수학자의 작업은 수에 운동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시간적 두께를 무한히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추상화시켰다. 1초는 무한대로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이 뉴턴의 ‘단순정위’의 방식이라면, 새로운 추상의 방식은 시간의 무한 분할이 어느 시점에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의 방향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두께를 설정해야 한다. 화이트헤드가 볼 때, 뉴턴 및 흄이 제시하는 ‘단순정위’의 시간은 철저하게 시간의 두께(thickness) 혹은 폭을 무시한 이성의 추상물이라면, 그것은 일정한 조건 속의 시간이며, 구체적인 시간은 반드시 시간적 두께를 전제해야 한다. 화이트헤드가 ‘외양적 현재(specious present)’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두께를 전제하는 현실적 계기를 고려하는 것이다.⁷⁾ “현실태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Whitehead 1992, 88). 즉 두께가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지점을 가지는 것이다. 자기 향유하는 과정은 “시간적 두께(temporal thickness)”(Whitehead 1991, 321)를 통해서 타자(이때의 타자는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와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동시적인 계기인 타자와는

7)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재』 및 자신의 과학 저서들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룬다. 그는 측정에서 무한소라는 것은 없고, 근사치라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수학에서 무한소에 관한 표현은 모두 ‘유한한 것들의 클래스’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이엘슈트라스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입장이다(Whitehead 1991, 567 참조).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과거인 타자와 연결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나’를 자아라고 볼 때, 1초 전의 나와 1초 후의 나는 차이가 있음에 의해 자기 향유가 가능하다. 화이트헤드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할 때, 데카르트는 동일한 ‘나’를 전제하지만, 화이트헤드와 들뢰즈에게는 앞의 ‘나’와 뒤의 ‘나’는 다른 ‘나’로 지칭된다. 왜냐하면 과정철학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준거점을 통해서 볼 때,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동일한 ‘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에서 ‘나’는 사고하는 활동의 절대적 기준으로써 ‘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활동에 의해서 과거의 ‘나’가 새로운 ‘나’로 형성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실체철학과 과정철학이 다른 점이다. 데카르트로 인해서 새롭게 사유하는 ‘나’라는 자기 향유의 과정을 경험했지만,⁸⁾ 데카르트는 자신이 한 위대한 작업을 통해서 ‘나’를 향유하고도, 그것이 새로운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동일한 실체의 철학 속에 ‘나’를 정초시켜 놓았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로 표현한 통일체로서의 나는 이 혼란스런 질료들을 느낌들의 일관된 패턴 속에 정리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나이다”(Whitehead 1992, 190).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언제든지 현재와 상호 관계 속에서 향유되는 것이다. 과거의 관심과 미래의 관심은 결국 현재라는 향유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향유는 “단지 실현되어 있지 않은 기능태의 양태로 존재하고 있을 뿐인 우주의 요소들을 끌어들이는 과정”(Whitehead 1992, 190)이다. 그러나 이런 향유의 과정은 “적적으로 선을 위한 건이건 그렇지 않은 건이건간에, 약탈 행위”(Whitehead 1991, 217)이다. 즉,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환경에서 파괴행위를 해야 한다. 타자를 파괴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자기 향유하는 “생명에 있어 도덕이 예민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약탈자는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Whitehead 1991, 217) 따라서 자기 향유하는 미적인 활동이 정치적, 윤리적 행위의 관심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리하자면, 향유가 직접적으로 내 앞에 있다면, 관심은 과거와 미래에 위치한다. 그래서 현실적 계기는 동시적인 다른 현실적 계기에는 관심도 없고 참조도 하지 않으나, 그 현실적 계기는 자신의 선행하는 계기와 자신을 이어받을 계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⁹⁾ 화이트헤드는 이것을 모든 존재는 ‘벡터적 성격’이 있다고 한다(Whitehead 1992,

8) 화이트헤드가 ‘나’를 한정하기 위해서 논의할 때, 그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 중심의 사유를 전개한다. 그리고 명사를 한정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한정하는 부사의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사건은 부사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존재론을 ‘대상 존재론’이 아니라 ‘사건 존재론’이라고 한다.

191). 그래서 흄이 말하는 “단순한 감각 여건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정동적 색조, 즉 퀘이커교가 말하는 ‘관심’의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Whitehead 1967, 180). 따라서 현실적 계기는 자기 향유의 기원이 되는 사사성과 타자에 대한 관심의 근거가 되는 공공성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모든 존재는 그런 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본다는 점에서(Whitehead 1991, 509), 우리는 향유와 관심이라는 양쪽의 측면 중에 어느 쪽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적인 자기 향유는 정치 경제학의 행위와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교환의 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를 통해서 자본가의 폭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적인 자기 향유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교환을 말할 때는 그것은 자기 향유 과정을 배제한 타자에게 건네는 과정이라는 공공성에만 초점을 둔 것이다. 즉,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앞면의 동전과 타자만 생각하는 뒷면의 동전을 언제나 동시에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경제학의 방식이다. 삶은 뫼비우스띠와 같이 앞과 뒷면이 상호 얹혀 있는 것이다. 향유의 과정은 결국 관심으로 향하고, 관심의 과정은 향유로 이르는 모험의 도정인 것이다. 즉, 나만 생각할 때는 자기 실현의 과정이며, 타자를 고려할 때는 타자 실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타자는 외부의 타자가 아니라 내 안의 타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정치 및 경제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타자를 소유하는 혹은 파악하는 과정은 결국 윤리, 정치 및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미학이 정치 경제학에 종속되는 영역과 정치 경제학이 미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아담 스미스는 뉴턴과 흄의 영향을 받아서 미학에서 핵심인 자기 실현 과정을 정치 경제학에 종속시킨다면,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에서 벗어나는 미의 자기 실현의 영역을 말하고자 한다.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인식과 행위는 시인 말라르메의 말처럼, “모든 것은 미학과 정치경제학”으로 요약된다. 자연에서 양자, 에너지, 엔트로피, 도태 등에 대한 설명은 자연의 정치 경제학을 말하며, 인간에게 자본과 노동 역시 정치 경제학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화이트헤드 역시 “주체의 경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저 무가 있을 뿐이다”(Whitehead 1991, 318)라고 했다. 이것이 미적인 자기 실현 혹은 자기 향유의 경험이다. 하지만 타자의 잠재적인 힘이 없이는 나의 향유는 애초에 불가능하며, 나의 향유는 만족에 이르게 되면 타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 정치, 윤리, 경제의 영역과 상호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9) 화이트헤드는 현재와 미래의 관련성을 ‘주체적 강도’의 범주를 통해 설명을 한다. 그는 우리의 실제적 삶은 현재의 나의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도덕도, 정치도, 경제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예측도 불가능할 것이다.

3-2. 상징적 연관: 인과적 효과성과 현시적 직접성

화이트헤드가 수학, 논리학, 물리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전개했던 시점에는, 언어 및 분석철학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과도 맞물려 있다. 분석 철학 및 구조주의 철학에서 핵심은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유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런 철학적 사조와 함께 활동한 화이트헤드는 언어가 “사고의 본질이 아니다”(Whitehead 1992, 51)라고 강조한다. 그에게 언어는 복합적인 ‘상징적 연관’(symbolic reference)이다. ‘태양’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자. 이때 ‘태양’이라는 글자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검고 하얀 색의 대비이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라는 글자로부터 ‘태양’의 개념을 찾을 수 없다. 가령, 우리가 신호등의 색을 보고 건너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다. 그 신호등 색이 우리를 멈추거나 정지하게 하는 것은 그 색 때문이 아니라 그 신호등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화이트헤드는 신호등의 정보와 의미를 아는 것을 ‘인과적 효과성(causal efficacy)’의 지각이라고 하며, 그냥 빨간 신호등을 시각을 통해서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현시적 직접성(presentational immediacy)’의 지각이라고 한다. 우리가 매일 신호등에서 오고 가는 것은 바로 이 두 지각이 상호 작용해서 가능하고, 그것을 결합한 지각 작용을 ‘상징적 연관’이라고 한다.

인간의 정신은 그 경험의 일부 구성 요소가 다른 어떤 구성 요소가 다른 경험의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의식, 믿음, 정서, 용도 등을 이끌어 낼 때 상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의 구성요소들은 상징이고, 후자는 그 상징의 의미가 된다. 유기적 기능에 의해 상징으로부터 의미로의 전이가 있을 때 바로 이 유기적 기능을 상징적 연관이라 부를 수 있다(Whitehead 1927, 8).

일반적으로 말해서 표상 이론은 화이트헤드의 용어로 보자면, ‘현시적 직접성’에 관한 것이라면, 비-표상이론은 인과적 효과성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하고 언어를 통해 말하는 활동은 이미 표상과 비-표상, 즉 인과적 효과성과 현시적 직접성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인과적 효과성과 현시적 직접성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자. 현시적 직접성이란, “명석 판명한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지각 양태”(Whitehead 1991, 147)이다. 그것은 흠이 말하는 ‘인상’에 가깝다. 물론 화이트헤드에게 현시적 직접성은 ‘시간의 두께’가 있기는 하지만, 보기에는 시각, 후각, 촉각을 통한 우리의 경험이며, “직접적 관찰”(Whitehead 1991, 147)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채색된 어떤 형태를 목격할 때에, 그것은 실재하는 인간일 수도 있고, 유령 또는 거울에 비추인 영상일 수도 있으며, 환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외적 공간의 어떤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망원경을 통해서 목격된 반점과 관찰자로부터의 직접적인 투사에 의해 한정된 보다 작은 반점과의 상관관계는 다시 과학적 설명의 문제가 된다(Whitehead 1991, 562).

빨간 차를 보는 경험이 현시적 직접성이다. 이것은 빨간 색의 차가 경험한 다양한 사건의 발생을 보여주지 않는다. 현시적 직접성은 “단지 감각 여건에 의해, 어떤 동시적 공간 영역을, 그것의 공간적 전망과 관련하여 모호성으로부터 구출해내는 데 그치는 지각”(Whitehead 1991, 243)이다. 이것은 감각 여건이 지각하는 계기와 동시적인 대상을 전망에 의해 기하학적으로 공간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지각하는 계기와 지각되는 것의 동시성을 전제로 하기에, 지각하는 계기와 지각되는 것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없는 것이다. 흄과 칸트가 제시하는 감각은 바로 근대의 과학주의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과학적 관찰의 형태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색시력의 사적인 심리적 공간에 들어 있는 색채 감각의 좁은 띠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적인 사적 경험을 집합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감각 인상은 미지의 원인으로부터 마음속에 생겨난다. 분광기라는 것은 신화이며, 방사 에너지라는 것도 신화이고, 관찰자의 눈도 신화이며, 관찰자가 그의 경험을 종이 위에 기록해 놓은 것도 신화이다. 몇 개월 후에 자기의 노트를 학회에서 발표하고자 할 때에, 그는 흰 배경 위의 검은 기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 경험을 새로운 심리적 장에서 갖게 된다. 또한 재차 이 경험은 미지의 원인으로부터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 그로 하여금 이전의 경험을 그 이후의 경험과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것으로는 오직 관습이 있을 뿐이다(Whitehead 1991, 564).

이와 같이 현시적 직접성은 흄이 말하는 단순 인상과 단순 관념과 같은 것으로서 전혀 의미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냥 볼 뿐이다. 따라서 현시적 직접성을 통해서 주체적 형식을 구성하는 것은 “정서적, 감상적, 목적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Whitehead 1991, 565)고 볼 수 있다.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이것으로는 어떤 꽤나 불쾌를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시적 직접성으로만 지각을 볼 때, 그것은 “주체적 경험을 결여한 공허한 현실태의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실체에 내재하는 성질이라는 개

넘”(Whitehead 1991, 317)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화이트헤드가 볼 때, 현시적 직접성은 공통의 세계 속에 있다. 현시적 직접성 역시 공통의 과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이 직접적으로는 과거와 무관한 것이지만, 그것은 공통의 과거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가령 내가 경주에 가서 보는 신라 시대의 유물은 현재의 내 과거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한반도라는 공통의 대지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동시적 세계는 그 자신의 고유한 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즉 동시적 세계를 한정하고 동시적인 지각자를 한정하는 과거로부터 도출된 여러 활동에 의해서 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성은 원초적으로는 인간 신체의 과거 속에 있으며, 더 멀리서는 신체가 기능하고 있는 과거의 환경 속에 있다. 이 환경은 지각된 동시적 영역을 지배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계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적인 것에 대한 이와 같은 지각론은 우리가 가졌던 종래의 신념, 즉 우리는 동시적 세계의 여러 영역을 규정하는 계기들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질적 연관을 가지고서 또 지각자의 동물적 몸의 기능에 기인하는 질적 왜곡의 편견을 가지고서, 동시적 세계를 지각하고 있다는 신념을 허용한다(Whitehead 1967, 219).

흙의 말처럼, 동시적인 대상은 인과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 신체 속에 플라스틱이 있고, 내 눈앞의 생선 속에서 플라스틱이 있다면, 그것은 공통의 과거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일정 기간 같은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생선과 내 몸에 함께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은, 좀더 길게 볼 때는 플라스틱이 포함된 동시적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적 효과성이란, “내장의 느낌(visceral feeling)을 통해 얻어지는 세계에 관한 정보”(Whitehead 1991, 243)이다. 그것은 “시각적 느낌”(Whitehead 1991, 243)이 전의 지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서적 경험이며, “주체적 정감으로서 순응적으로 사유화되는 맹목적 정서”이며, 이 “근원적 요소는 공감, 즉 타자에 있어서의 느낌을 느끼는 것이요, 타자와 더불어 순응적으로 느끼는 것”(Whitehead 1991, 310)이다. 이 원초적 경험은 “벡터적 느낌, 즉 결정되어야 있는 저편으로부터 느끼며, 결정되어야 할 저편을 지시하는 느낌”(Whitehead 1991, 311)이다. 그것은 영향을 받는 벡터로서 모호한 지각이다. 인과적 효과성은 해파리와 같은 존재도 갖는 지각이다. 그래서 인과적 효과성은 하등 유기체의 지각이다.

정적 속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인과적 효과성이 우리를 짓누른다. 곤충들이 낮게 울어대고 있는 8월의 삼림지의 막막함 속에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여러 가지 느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압도한다. 비몽사몽간의 희미한 의식 속에서는 감각의 현시가 사라져 버리고, 주위의 막연한 사물들로부터 오는 막연한 영향에 대한 느낌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된다(Whitehead 1991, 331).

‘모호한’ 감각은 동물, 식물 등 모든 자연의 존재를 둘러싸는 것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모호한 성질의 벡터적 한정을 갖는 느낌의 유입”(Whitehead 1991, 333)이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뉴턴 물리학이 기본적 물리량을 스칼라(scalar)로 보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벡터가 모든 기본 물리량의 진리라는 것이다(Whitehead 1991, 333). 따라서 상징적 연관이라 함은 현시적 직접성에 의해 파악된 순수 감각적 표상과 그것을 조건 짓고 있는 과거로부터의 인과적 영향을 통일하여 느끼는 것이다. 가령 빨간 차를 지각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만든 사람, 그것은 판 사람, 그것은 산 사람이라는 인과적 효과성이 그 지각하는 계기에게 언제나 ‘실재적 가능태’로써 주어진다. 가령, 전기 자동차를 본다면,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급되는지를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인과적 효과성은 리오타르와 바타이유가 언급하는 비 표상의 내용이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표상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화이트헤드는 그들과 다른 지점에서 비-표상 내용에 접근한다. 즉, 화이트헤드는 신체적 경험이 외부의 사물과 시공적으로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이론에서 “단순 정위가 사물이 시공에 포함되는 기본 방식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폐기”(Whitehead 1989, 144)한다. 그는 “모든 장소는 다른 모든 장소에 있어서의 자신의 양상을 포함”(Whitehead 1989, 144)하고 있다. 그는 셸리의 《몽블랑》(Mont Blanc)이라는 시를 통해서 시인들은 구체적인 미적 파악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의 과학의 ‘단순정위’에 기반한 추상적인 시공간 이론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물이 사는 영겁의 우주
정신을 뚫고 물결치며 흐른다.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번득이며
때로는 그림자를 반사하며 때로는 변쩍 빛난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의 샘
흐르는 물을 은밀히 나르는

그 물결 가냘프나 소리내어 들려온다.
 마치 쓸쓸한 산, 울창한 숲 속에서
 폭폭수가 흘러지고
 나무와 바람이 서로 다투며
 큰 시냇물이 바위에 부딪쳐
 소리내어 부서지듯 (Whitehead 1989, 136)

영국의 19세기 시문학이 당대의 과학주의에 반대해서 인간의 미적 직관을 잘 보여주며, 그 대표적인 시가 셸리의 《몽블랑》(Mont Blanc)이다. 그것은 자연의 요소들이 자기 향유하는 미적 파악의 행위를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 미적 파악이란 “전체가 드리우는 사랑의 날개가 그 다양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품는 데서 생긴다는 것”(Whitehead 1989, 139)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공통 세계에 속한다. 결코 인간이 사유나 의식을 통해서 자연과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현실적 계기는 “초월과 내재의 결합”(Whitehead 1992, 191)이다. 다시 말해서 “경험된 사물과 인식하는 주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공통의 세계에 들어간다”(Whitehead 1989, 141)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사유 중심의 주관주의를 철저히 거부한다. 모든 존재는 자기 향유하는 주체이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현실적 요소들은 그것들 자체로서 공통 세계의 요소이며, 이 공통 세계는 우리의 인식 작용을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여러 사물들로 이루어진 복합체”(Whitehead 1989, 141)이다. 셸리가 몽블랑을 싸고 있는 빙하와 숲, 폭포와 실제로 마주하면서, 자연을 파악하듯이, “많은 현실적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현실적 존재자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현실적 속에서 반복되며 따라서 전자에 한정된 구성 요소가 후자의 분석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Whitehead 1991, 273)이다. 이것이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인 표상 속에서는 언제든지 인과적 효과성의 비-표상이 들어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의미하는 상징적 관련이다. 그러므로 셸리와 워즈워스는, 다수의 현실적 계기들을 스스로 자기 실현하는 향유과정, 즉 “자연은 그 미적 가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Whitehead 1989, 141)는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에게 자연의 구성 원리인 현실적 계기들은 지각에서도 현시적 직접성(표상)과 인과적 효과성(비-표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에게 자연 속의 사물은 “상호 관통”(interpenetration)과 “축적”(cumulation)이 핵심적인 원리이다 (Shaviro 2021, 117). 샤비로에 따르면, 리오타르나 바타이유와 마찬가지로 화이트헤드에게 “사물들은 자신을 서로로부터 절대적으로 차이화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서로에게 연관한다”(Shaviro 2021, 117).

우리는 여기에서 표상주의와 비-표상주의의 난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표상주의가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비표상주의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축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 것이다. 축적이라는 것은 자기 향유 과정에서 타자를 사유화하는 것으로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교환 중심의 표상주의 경제를 비판하는 마르크스가 축적에 해당하는 사유재산의 폐지를 주장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정리하자면,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지각은 “상징적 연관”(Whitehead 1991, 319)의 혼합된 양태의 지각이다. 상징적 연관은 현시적 직접성과 인과적 효과성의 혼합이다. 앞에서 살펴본 근대 및 현대(리오타르와 바타이유) 철학자들은 이 중에서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화이트헤드의 용어로 볼 때, 표상적 활동을 강조하는 근대 철학 및 예술은 현시적 직접성의 측면을 강조했지만, 19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셸리와 워즈워스는 철저하게 인과적 효과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표상이 현시적 직접성이라면, 비-표상은 인과적 효과성에 해당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양자는 결국 상징적 연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화이트헤드는 상징적 연관을 통해 미학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보자.

IV. 미학과 정치: 자기실현과 타자의 관심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의 사태를 겪으면서 삶의 향유라는 사적인 영역과 공동체의 관심의 영역인 윤리 및 정치라는 공적인 영역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현재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나와 타자의 윤리 및 정치적 관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거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마스크는 개인의 영역이었지만,

10) 들뢰즈와 가타리는 동물들이 자신의 영토를 표현하기 위해서 원숭이들은 성기를 드러내고, 토끼들은 항문 분비선으로 냄새를 풍기고, 어떤 새는 매일 아침 가지에서 따낸 나뭇잎을 땅과 대조하게 해서 자신의 영토를 표현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축적이나 소유는 이미 존재보다 앞선 것일 수 있다. 존재 개념이 ‘이다(IS)’의 개념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이미 추상화된 것이다. 사실 모든 존재는 타자를 파악해서 자신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소유와 축적은 부정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용가치를 옹호하는 마르크스의 내용 속에 이미 축적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파악(prehension)’이라는 개념 속에는 타자를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사유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폐지라는 경제학적 사유는 존재론의 측면에서 보자면, 다소 일관성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2003, 598-599). 화이트헤드는 “피곤은 축적의 표현”(Whitehead 1991, 239)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육체적 경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적은 결코 인간의 삶에서 배제될 수 없다.

코로나 19의 경우 마스크는 공동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적인 자율성과 자기 향유라는 배치와 정치와 윤리라는 배치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화이트헤드와 레비나스라는 두 철학자의 비교를 통해서 미학과 정치의 상관성을 검토해볼 것이다.

랑시에르(Rancière)는 미학과 정치의 관계를 ‘미학의 정치’와 ‘정치의 미학’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Rancière 오윤성 2008, 13-15) 랑시에르에 따르면, 감각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미 분할된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정치의 미학을 통해서, 주인과 노예, 왕과 노예, 자본가와 노동자는 “감성의 분할”(Rancière 오윤성 2008, 14)을 받으며, 그것은 “공통적인 것과 배타적 몫”(Rancière 오윤성 2008, 13)을 부여받는다. 가령,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의 층간 소음은 공통적일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김은성 2022). 하지만 미학의 정치는 “감상자의 지각방식과 사유방식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성기현 2019, 56)이다. 그것은 칸트가 말하는 ‘반성판단’과 ‘무관심성’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한다.¹¹⁾ 미학의 정치를 통해서 도덕이나 정치 및 경제적 소유의 분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대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은 기존의 감성의 분할을 벗어나서 새로운 분할의 가능성을 말한다(성기현 2019, 56). 그렇다면 새로운 분할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기현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감성의 새로운 분할 발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랑시에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숭고’의 개념을 다시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숭고만이 기존의 일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일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기현은 리오타르와 들뢰즈는 칸트의 숭고론을 통해서 새로운 감성의 일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²⁾ 그렇다면 숭고론이 없다면 새로운 일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샤비로(Shaviro)에 따르면, “실체와 숭고의 미학”(Shaviro 2021, 89)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현대의 대표적인 객체주의 철학의 선두주자인 하먼(Harman) 역시 숭고 대신에 매혹(allure)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더 깊은 어떤 것, 숨겨져 있고, 접근할 수 없는 것, 실제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것의 현존을 암시”(Shaviro 2021, 88)한다. 이것은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계기의 이해, ‘향유와 관심’, 즉, 주체와 대상이 뫼비우스처럼 상호간에 얽혀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숭고함은 여전히 관계할 수 없고, 접근할

11) 반성판단은 규정판단과는 다르게, 이미 전제된 참과 거짓의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관심성은 소유에 대한 욕구 없이 예술 작품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의 미적 기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성기현 2019, 56).

12) 우리는 이 지점에서 숭고를 주장을 거부하고 새로운 일치의 가능성을 말하는 화이트헤드와 숭고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말하는 들뢰즈의 차이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와 들뢰즈는 새로움의 가능성을 주장하나, 화이트헤드는 미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면, 들뢰즈는 숭고의 차원에서 주장한다.(성기현 2019, 59-60).

수 없는 실체의 미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샤비로에 의하면, “아름다움은 관계의 세계에서 아름답고 숭고함은 실체의 세계에서 숭고할 것이다”(Shaviro 2021, 88).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정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우리는 숭고와 매혹의 시대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대비(contrast)를 통해 미를 보아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미학은 압도적으로 숭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름다움은 기껏해야 부수적이거나 고풍적인 것으로서, 최악의 경우에는 회유적 보수주의로 간주하여 깎아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있었다. 독특하게도 화이트헤드는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며 자기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21세기 주요 미학적 학설을 재평가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모든 문화적 표현 방법이 디지털 부호화 사이를 가로질러 전자적으로 보급되는 세계, 유전적 물질이 자유자재로 재조합되는 세계, 물질을 원자 및 아원자적 규모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게 된 세계,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 무엇도 비밀스러운 게 없으며, 더는 숨겨진 깊이라고도 말할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지배적인 심미적 절차는 샘플링하기, 합성하기, 리믹스하기, 잘라내기, 그리고 붙이기를 포함한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미학의 문제는 하면의 것이기보다는 화이트헤드의 것이다. 숭고와 매혹보다는 아름다움과 패턴화된 대비의 문제인 것이다. ……내일은 다룰지도 모르나 적어도 오늘, 미래는 화이트헤드적인 것이다(Shaviro 2021, 90-91)

숭고를 통한 미의 접근은 결국 타자와 초월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가면서 자기 향유라는 미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리오타르와 레비나스에게 미적인 자기 향유가 결국 타자라는 윤리 및 정치의 측면으로 기울게 되는 경향이다. 그 이유는 숭고의 미가 실체 철학의 전제를 암암리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표상주의자들은 칸트의 숭고 미학¹³⁾을 적절히 응용해서 비-표상이론을 주장했다. 리오타르에게 “숭고의 예술이 하는 일은 물질에 다가가는 것이고, 재현의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현존에 다가가는 것”(Rancière 2008, 146)이다. 그러나 리오타르에게 숭고는 칸트가 말하는 자연의 거대함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물질이다. 가령, 그에게 물질은 “음색이나 색만큼이나 피부나 나무의 입자, 향료의 향기, 분비물이나 살의 맛”(Rancière 2008, 148)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사유를 통해서 파악할 수

13) 칸트에게 숭고는 오성이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합목적적으로 통합에 실패하는 데서 오며, 이때 이성이 부정적 현시를 통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없는 구체적인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성기현에 의하면, 리오타르의 숭고는 “물질적 현존, 즉 이질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타자 앞에 정신을 멈춰 세운다.”(성기현 2019, 56)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랑시에르는 리오타르의 숭고는 “타자성의 법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감각적 열정은 ‘채무’의 경험이고 미적 경험은 타자의 법에 의존하지 않는 복종의 경험”(Rancière 2008, 151)이라고 비판한다. 리오타르가 칸트를 통해 숭고를 다시금 부활시킨 이유는, “사물이라고 부르는 이 통제할 수 없는 힘”(Rancière 2008, 152)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랑시에르가 보기에, 리오타르의 숭고론의 문제는 미의 고유 영역이 결국 정치의 한 영역인 윤리에 포섭되고 만 것이다. 랑시에르가 볼 때, “정치는 실제로 권력의 행사와 권력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그것은 특수한 공간의 구성이고, 경험의 특수한 영역의 분할이며, 공동으로 놓여 있고, 공동의 결정에 속하는 대상들의”(Rancière 2008, 54) 주체에 의한 분할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정치는 “감성의 분할”(Rancière 2008, 55)의 한 형식이다. 예술 역시 “가시성의 행위들과 형태들이 감성의 분할과 재구성에 개입하는 방식”(Rancière 2008, 55)이다. 따라서 랑시에르는 예술과 정치가 각자 ‘저항’의 형태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의 방식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성기현에 따르면, 랑시에르는 감성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았다.¹⁴⁾ 화이트헤드에게는 아름다움은 ‘조화’와 ‘부조화’를 함께 포함한다. 아름다움의 속성은 조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조화, 즉 미적 파괴를 반드시 함의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미는 조화와 부조화라는 역동성을 통해서 균형을 잡으며, 정치 역시 조화와 부조화라는 내재적 속성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간다고 볼 수 있다. 화이트헤드에게 미학과 정치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상징적 관련은 그런 조화와 부조화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숭고를 통한 파괴를 언급하지 않고도 새로운 조화의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다.¹⁵⁾

한편 레비나스(Lévinas)는 화이트헤드처럼 자기 향유와 만족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한다. 레비나스에게 향유(jouissance; enjoyment)란 타자를 통해 자기가 되는 것이다. 즉,

14) 랑시에르는 우선 규정판단에서 반성판단으로 가는 이행을, 다음으로 욕구능력의 개입을 가로막는 무관심성의 계기를 감상자에게 부여한다. 성기현에 따르면, 과거의 견고한 분할과 새로운 창조적 분할을 위해서는 숭고의 개념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런 논리에서 리오타르와 들뢰즈가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감성의 새로운 분할은 랑시에르가 주장하는 유희가 제공하는 이러저러한 일치가 아니라 숭고와 더불어 기존의 일치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성기현 2019, 57-60). 화이트헤드 역시 미는 ‘조화’와 ‘부조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들뢰즈와 화이트헤드가 과정철학자이지만, 미와 부조화에 대한 관점에서 양 철학자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화이트헤드는 숭고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파괴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이다.

15) 상징적 관련에서 질서 및 조화의 파괴에 대한 언급은 결론의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다름을 동일함으로 변환시키는 것……다른 것의 에너지는……향유를 통해 나의 에너지가, 나의 힘이, 내가 된다”(Levinas 1991, 111). 그에게 “향유는 정확히 그 활동이 자기 자신의 활동에 스스로 자양분을 주는 이런 방식이다”(Levinas 1991, 111). 그에 따르면, “향유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대타자와 관련없이 에고이스트인 나는 고독하지 않고 순진무구하게 홀로 존재한다”(Levinas 1991, 134). 이와 같이 간단히 ‘향유’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본다면, 레비나스와 화이트헤드는 거의 유사한 입장에서 실재를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레비나스에게는 화이트헤드의 ‘관심’에 해당하는 타자의 부름은 절대적이다. 타자는 미학보다 윤리학의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에 놓여 있다. 카인은 이삭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 존재인가? 이것은 가족 및 공동체의 부름이다. 레비나스에게 타자란 다음과 같다. “타자(Other)와의 관계만이 오직 초월의 차원을 가져오며, 우리를 상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용어의 감각적 의미의 경험과는 전적으로 다른 관계로 우리를 이끈다”(Levinas 1991, 193). 레비나스에게 그것은 나에게 윤리적 요구로 다가오는 것이며, 나의 어떤 미적인 활동도 그 앞에서 정지가 된다. 물론 그것은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책임”을 요청한다(Levinas 1991, 197).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케이커 교도의 관심과 동일한 방식으로 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그 타자의 관념은 “얼굴에 대한 환대”(Levinas 1991, 197)이다. “그 얼굴은 소유되는 것을 거절하며, 나의 힘에 포착되는 것도 저항한다”(Levinas 1991, 197). 샤비로에 따르면, 레비나스에게 타자는 “직선적이고 균질적인 시간을 파열시키고”, 그 시간은 “불연속적”인 시간을 제시한다(Shaviro 2021, 56). 레비나스는 숭고의 미학처럼, “존재의 연속성은 없다. 시간은 불연속적이다; 한 순간은 중단없이 다른 순간으로 가지 못한다”(Levinas 1991, 284). 결국 연속되기 위해서는 “순간은 죽음을 만나야 하고, 부활해야 한다; 죽음과 부활이 시간을 구성한다”(Levinas 1991, 284). 결국 레비나스에게 타자의 얼굴은 책임이라는 윤리의 지점을 포착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만족이라는 향유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베르그손은 지속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화이트헤드는 레비나스와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거부한다. 그런데 향유와 관심, 미학과 정치의 상관성에 대해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레비나스와 화이트헤드에게 볼 수 있다. 화이트헤드에게도 연속성은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화이트헤드의 존재론은 현실적 계기이며, 그에게 “형이상학적 진리는 원자론이다. 피조물은 원자적이다”(Whitehead 1991, 103). 그것은 생성 즉 소멸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연속성의 생성은 있지만, 생성의 연속성은 없다”(Whitehead 1991, 103). 이 말은 현실적 계기들이 “연장성은 생성하지만 생성 그 자체는 비연장적”(Whitehead 1991, 103)이라는 것이다. 연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현실적 계기가

창조적 활동을 해야한다. 화이트헤드에게 ‘변환의 범주(the category of transmutation)’는 불연속적인 생성을 연속적인 하나로 보이게 하는 범주적 제약(categorical obligations)이다(Whitehead 1991, 87).¹⁶⁾ 가령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모두 다르더라도, 교수는 학생들을 배려와 관심을 갖고 본다. 그것은 다수를 하나의 배치로 변환해서 동등한 내포를 갖는 속성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자에 대한 얼굴에 배려나 관심이 화이트헤드에게 ‘숭고’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¹⁷⁾이다.

화이트헤드의 관점에서는, 모든 존재, 신이라는 현실적 존재마저도,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한다”(Whitehead 1991, 91). 그러므로 화이트헤드에게는 레비나스처럼 특별한 타자성은 없다. 시간이 불연속적이고 “죽음과 부활”(Levinas 1991, 284)이 특별한 무한자의 얼굴을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현실적 계기는 생성하고 소멸하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면서 존속한다. 다시 말해서 “영속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은 없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에게 숭고, 타자와 같은 것을 위해서 주체의 미적인 향유를 윤리의 지점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한다.

화이트헤드에게는 모든 계기는 본성이 이미 “초월과 내재의 결합”(Whitehead 1992, 191)이며, 즉 “모든 현실적 존재는 그 자신의 새로움에 의해서 신까지도 포함하여 그 자신의 우주를 초월한다”(Whitehead 1991, 199). 우리는 근대 국가의 탄생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와 민중들이 국가와 민족의 정당한 윤리 앞에, 정의 앞에 내몰렸는지를 잘 알고 있다.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 역시 국가라는 타자 앞에서 자기의 즐거움과 향유를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지만, 러시아의 젊은이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의 각자의 자기 향유에 대해서는 모두 침묵을 한다. 이것이 정치와 윤리로 인해서 자기

16) 들뢰즈와 화이트헤드는 라이프니츠의 미세 지각(물방울)이 어떻게 바다나 강으로 보이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 화이트헤드는 다수의 현실적 계기들이 변환의 범주를 통해서 하나의 영원적 객체에 의해 한정될 때 가능하다고 보며, 들뢰즈 역시 예정조화나 초월적인 전제를 상정하지 않고 발생을 통해서 일정한 강도가 현실화될 때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개체와 공동체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양자는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들뢰즈 역시 수없이 많은 물방울들이 어떻게 바다로 변환되는지를 초월적 조건에 의해서 설명한다. 우리가 수 많은 물방울이 모여서 구성된 것을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개개의 물방울들이 지닌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빛깔들과 그것들이 매 순간 일정한 미분적 관계에 따라 빚어내는 바다의 유동적인 색채”때문이라고 한다. 들뢰즈는 이것을 ‘강도’와 ‘잠재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들뢰즈와 화이트헤드를 과정철학으로 묶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들뢰즈는 칸트의 숭고의 개념을 통해서 파괴에서 새로운 질서로 접근을 한다면, 화이트헤드는 파괴에서 새로운 일치로 나아가는 과정을 미의 대비의 과정을 통해서만 설명한다.

17) 사비로에 따르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숭고가 아니라 미의 차원에서 새로운 조화의 가능성을 논의한다(Shaviro 2021, 57).

향유라는 미가 상실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현재에도 암묵적으로 자인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와 신을 초월하는 자기 향유라는 미적인 결단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이미 자기 향유를 위해서는 잠재적인 타자가 내재해야 한다. 여기서 객체는 각자의 문화 공동체를 고려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미적 향유를 위해서 윤리와 정치를 포기하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월적인 타자를 위해서 자기 향유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근대 국가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탄생을 위해서 타자의 중요성을 “과잉 주장”했으며, “일반화를 지표로 삼겠다는 것은 건전한 것이지만, 그 성공에 대한 평가는 과장되어 있는”(Whitehead 1992, 56-57) 것이라고 본다. 국가와 민족의 신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초는 현실태의 박동 하나하나가 지니는 본질적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가치 경험이라는 공통의 사실이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 자신과 타자와 전체를 위한 모종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Whitehead 1992, 131). 다시 말해서, 모든 활동하는 존재는 자신만의 가치와 타자와 관계라는 가치를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은 약탈을 통해 구성되며, 그것이 결국 도덕의 문제를 제기한다(Whitehead 1991, 217). 약탈의 정당화가 곧 타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며, 정치적 활동의 목적이다. 그러나 타자의 관심과 배려가 자기 향유보다 우월할 수는 없다. 모든 관심은 결국 창조적인 “가치 평가”(Whitehead 1991, 447)에 기반을 둔다. 가치 평가란 외부에 의한 인정 욕구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평가이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긍정하지 않고는 결코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존속은 획일적 존속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과 대비를 통해 존속하는 역동적 균형이다. 타자에 대한 관심은 결국 중요성을 평가하는 자기 긍정적인 가치 평가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보자면, 결국 타자에 대한 관심도 자기 향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타자의 얼굴에 대한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중요성으로 융합되어 들어오는 것은 타자들의 중요성”(Whitehead 1992, 138)에 달려 있다. 따라서 타자의 중요성은 결국 “그 자신을 위한 중요성”(Whitehead 1992, 139)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레비나스에게 윤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에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힘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에게 도덕적 책임은 자발적인 미적 느낌에 따른 결단의 결과이다(Whitehead 1991, 404). 다시 말해서 “주체는 그 느낌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그것이라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것은 또 현존의 여러 귀결들에 대하여 파생적으로 책임을 진다”(Whitehead 1991, 404). 왜냐하면 그 책임은 “그 느낌으로부터 유출되기 때문이다”(Whitehead 1991, 404). 그런 미적 향유의

결단은 어떤 결과의 보장됨이 없이, 초월적인 얼굴이나 기타 등등에 종속되지 않고서 긍정적인 가치 평가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에게 “민주주의의 기초는……가치 경험이라는 공통 사실이다”(Whitehead 1992, 131). 정치, 윤리와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향유하는 미적인 가치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정치와 경제의 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힘의 본질은 미적인 가치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돌진”(Whitehead 1992, 140)한다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이 논문에서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의 전망에서 표상주의와 비표상주의의 논의를 전개했으며, 그 문제점을 각각 검토하였다. 그리고 미학과 정치의 관련성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미학과 정치(윤리)의 영역에서 한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적인 자율성이 정치와 윤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특히 유튜브의 시대에서 개개인의 자기 향유의 지점을 충분히 맛보고 있다. 각자의 가치의 향유와 그것에 대한 취향을 엄청난 정보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리, 정치, 경제라는 타자와의 관계의 영역을 맹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각자의 자기 향유가 결국 윤리, 정치, 경제의 영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음도 잘 볼 수 있다. 현재 유튜브의 내용이 정치, 경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 윤리, 경제적 행위의 시발점이 되고 있음을 매번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향유와 관심, 미학과 정치는 각자의 영역이 있으면서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상징적 관련을 통해서 미학과 정치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간단히 검토하면서 결론을 맺을 것이다. 버크(Burke)에 의하면, 공동체의 유대를 가능케 하는 결합력(magnetic force)을 관습이라고 한다.¹⁸⁾ 예컨대, 각 국가와 민족은 신화를 통해 동일성을 확보한다. 그것은 자국 내의 시민들에게 정서적 동일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쩌면 지식보다 감정적 동일성의 구축이 동일한 인종들을 구별하는데

18)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목도하고 그것의 폭력성을 우려해서 숭고의 개념을 거부한다. 그것은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칸트와 그 이후의 많은 철학자들이 숭고의 개념에 관심을 표명한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숭고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념인 ‘대비’를 통해서 충분히 새로운 관념의 탄생을 가능하다고 본다(Burke 2003, 98-99).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은 거의 동일한 외모를 갖고 있지만, 정서적 동일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그와 같은 막연한 감정이 민족 및 국가의 자기 동일성 혹은 정체성의 구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Whitehead 1927, 66-68). 화이트헤드 역시 버크의 입장을 계승하는데, “사회체계는 본능적인 행위에 내재된 맹목적인 힘, 그리고 습관과 편견으로 휘감긴 본능적인 감정 속의 맹목적인 힘에 의해서 결속이 유지된다”(Whitehead 1927, 68-69).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버크가 ‘관습’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한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버크는 관습을 통해 사회적 변혁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화이트헤드는 버크를 ‘불행’이라고 평한다(Whitehead 1927, 72-73).

……주요한 문명의 진보는 마치 어린이의 손에 쥐어진 화살처럼 자신들이 처해 있는 사회를 거의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러한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학적 지혜의 관문에 첫발을 내 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존의 상징체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몽된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목표에 그것이 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상징 체계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없는 사회들은 종국적으로 쇠퇴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거나 무용한 어둠 속에 질식된 삶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Whitehead 1927, 88).

화이트헤드는 앞에서 다룬 상징적 관련을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1)상징적으로 조건화된 행위(symbolical conditioned action), 2) 반사적 행위(reflex action), 3) 순수하게 본능적인 행위(pure instinctive action)이다(Whitehead 1927, 78). 본능적인 행위란, 모호하고 무의식적인 지각인 인과적 효과성의 양태에 해당한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삶의 양식이며, 일종의 관습이나 전통이다. 반사적 행위는 현시적 직접성의 지각이며, 명료한 지각이다. 그 두 가지가 결부된 행위가 상징적으로 조건화된 행위이다.

최근에 미학과 정치의 상관성을 검토할 만한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였다. 판소리 타령의 한 곡조인 ‘범이 내려간다’라는 상징을 올림픽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플래카드로 건 적이 있었다. 이것은 미학과 정치적 행위가 상보적으로 결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직 12척이 있다’는 글을 걸었다가 일본의 반대로 내렸다.

이것은 너무 노골적인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선수단의 비장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기에 일본의 반발을 불러왔다. 여기에는 미적인 자기 향유가 빠져 있다. 그와는 달리 ‘범이 내려간다’는 것은 판소리라는 미적인 자기 향유와 관심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묶일 수 있는 상징화된 조건의 행위를 보여준다. 즉 그것은 한국인의 미적인 향유와 일본에 대한 관심이라는 정치적 행위가 공유된 정서로 묶인 표현이다.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은 잘 알 수 없으며, 한국인의 판소리에 대한 느낌과 한일관계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없다면, 이와 같은 상징적 행위들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징들’(social symbolism)은 ‘공동체 상징들’(communal symbolism)이라고 한다(Whitehead 1927, 74-75).

사회적 상징들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개개 인간이 취하는 특정 행위의 방향을 의미한다. 또한 이론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행위의 궁극적 동기를 의미하는데, 다시 그것은 감정을 수반하면서 모호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상징들은 수많은 균중들을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조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Whitehead 1927, 74).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들을 취하는 것은 그 사회가 취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요즘 SNS에 올라오는 사건들을 보면, 그와 같은 상징적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 개인의 언어와 몸짓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상징을 통해 의미와 해석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화이트헤드가 의미하는 상징적 연관이다. 이것은 ‘범이 내려온다’라는 것을 부른 가수들의 ‘자기 향유’가 어떻게 정치적 행위라는 ‘관심’과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반사적 행위와 상징적 행위의 관련성이다. 반사적 행위가 본능적인 행위와 결부되지 않을 때, 그 습관적 행위(the habit of action)는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명절에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은 가족 간의 우애와 화목을 위한 인과적 효과성의 행위이었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절차만이 남은 반사적 행위로 퇴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동체를 고려한 상징적 행위가 오히려 부부와 자식 간에, 혹은 고부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기간으로 기억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가령, 명절은 일종의 루틴(routin)이다. 인과적 효과성과 현실적 직접성이 결합된 것을 루틴으로 본다. 루틴은 “모든 사회 체계의 신”(the God of every social system)(Whitehead 1967 90)과 같은 역할을 한다. 추석이나 설은 한국인의 고유한 사회 체계의 루틴이지만,

농경문화에서 비롯된 명절은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는 공동체를 연결하는 ‘관심’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향유’도 사라지고 있다. 이제 명절은 어른들과 아이들에게는 단지 돈을 주고 받는 교환체계로만 자리를 잡고 있으며 과거의 인과적 유효성의 공유라는 지점은 희박해지고 있다. 사실, 아이들에게 명절은 아름다움을 통한 자기 향유의 과정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너무나 형식적인 절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어떤 상징적 연관이 ‘쇠퇴’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방향이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적합한 상징적 행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혼돈은 새로운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조의 변화에 기존의 낡은 상징들을 성공적으로 적응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 문제를 다루는 통치술에서 긴요한 지혜의 최종적인 표지이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상징들을 혁명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Whitehead 1927, 61).

새로운 상징적 규범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쇠퇴에 이른 루틴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화이트헤드는 그것은 ‘관념의 모험’¹⁹⁾에 있다고 본다. 부조화는 새로운 조화에 이르기 위한 도정이다. 그러나 새로운 관념은 기존의 루틴의 저항으로 결코 쉽게 수용될 수 없다. 그것은 일종의 혼돈과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 화이트헤드에게 ‘향유’와 ‘관심’, 즉 미학과 정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공동체라는 개념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한 ‘패턴화된 대비’의 활동을 통해서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공동체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공동체 자체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순응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공동체 자체에 순응시키는 것이다. 자유인이란 그들 스스로 만든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Whitehead 1927, 88). 우리 모두가 ‘현실적 계기’이며, 각자가 자기 원인을 통해 활동하는 자유인이라는 전제를 필두로 해서, 공동체 전체의 규칙이 생겨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는 공동체가 부여하는

19) ‘관념의 모험’은 기존의 것에 대한 혐오 및 역작용, 변환의 범주가 필요하다. 이것은 당장의 의식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지적 정신성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 결국 새로운 상징의 도래는 변환의 범주를 통해 추상의 힘을 획득하는데 있다. 우리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이행할 때, 불교가 유교의 상징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Whitehead 1991, 450-451 참조).

규칙에 따라서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공동체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것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새로운 미학과 정치 체계의 대비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일반적 관념이 실제적 결과를 낳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까닭은 인간의 성격에 내재된 무능력 탓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성급한 탐구자들이 그 문제의 복잡성을 습관적으로 무시해왔다. 그 문제의 난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기존의 어떤 악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만큼 사회를 개조하자면 사회조직과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문명을 먼저 파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Whitehead 1967, 20).



- Adorno, T. W. 1970. Aesthetic Theory. Trans. C. Lenhardt. Routledge.
- Bataille, G. 1985. The Use Value of D. A. F. de Sade. Vision of Excess Selected Writings, 1927-1939. Trans. Allan Stoekl et al.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출처: [http://www.sauer-thompson.com/essays/BatailleUse ValueSade.pdf](http://www.sauer-thompson.com/essays/BatailleUse%20ValueSade.pdf) (검색일: 2022. 07. 22.).
- Burke, E. 2003.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Frank M. Turner (Ed.). Yale UP.
- Capaldi, N. 1975. David Hume: the Newtonian Philosopher. Twayne.
- Habermas, J. 198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Trans. J. J. Shapiro. Heinemann.
- Habermas, J. 1990.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Trans. Frederick G. Lawrence. The Mit Press.
- Hume, D. 1978. A Treatise of Hume Nature, Analytic Index by Lewis Amherst Selby-Bigge, with text revised and notes Peter H. Nidditch. Clarendon Press.
- Jay, M. 1994. Downcast Eyes: the Denigration of Vision in Twentieth Century French Though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vinas, E. 1991.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Kluwer Academic Pub.
- Lyotard, J. F. 1984. Notes on the critical Function of the Work of Art. Driftworks. Roger Mckeeon (Ed.). Semiotext(e).
- Rancière, J. 2009. Aesthetice as Politics. Aesthetice and Its Discontents. Trans. Steven Corcoran. Polity.
- Brigitte S., 박정훈 역. 2016. 미와 예술. 미술문화.
- Deleuze, G. & Guattari, 김재인 역. 2003. 천개의 고원. 새물결.
- Deleuze, G., 김상환 역. 2004. 차이와 반복. 민음사.
- Eagleton, T., 방대원 역. 1995. 미학사상. 한신문화사.
- Marx, K., 김문현 역. 2014. 경제학 철학 초고. 동서문화사.
- Panofsky E., 심철민 역. 2014. 상징형식으로서의 원근법. 도서출판b.

- Rancière J., 주형일 역. 2008. 미학 안의 불편함. 인간사랑.
- Rancière J., 오윤성 역. 2008.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b.
- Smith, A., 박세일 · 민경국 역. 2010. 도덕 감정론. 비봉출판사.
- Smith, A., 김수행 역. 2014. 국부론. 비봉출판사.
- Shaviro, S., 안호성 역. 2021. 사물들의 우주. 갈무리.
- Whitehead, A. N. 1938. Modes of Thought, 오영환·문창옥 역. 1992. 열린사고와 철학. 고려원.
- Whitehead, A. N. 1967. Adventure of Ideas, 오영환 역. 1996. 관념의 모험. 한길사.
- Whitehead, A. N. 1978. Process and Reality, 오영환 역. 1991. 과정과 실재. 민음사.
- Whitehead, A. N. 1925.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오영환 역. 1989. 과학과 근대세계. 서광사.
- Whitehead, A. N. 1927.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문창옥 역. 2003.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 동과서.
- 김은성. 2022. 감각과 사물. 갈무리.
- 김영진. 2022. 들뢰즈의 차이의 철학: 강도량의 중심으로. 동서정신과학 25(1), 145-159.
- 박성봉. 2012. 미학과 감성학-감성시대의 미학. 일빛.
- 성기현. 2019. 들뢰즈의 미학-감각, 예술, 정치. 그린비.
- 조경진. 2012. 현대예술의 비표상성과 화이트헤드 상징론. 한국 화이트헤드 학회 추계 학술 대화 자료집.

● 투고일: 2022.07.29. ● 심사일: 2022.07.30. ● 게재확정일: 2022.08.18.

| Abstract |

Aesthetics and Politics **- Focusing on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

Kim Youngjin (Daegu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of sensory theory of representation and sensory theory of non-representation, respectively, and examined them through the concept of symbolic reference of Whitehead. In Whitehead's philosophy, the problems of aesthetics and politics develop into the concepts of 'enjoyment' and 'concern', respectively. This is the basis for important ontology and epistemology, respectively, and provides an important clue to future aesthetics and political behavior. In today's philosophy, which generally values 'others', self-enjoyment is recognized, but ultimately, it is leaning toward concern in others. Non-Representative philosophers like Ryotard and Lévinas also show a tendency to value concern of others. We will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hilosophical thinking and critically examine it through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Through this, we will critically look at the dichotomy of thinking of aesthetics and politics across modern and post-modern times and present the philosophy of Whitehead's process as an alternative.

〈Key words〉 Whitehead, Marx, Ryotard, Rancière, Lévinas, Deleuze, Aesthetics, Politics

일반논문

다언어 사회의 '언어경관'과 국어교육적 내용화

김규훈



다언어 사회의 ‘언어경관’과 국어교육적 내용화

김 규 훈 (대구대학교)
(rbgns81@naver.com)



국문요약

이 연구는 다언어 사회의 특징적 언어 현상 가운데 하나인 언어 경관(linguistic landscape)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내용화를 꾀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언어 경관의 개념적 요소를 문헌 연구로써 추출하고, 국어교육적 관련성을 가늠하여 교육과정 연구의 방법으로 언어 경관을 적용한 국어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는 언어 경관이 국어교육으로 적용되는 방향을 ‘국어교육적 활용으로서의 언어 경관’과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에 집중하여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과 ‘언어 경관의 타당성’의 내용 범주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 양식과 언어 문화의 다양성 시대에 국어교육의 실천적 교육 내용을 언어 경관을 통해 구상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언어 경관, 공공 언어, 다언어사용, 실제적 국어 자료, 복합양식 텍스트, 언어의 타당성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언어 경관(linguistic landscape) 이론을 고찰하고 언어 경관과 관련된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언어 사회로 지칭되는 현대 사회의 실제적 언어 현상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는 언어 경관의 개념 요소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에서 다양한 문화와 양식의 언어를 수용하는 과정에 관한 국어교육의 내용 요소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언어 경관 이론을 통해 실제적 국어교육의 실천적 지평을 확장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언어 경관은 특정 지역, 특히 도심에 존재하는 공공성을 지닌 일련의 언어 현상을 지칭한다(Landry & Bourhis 1997, 23). 곧 거리의 교통 표지판 및 안내판, 건물에 게시된 문구, 상점의 간판이나 광고 포스터 등 특정 지역의 언어적 풍경을 형성하는 대상을 언어 경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언어 경관은 가시성(visibility)과 현저성(salience)을 특징으로 지니며, 이들 두 특징은 각기 정보적(informational) 기능과 상징적(symbolic) 기능을 지니고 있다(Landry & Bourhis 1997, 25-28).¹⁾

여기서 ‘정보적 기능’은 특정 지역의 거주민에 의해 구성된 경관의 언어가 보이는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말한다(Landry & Bourhis 1997, 25). ‘상징적 기능’은 특정 지역에서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언어 양상과 같이 다언어 간의 갈등이나 공존과 같은 언어의 생태적 특성을 의미한다(Landry & Bourhis 1997, 28). 언어 경관의 정보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은 언어 경관에 대한 연구 양상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언어 충돌이나 갈등에서부터 다언어 사회의 언어 공존과 상생 그리고 미래 언어의 모습까지 포섭하는 연구가 언어 경관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신동일 외(2017)에서 명시한 ‘횡단언어주의(translingualism)’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횡단언어주의는 “언어, 정체성, 문화 사이를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로지르고 관통하면서 이들의 ‘단일성’을 끊임없이 교란하는 언어의 양상에 주목하고, 또 그 양상을 최대한 드러내 주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신동

1) 언어 경관 이론은 경험적, 실증적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민족지학의 연구 분야에 해당한다. 이에 언어 경관의 정보적, 상징적 기능은 단순히 도심 공공 및 상업 언어의 기능적 특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 표현이 내포한 힘의 관계나 위상과 관련이 깊다. 이에 대하여 Landry & Bourhis(1997, 23)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It is proposed that the linguistic landscape may serve important informational and symbolic functions as a marker of the relative power and status of the linguistic communities inhabiting the territory.” (연구자 밑줄)

일 외 2017, 33). 언어 경관은 횡단언어주의가 발현되는 하나의 모습으로서,²⁾ 언어 경관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복잡화된 현대 사회의 다언어 현상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언어 공존과 상생에 대한 논의를 파생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어교육에서는 ‘국어’를 연구의 대상이자 교육의 질료로 삼는다는 점에서, 변화된 시대의 국어 모습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변화된 시대의 언어 사용 가운데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다문화 국어교육 및 복합양식 텍스트의 소통 등의 교육적 테제는 다언어 사회의 언어 경관 현상과 상당한 부분에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가령 음식점 간판에 국어와 일본어가 혼용되어서 사용된 모습이나, SNS에서 소통되는 다국적 언어의 혼합어와 같은 독특한 형태는 언어 경관의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인을 위한 안내 문구에 은연중에 숨어든 이념적 차이를 유발하는 언어 표현은 모국어 학습자의 다문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중요한 국어교육적 문제이다. 물론 국어교육에서 다문화 언어 사용이나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연구가 각기 수행되어 오고 있지만, 이들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향후 모국어 학습자가 지녀야 할 언어관이나 언어 의식 및 언어에 대한 태도의 교육 내용을 섭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언어 경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어교육의 관련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언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³⁾ 조태린(2015, 40)에서 강조하였듯이, 언어 경관은 다언어 사용을 포함하여 언어 인권과 관련 언어 정책의 문제에 대응하는 논의로 확장될 것이며, 더 나아가 언어 교육의 울타리에서도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연구는 언어 경관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2) 이와 관련하여 신동일 외(2017, 53-54)는 도시의 언어 경관을 뜻하는 ‘메트로링구얼(metrolingual)’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다른 민족이지만 도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치관, 음식, 음악, 패션, 업무, 기타 취미 활동 등을 공유하고 친밀감을 쌓는 도시민족성의 태도는 언어 사용 역시 국가나 민족에 기반을 둔 가치 체계를 벗어나게 하며 오히려 미적이고 창발적인 생활양식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한다. (...) 도시 공간인 식당, 시장, 백화점, 지하철, 기타 공공장소 등의 일상적 공간에서 메트로링구얼은 전략적이고 선택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학습하면서 언어를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구축된 고정된 체계로 보지 않는다.”

3) 이 논문의 선행연구 검토와 관련하여,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현숙(2019)은 다중언어 시대 한국의 횡단언어 경관을 고찰하여 본고의 연구 주제와 일치한다. 지현숙(2019, 420)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사회의 의사소통 현장에서 발견되는 한국어와 다양한 한국어 변이형, 한국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들의 생태적 공존을 모색하고 아직까지도 언어 정책이나 연중에 강하게 작동·작용하고 있는 단일언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논점과 본고는 궤를 같이 한다. 이 논문은 지현숙(2019)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횡단언어 경관 분석의 사례를 참고삼아, 국어교육의 내용 충위를 중심으로 언어 경관의 이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작업이다. 이를 위해 먼저 언어 경관의 개념을 살피고 특히 다언어사용(multilingualism) 현상으로서 언어 경관이 지닌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국어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경관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언어 경관을 적용한 국어교육의 내용을 그 범주와 범주별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해 볼 것이다.

Ⅱ. 언어 경관의 개념과 다언어사용 현상

언어 경관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언어 경관의 지리적 분류인 특정 도시나 공간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⁴⁾ 이러한 경향은 언어 경관이 인문지리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기인한다. 언어 경관의 개념이 특정 지역, 특히 도시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지역 분화적으로 논의된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의 관점으로 볼 때, 지역 방언이나 국어 규범에 관한 교육 내용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 경관을 개념적 요소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특히 언어 정책 및 교육적 활용으로 접근한 논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태린(2015)은 한국 언어 경관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언어 경관의 개념을 토대로 향후 언어 경관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양민호(2020)은 언어 경관 연구가 역사사회언어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통시적 논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언어 경관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공간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 경관 연구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 경관이라는 연구 담론을 국어교육이라는 학문 울타리에 적용하는 방향성을 이들 연구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가운데, 조태린(2015)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적 적용을 위한 언어 경관의 개념을 세분화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조태린(2015)에서 언어 경관의 주창 논의인 Landry & Bourthis(1997)을 바탕으로, 언어 경관의 개념 요소를 분석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4) 언어 경관에 대한 기존 논의에는 대학 주변의 음식점 간판을 대상으로 한 언어 경관 연구(이자호, 2019), 제주 지역의 언어 경관 특성(강혜선, 2019), 간판과 게시판의 화용 연구(김정현, 2021), 해양관광도시의 도로 표지 언어 경관(양민호·김준환, 2021a),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언어 경관 연구(양민호·김준환, 2021b) 등이 있다. 이처럼 최근에 논의된 다수 언어 경관 논의는 특정 지역이나 공간(가상 공간 포함)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 경관 개념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언어 정책과 더불어 언어 교육의 울타리에 해당하는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과의 접점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 연구는 조태린(2015, 29-30)에 제시된 언어 경관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여기에 그간의 언어 경관에 대한 논의를 섭렵하여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적용 방향을 고민해 보기로 한다.

- 언어 경관은 민간의 공간이 아닌 공공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
- 언어 경관은 구어보다 문어에 초점을 맞춘다.
- 언어 경관은 다언어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위의 개념 요소를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언어 경관이 공공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경관의 개념으로 언어가 지닌 공공성을 뜻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가령 길거리에 있는 개인 상점의 간판은 분명 사적 소유이지만, 간판은 도시의 경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에 간판 언어는 중요한 언어 경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2006, 14)에서는 간판, 현수막, 안내판, 표지판, 벽보 등과 같은 옥외 광고와 옥외 간판 및 옥외 사인을 언어 경관의 주요 유형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언어 경관은 도시를 비롯한 특정한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언어 표현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⁵⁾

이때 특정한 지역은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데, 이는 간판이나 안내 문구 등과 같은 공공성을 띤 언어 표현들이 가상 공간에서도 빈번히 등장하기 때문이다. 양민호·김준환(2021b, 489)에서는 주요 시도 지자체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된 다언어 현상을 언어 경관 연구로써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언어 경관 연구의 확장은 가상 공간이 실재 공간보다 더 중요하고 빈번한 언어 사용의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둘째, 언어 경관이 문어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태린(2015, 29)는 ‘눈에 보이는 언어 경관, 즉 시각 경관(visual landscape)’을 분석 대상으로 둔다고 언급하였다.

5) 길을 걸거나 운전을 하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우리가 접하는 특정 장소의 수많은 표지들은 각각의 특징과 상징성이 있다. 그것은 차들을 위한 교통 표지판, 보행자 표지판, 상업광고, 정부정책안내문, 거리이름, 낙서, 그리고 주의표지 등등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 문자언어의 형태로 게시된 언어들을 우리는 언어경관이라고 부른다(강혜선 2019, 1-2).

사실 대다수의 언어 경관 논의가 시각 경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언어적 차원에서는 문자 언어를 언어 경관의 주요 논제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민호·김준환(2021a, 77)에서는 최근 언어 경관 연구는 화살표 등과 같은 기호와 화장실 마크와 같은 픽토그램(pictogram)을 포함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문자 언어는 넓은 의미에서 각국의 문자 체계에 기호와 픽토그램을 더한 형태를 포괄한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언어 경관이 문어에 초점을 둔다는 점은 시각 경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그 대상은 협의가 아닌 광의의 문자 언어를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언어 경관이 오직 시각 경관의 분석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태린(2015, 29)에서는 언어 경관은 귀로 듣는 음성 경관(soundscape)이나 만지거나 느낌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촉각 경관(tactual landscape)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⁶⁾ 이때 촉각 경관은 양민호·김준환(2021a, 77)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표기를 가리키므로 광의의 문자 언어에 수렴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음성 경관이 언어 경관 연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앞서 ‘첫째’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실재의 공간을 넘어서 가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면 복합양식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언어 경관의 발현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언어 경관은 언어의 양식(mode)에 대한 변화를 바탕으로,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성 언어’로 구분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

셋째, 언어 경관이 다언어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언어의 세계화에 따른 필연적 현상이다. 다언어사용은 좁게는 한 국가 내의 표준어와 지역 방언 및 사회 방언의 혼용을 가리키고, 넓게는 특정 지역 내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언어 혼용을 포괄한다. 언어 경관은 다언어사용의 넓은 의미와 적극 관련되는데, 이는 ‘언어적 접촉(linguistic contact)’ 이론으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자호(2019, 136)은 언어 경관의 연구가 다른 언어와의 접촉에 의한 표기의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표기의 문제는 위 ‘둘째’에서 언급한 시각 경관과 관련된 논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접촉의 언어 문제는 비단 표기의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동일 외(2017, 163)은 언어 경관이 눈으로 보이는 언어 표기부터 어떤 언어가 선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언어 경관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6) 음성 경관은 귀에 들리는 모든 음성 언어(방송안내, 관광지 안내, 박물관 해설 등)가 그 대상이며 해당 국가의 언어 및 방언이 여기에 속한다. 촉각 경관은 손발로 만져볼 수 있는 모든 요소,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문자 표기인 점자, 보도블록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양민호·김준환 2021a, 77).

일반적으로 권력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은 특정 언어에 대한 중요성, 권력, 우월성, 과학성 등의 가치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좀 더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각된 이데올로기의 지배에 반항하며 자신들의 무시된 정체성을 또 다른 언어적 표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언어 이데올로기의 전쟁터가 언어 경관임을 지적한 바 있다(신동일 외 2017, 164). 이렇게 보면 다언어사용과 관련된 언어 경관은 그저 다양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언어 간의 갈등이나 권력 관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언어가 형성하는 사회적 이념성에 대한 인식까지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⁷⁾

특히 언어 간의 갈등이나 권력 관계는 언어의 생태학(ecology of language)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Fill(1993; 박육현 역 1999, 27)는 언어의 생태학에 대하여 Haugen(1972, 325)의 정의를 빌려, “특정 언어와 그의 환경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소개하면서, ‘다중 언어 문제, 표준어와 방언의 위계, 다수 언어와 소수 언어의 갈등 및 소수 언어의 소멸’ 등을 주요 연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물의 생태계가 일련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균형을 유지하듯이, 언어의 생태계 또한 역학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언어의 생태학이 지닌 기본 전제이다. 이렇게 볼 때, 언어 경관은 언어의 생태학이 지닌 언어 관계와 갈등에 관한 연구 논제를 포괄하며, 특히 세계화 시대 언어 공용의 현상이 특정 공간이나 지역의 이념에 따라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도심 변화가에서 쉽게 발견되는 외국어와 한국어의 병행 표기 현상, 가상 공간에서 국적 불명의 혼재된 용어가 범람하는 현상 등은 해당 현상의 언어적 분석과 더불어, 언어적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 문화, 계층의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 양상이 언어 경관 연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⁸⁾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언어 경관은 ‘경관의 공공성’, ‘문어 중심’, ‘다언어사용 현상’이라는 개념 요소를 중심으로 지닌다. 이때 이들 세 가지의 개념 요소 가운데

7) 정예원 외(2021, 118)은 서울시에 중국어 사용 인구나 비중국어 사용 인구의 공간 분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어 사용 인구의 공간적 분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향후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국적의 언어 간 관계를 살피는 논의가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8) 언어 경관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다문화 및 다중언어사회의 개인이 갖는 다양한 언어적 경험에 대하여 신동일 외에서는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를 주목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혼재된 언어’라는 뜻의 링구아 프랑카는 현 시대의 언어 현상을 잘 반영한 용어라고 하겠다. 곧 직장이든 학교든 소속된 곳에서 다양한 개인들의 모어, 제2언어, 지역 방언, 기타 정체불명의 혼합 언어에 노출되면서 접촉 언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신동일 외 2017, 1).

특히 ‘다언어사용 현상’은 언어 경관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 현상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 경관이 지닌 경관의 공공성이나 문어 중심의 특징은 언어 경관의 결과적 특징인데 반해, 다언어사용 현상은 언어 경관의 구성적 특징인 것이다.⁹⁾ 조태린(2015, 30)에서도 강조하였듯이, 다언어사용은 언어 경관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언어문화 현상인 것이다. 이는 다언어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난 횡단언어 양상으로 언어 경관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신동일 외 2017, 33).

더욱이 국어교육에서도 언어 경관의 세 가지 개념 요소 가운데 다언어사용 현상은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광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언어사용 현상이 다문화 사회의 언어 사용을 비롯하여 언어의 복합양식성, 그리고 언어와 힘의 관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언어, 복합양식성, 언어와 힘의 관계 등은 각각 국어교육에서 언어 문화(culture), 언어 양식(mode), 언어 이념(ideology)의 테제와 긴밀히 연결되며 국어교육적 내용으로 구성될 여지가 상당하다. 일련의 논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언어 경관의 개념과 국어교육적 관련성을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

<표 1> 언어 경관의 개념과 국어교육적 관련성

언어 경관의 개념		언어 경관 개념의 국어교육적 관련성
요소	의미	
경관의 공공성	특정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표현된 언어 자원	◦ 실제적(authentic) 언어 자료
문어 중심	언어 경관에 사용된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성 언어	◦ 언어의 양식과 매체 언어의 특징
다언어사용 현상	다양한 문화와 양식의 언어 사용 양상과 언어 표현에 내포된 힘의 관계	◦ 언어의 다양성과 복합양식성 ◦ 다문화 사회의 언어 특징 ◦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

9) 언어 경관의 세 가지 개념 요소 가운데 경관의 공공성은 ‘사회적 측면’을, 문어 중심은 ‘언어적 측면’을 나타내며, 다언어사용 현상은 ‘사회언어적 특징’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언어 경관에서 다언어사용 현상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듯 언어와 사회의 학제 간 연구로서 언어 경관이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국어교육에서도 언어 경관의 다언어사용 현상을 주목하는 일은 어찌면 당연하다.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는 언어 경관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경관의 공공성, 문어 중심, 다언어사용 현상’이라는 언어 경관의 세 개념 요소를 세분화해 보았다. 언어 경관에 대한 연구는 경관의 관점에서 ‘특정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모든 표현된 언어’를 자원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상정한다. 시의적으로는 다언어 사용 현상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언어의 모습’을 드러내고 특히 ‘다양한 언어의 사용 양상이 내포한 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다언어사용 현상으로서의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적으로 언어 문화, 언어 양식, 그리고 언어 이념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사회언어학을 기반으로 구성된 언어의 다양성에 관한 교육 내용이나 다문화 언어 사용에 관한 교육 내용과 관련이 깊다. 또한 언어 경관에 쓰인 언어의 복합양식성(multimodality)을 이해하고, 학습자가 직접 언어 경관을 수용하고 생산하며, 보다 타당한 언어 경관의 사용에 대해 인식(aware)하는 차원을 포함한다. 이는 언어 경관의 다언어 사용이 언어의 관계적 특성이 보이는 힘의 관계와 내포된 이념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은 학습자가 언어의 가치, 이념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효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열어줄 것이다.

Ⅲ. 언어 경관과 관련된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검토

이 장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경관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언어 경관과 국어교육 내용의 접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언어 경관의 개념 가운데 특히 다언어사용 현상에 집중하여 국어교육 하위 영역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다음,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찾아보기로 한다.

- ㉠ 언어의 다양성과 복합양식성: 언어와 매체
- ㉡ 다문화 사회의 언어 특징: 화법과 작문
- ㉢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 언어와 매체, 독서

㉠ 언어의 다양성은 사회언어학적 변인(sociolinguistic variation), 즉 성별, 나이, 계층, 직업 등에 따른 언어 양상에 관한 내용이므로 문법(언어) 영역에서, ㉡ 언어의

복합양식성은 매체 언어의 기본 특성에 해당하므로 매체 관련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문화 사회의 언어 특징은 공동체의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 국어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화법과 작문 등의 언어 표현에 대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는 언어 사용의 이면적 의미나 텍스트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읽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와 매체 및 독서 과목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표 2> 언어 경관 관련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추출

	성취기준	주요 내용
㉡	[12언매03-04]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매체 언어의 표현, 이해, 향유
	[12언매04-03]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매체 언어의 가치,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¹⁰⁾	지역, 세대, 성별, 계층, 문화 차이
㉢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는다.	필자의 숨겨진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비판적 읽기
㉣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등을 비판하며 읽는다.	필자의 숨겨진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비판적 읽기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매체 문화의 비판적 이해

10) 후술하겠지만 [12언매02-09]는 문화적 변인에 따른 언어 사용의 특징을 다룬다는 점에서 ㉠ 다문화사회의 언어 특징과도 연관된다.

위 <표 2>는 언어 경관과 관련된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한 것이다.¹¹⁾ 각 성취기준이 지닌 국어교육적 의미를 바탕으로 언어 경관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에서 ‘언어의 복합양식성’의 경우, 매체 언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과 관련된 [12언매03-04]에서 언어 경관과의 접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성취기준이 매체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소통 활동과, 매체 언어를 지속적으로 즐기는 향유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 경관은 그 자체로서 복합양식 텍스트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언어 경관을 소통의 질료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매체 언어의 표현과 이해는 학습자의 창의성과 심미성을 강조하는바, 새로운 형태의 언어 표현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지닌 언어 경관이 직접 관련된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12언매04-03]의 경우 [12언매03-04]와 대응되는 ‘태도’ 관련 성취기준으로, 매체 언어의 가치와 매체 문화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언어 경관과 관련된 내용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 경관에 관심을 기울이고 언어 경관을 중요한 매체 문화의 하나로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면 ‘복합양식 텍스트의 수용, 생산, 태도’의 성취기준은 언어 경관이 단순히 활용되는 차원을 넘어서 언어 경관 자체가 복합양식 텍스트 소통과 소통 과정의 태도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¹²⁾

한편 ㉯에서 언어의 다양성’은 문법 영역에서 사회언어학을 기반에 둔 성취기준인 [12언매02-09]와 관련이 깊다. 이 성취기준은 지역의 차이, 세대나 성별 또는 계층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름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교육부 2015, 112). 지역, 세대, 성별, 계층 등은 사회언어학적 변인에 해당되는데, 문법 영역은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주로 어휘나 담화의 교육 내용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언어 경관은 어휘나 담화가 담긴 국어 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언어 경관을 활용하여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탐구할 수 있는 교육이 실천될 수 있다.

④ ‘다문화 사회의 언어 특징’의 경우 언어 경관과 관련해서는 [12화작04-03] 및 [12언매

11) 여기에서는 국어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2) 이와 관련하여 옥현진 외(2017, 39)에서는 동일한 텍스트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호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의미의 전달 양상이 상이해진다고 하였다. 언어 경관의 다기호적, 다언어적 특성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복합양식 교육 내용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02-09)를 활용할 수 있다. [12언매02-09]는 위에서 살펴본 사회언어학적 변인 가운데 ‘문화적인 차이’에서 다문화 교육과 관련이 있다. [12화작04-03]은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관습’과 관련하여 다문화 언어문화에 대한 구어 및 문어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 내용으로 적용 가능하다. 이들 성취기준들은 언어 경관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를 탐구하거나 표현된 언어의 공동체 관습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언어 경관이 대상 국어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 경관에 표현된 모국어와 외국어의 병기 현상 등을 다문화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교수·학습이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는 다양한 언어가 서로 마주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의미가 모종의 의도성이나 이념을 드러낸다는 힘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12독서02-03], [12언매03-06]에서 언어 경관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12독서02-03]은 필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읽기, 글을 읽고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기 등에서, [12언매03-06]은 매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서 그 관련성이 구체화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판적 이해’를 중심 내용 요소로 삼고 있다. 비판적 이해는 텍스트를 통찰하는 사고 과정으로, 텍스트에 표현된 언어의 이면적 의미를 분석하고, 텍스트가 소통되는 맥락을 면밀히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텍스트가 배태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Fairclough 1992, 92). 비판적 이해의 사고 과정에서 언어 경관은 그 자체로서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를 담고 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언어 경관은 비판적 이해에 관한 성취기준의 중요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언어 경관과 관련된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 내용 요소를 종합하면, 첫째 언어 경관은 활용 가능한 국어 자료의 한 종류로서 기존의 관련 성취기준에 실제적 언어 자료로 기능하며, 둘째 언어 경관은 복합양식 텍스트 및 비판적 이해의 중요 교육 내용으로 자리매김한다. 곧 언어 경관은 ‘첫째’와 관련하여 ‘국어 규범’, ‘사회언어학적 변인에 따른 어휘와 담화’, ‘다문화 국어교육의 자료’ 등의 교육에서 실제적 언어 자료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둘째’의 경우 ‘복합양식 텍스트의 소통’, ‘텍스트의 비판적 이해’를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교육 내용을 담지한 교육의 질료로 적용된다. 이는 ‘첫째’와 달리 언어 경관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 실제적 언어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복합양식 텍스트의 새로운 유형으로서 문자 언어와 시각 언어 및 음성 언어가 혼재된 언어 경관이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고, 언어 경관에 숨은 의도와 언어 경관이 발현하는 사회적 이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경관이 ‘활용’과 ‘내용’으로서 국어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국어교육적 활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은 기존의 국어교육 성취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언어 경관이 지닌 실제성은 교육 현장에서 해당 성취기준의 교수 학습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에서 시의적으로 강조되는 ‘비판적 언어인식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교육 내용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언어 경관이 언어의 공공성을 비롯하여 횡단 언어의 국어교육적 적용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서 구성 가능한 것이다.

IV.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을 적용한 내용 요소 제안

이제 언어 경관을 적용하여 국어교육의 내용 요소를 구안해 보도록 하자. 언어 경관을 국어교육의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에서 살핀 국어교육적 활용이 아닌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앞의 II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언어 경관이 국어 자료의 위상을 넘어서 국어교육 내용을 보다 실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언어 자원이기 때문이다.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내용화, 즉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은 크게 ‘복합양식 텍스트’와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으로 범주화된다. 복합양식 텍스트는 다언어사회의 언어 경관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및 향유의 내용 요소를,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는 지역, 세대, 성별, 계층, 그리고 다문화 언어 사용에서 이면적 의미나 이념성을 내용 요소로 지닌다. 이와 같은 각 범주의 내용 요소에 대하여 이 연구는 언어 경관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국어교육적으로 개념화한다.

-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
- 언어 경관의 타당성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은 복합양식 텍스트의 한 유형으로서 언어 경관을 상징하고 복합양식 텍스트의 이해와 표현, 그리고 향유에 언어 경관의 특성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언어 경관이 지닌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음성 언어의 복합양식성이 공공의 경관을 이루는

텍스트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학습하는 데 집중한다. Van Leeuwen(2014, 288)에서 언급한 복합양식 담화분석(multimodal discourse analysis)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언어 경관은 다양한 기호 자원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언어문화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 경관의 타당성’은 언어 경관에 사용된 언어의 타당성을 교육하는 내용이다. 곧 언어 경관에서 언어 사용의 타당성을 탐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언어 사용의 타당성은 Ivanić(1990, 126)의 언어에 대한 관점인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에 따른 것으로, 언어 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는지,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이념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언어에 내포된 힘의 관계는 언어의 타당성에 대한 탐구와 직결된다.

먼저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의 국어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국어과 교육과정 항목을 고려하여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에 관한 국어교육 내용 구성

내용 범주	현행 교육과정 항목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	· 매체 언어의 이해	언어와 기호의 관계 이해
		국어와 다른 언어의 관계 이해
	· 매체의 가치와 매체 문화 향유	다양한 언어와 기호의 혼용에 따른 새로운 언어문화 향유

위 <표 3>에 대하여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에 관한 국어교육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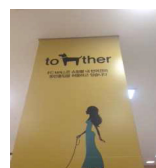
첫째, ‘언어와 기호의 관계 이해’는 언어 경관이 문자 언어를 비롯하여 시각 언어 및 음성 언어가 혼재되어 쓰이며, 더 나아가 픽토그램(pictogram)이나 기호 문자와 같은 다양한 기호 자원(semiotic resource)을 하나의 언어 경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혜선(2019, 5)는 언어 경관을 공공 표지, 민간 표지, 상업 광고, 포스터 등에 나타난 문자 언어와 그림문자(픽토그램)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양민호·김준환(2021b, 487)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마저 언어 경관의 대상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정현(2021, 194)는 간판과 게시판의 언어 경관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시각화, 미각화 등 감각을 통한 이미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 바 있다.

이때 언어와 기호의 관계 이해는, 픽토그램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호 자체가 아닌 그들에 사용된 언어와 언어 및 기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언어 경관에 쓰인 언어와 기호가 갖는 관계에 의해 어떠한 ‘의미’가 형성되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복합양식성 교육의 지향점이다. 이를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현선(2014, 67)에서는 복합양식 문식성이란 새로운 문식성이라기보다는 문식성 자체가 복합양식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였다. 언어 경관 또한 그 자체로서 내재한 복합양식적 특징을 지니며, 이는 언어와 기호가 한데 어우러져 발현하는 다양한 관계성을 학습자가 탐구하는 일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물론 언어와 기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기존의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에 수렴될 수 있겠지만, 언어 경관은 본연적으로 정보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양식성의 특성을 본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교육 자료이자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¹³⁾

둘째, ‘국어와 다른 언어의 관계 이해’는 언어 경관이 다언어 사용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따른 내용 요소이다. 이는 언어 경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간판 언어를 대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간판 언어가 국어와 다른 언어가 혼용된 형태를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호(2019, 141)에서는 대학 주변의 음식점 간판에서 ‘스시(寿司)(보노)’, ‘배고프麵(면)’ 등과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혼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국어와 일본어가 혼용된 표기가 일본어 혹은 한국어 단일어로만 표기된 것과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점과 대학 주변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이 세련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언어의 표기 양상과 관련하여 강혜선(2019, 14)는 Backhaus(2007, 91)에 의거하여 언어 경관에 사용된 언어 표기의 방법을 ‘동음어, 혼합, 다중어, 단일어’로 구분하고 있다. 제주의 실제 간판 언어를 예로 들며, ‘멀티샵 杂货店’은 동음어 표기를, ‘간또 오뎡Bar’는 혼합 표기를, ‘팡 gallery’는 다중어 표기를, 그리고 ‘brill-iant’는 단일어 표기의 언어 경관 사례에 해당한다(강혜선 2019, 15-17). 이러한 언어 표기의 다언어 사용 범주는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에 적용하여 학습자가 다언어 표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¹⁴⁾

13) 언어와 기호의 관계와 관련하여 O'Halloran(2011, 122)는 복합양식 텍스트 분석의 출발점이 기호 자원의 분석이며, 이는 곧 해당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와 기호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에 의해 구성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지현숙(2019, 436)에 제시된 오른쪽과 같은 복합 쇼핑물의 언어 경관은 강아지의 픽토그램과 건주의 그림이 영어 및 국어 설명과 어우러져 이용객들에게 친근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언어와 기호의 혼용에 따른 새로운 언어문화 향유’는 앞서 살펴본 ‘첫째’와 ‘둘째’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함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태도 관련 내용이다. 곧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 경관에 사용된 픽토그램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국어와 함께 이해하고, 국어와 혼용된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곧 새로운 언어의 모습이 지금, 여기를 지배하고 미래, 거기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지현숙(2019, 423)은 언어 경관이 각종의 횡단언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언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보면 학습자가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을 통해 함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위 ‘새로운 언어문화’에 대한 향유는 언어에 대한 기존의 틀을 넘어서 다양한 기호 자원의 혼용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함을 유연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정의적 교육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곧 새로운 언어 형태를 규범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언어문화로서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니는 내용 요소이다.¹⁵⁾

다음으로 ‘언어 경관의 타당성’의 국어교육 내용을 다음 <표 4>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4〉 ‘언어 경관의 타당성’에 관한 국어교육 내용 구성

내용 범주	현행 교육과정 항목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
언어 경관의 타당성	· 필자의 숨겨진 의도 및 사회문화적 이념의 비판적 읽기	실재 및 가상 공간의 언어 경관에서 어휘 사용의 타당성 탐구
	· 매체 문화의 비판적 이해	

14) 다만 ‘국어와 다른 언어의 관계’가 언어의 양식(mode)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양식(mode)에 대한 국어교육적 개념을 확충해 나가야겠지만, 이것이 다언어 표기의 현상으로 볼 경우에는 국어와 다른 언어가 맺는 독특한 기호적 의미를 복합양식성에서 충분히 다룰 수도 있다고 본다. 다양한 언어 및 기호를 포함하는 양식(mode)에 대한 후속 논의를 기약한다.

15) 이와 관련하여 최경봉(2021, 242)에서는 다원화 상황에서는 같은 한국어를 쓰더라도 언제든 이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 차이를 중재하는 차원에서 규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종의 공동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대의 확립화된 언어관이 아닌 세계화에 따른 다언어 사용의 상황에서 복합양식성을 지닌 언어 경관의 경우 이러한 관점이 유효하다고 하겠다.

‘언어 경관의 타당성’은 위 표의 현행 교육과정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 등 국어교육에서 꾸준히 강조해 온 비판적 이해에 관한 교육 내용 요소를 수렴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 경관은 적용의 내용 요소는 기존 읽기나 매체 관련 내용을 포섭하되, 특히 ‘실재 및 가상 공간’과 ‘어휘 사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 내용의 구성이 가능하다.

실재 및 가상 공간을 강조한 것은 언어 경관이 ‘공간’의 개념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과 같은 실재 공간과 더불어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광고 문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쓰인 안내 문구 등을 포함한다.¹⁶⁾ 그리고 어휘 사용에 주목하는 것은 언어 경관이 압축적인 언어 표현으로 중심 어휘를 표출하는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재 공간의 간판 언어나 표지판, 건물의 부서명과 같은 안내판 등은 어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상 공간의 경우 가령 광고 언어와 같은 언어 경관은 이러한 어휘 중심의 표현 방식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가상 공간이 화면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인 공간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 경관의 타당성은 국어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과 긴밀히 관련된다. 타당한 어휘 사용 교육은 어휘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의 모습을 탐구하는 어휘 교육의 내용 범주이다(구본관 외 2014, 94). 쉽게 말해서 ‘어휘를 통해 세상을 읽는’ 교육을 지향하며, 학습자가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거나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용된 어휘에 어떠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휘 사용이 특정한 사회문화적 이념을 내포하지는 않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이는 신명선(2009, 20)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태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개념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개념화의 결과가 어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어휘 사용 전략에 바탕을 둔다. 언어 경관이 어휘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언어 접촉에 따른 이념성’이 드러나는 텍스트라는

16)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언어 경관 분석은 양민호·김준환(2021b)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민호·김준환(2021b, 488-489)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다언어화 항목, 정보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표기 정보 가령 직관적 아이콘 사용 여부를 언어 경관의 중요 연구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상 공간의 언어 경관은 시의적으로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 플랫폼에서도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유리(2021, 250)에서는 의사소통 기술 발전이 의사소통 방식과 활동을 추동한다는 Fairclough(2003)을 원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전 미디어와 구분되는 담화 양상을 지녔다고 하면서, 〈제페토〉 메타버스에서 사용자 정체성을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논의한 바 있다. 메타버스의 발전은 언어 경관의 신 미디어화를 이끌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가상 공간의 언어 경관 논의는 비판적 이해와 관련하여 향후 중요한 연구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사실은(신동일 외 2017, 163),¹⁷⁾ 학습자가 언어 경관을 통해 언어 경관 계시자의 어휘 사용 전략을 유추하고, 언어 경관이 형성하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이념적 갈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휘 사용의 타당성 탐구 활동의 세 단계인 ‘어휘 개념화 파악 활동’, ‘어휘 비교 활동’, ‘어휘 바꾸기 활동’ 등을 토대로(신명선 2020, 269-274), 언어 경관의 타당성 탐구의 내용 요소를 실제 교수-학습으로 실현할 수 있다. 예컨대, 안산시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인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라는 실재 언어 경관은 ‘외국인’이라는 어휘의 타당성을 탐구할 수 있다. 왜 안산시는 ‘다문화’에서 ‘외국인’이라는 어휘를 선택했을까, 외국인과 다문화의 어휘 차이가 어떠한 이념적 차이를 낳을까, 두 어휘의 차이가 안산시의 지역적 정책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등의 어휘 타당성 탐구 활동을 실현할 수 있다.¹⁸⁾

V. 연구의 요약과 남은 과제

지금까지 언어 경관을 이론적으로 살피고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내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언어 경관의 연구 영역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국어교육적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언어 경관은 경관의 공공성에 따른 문자 언어, 시각 언어 및 음성 언어를 가리키며 특히 다언어사용 현상을 특징적으로 갖는다. 이러한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적으로 실제적 국어 자료로서 언어 표현의 특성을 포함하며 복합양식 텍스트와 언어의

17) 일반적으로 권력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은 특정 언어에 대한 중요성, 권력, 우월성, 과학성 등의 가치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좀 더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부과된 이데올로기의 지배에 반항하며 자신들의 무시된 정체성을 또 다른 언어적 표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신동일 외 2017, 163).

18) 참고로 안산시는 2019년 1월 기존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개편하였다. 결혼이주민 등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민의 포괄적 지원을 취지로 해당 언어 경관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명명은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에 종속되는 인상을 주어, 다문화와 상호성을 강조하는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이해가 바로 언어 경관의 타당성에서 추구하는 교수-학습의 방향성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습자라면, 지현숙(2019, 423)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사소통 참여자의 정체성과 권리, 힘 등에 관심을 갖는 횡단 언어와 언어 경관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는 국어교육에서 강조하는 삶으로서의 교육에 입각할 때, 언어 경관이 ‘지역 기반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다양성, 그리고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에 관한 내용과 관련을 이룬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 경관과 관련된 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어 규범, 언어의 다양성은 기존의 성취기준의 실행을 위한 ‘국어교육적 활용으로서의 언어 경관’과, 복합양식 텍스트, 언어 접촉과 힘의 관계는 성취기준의 구성을 추동하는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에 집중하여, ‘언어 경관의 복합양식성’과 ‘언어 경관의 타당성’으로 내용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별로 언어 경관 적용의 내용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번 논의는 다언어 사회의 주목 받는 언어 현상인 언어 경관의 의미를 고찰하고 국어교육적 적용 방향을 강구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아직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의 연구는 출발점 단계이지만 차기 교육과정(2022년 개정)에서 개설될 ‘언어생활 탐구’ 과목의 성격을 보건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251), 학습자의 지역적 실생활 언어 자료인 언어 경관은 상당한 국어교육적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본다. 이는 언어 경관이 ‘국어’의 양식에 대한 다변화와 새로운 언어문화성을 시의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언어사용 현상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언어 경관은 국어교육 대상 텍스트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연구는 언어 경관과 국어교육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보다 깊이 있게 전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언어 경관의 국어교육적 내용화에 집중하다보니, 자연스레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국어교육에서 언어 경관 연구와 관련이 있는 사회언어학, 국어 의식론 등에 대한 담론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지 못했다. 또한 언어 경관을 적용하여 제안한 국어교육 내용이 기존의 유관 내용과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있었다. 곧 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언어 경관 적용의 교육 내용을 수행적 교수-학습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직시하며, 이 연구는 아래 두 가지의 과제를 끝으로 부족한 논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적 국어 자료로서 언어 경관의 자료 수집과 체계화에 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제안한 활용 및 내용으로서의 언어 경관이 국어교육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 연구로서 언어 경관에 대한 국어 자료화가 필수적이다. 그간 이루어졌던 특정 지역의 언어 경관에 대한 언어-기호적 분석 자료로는 부족하다. 언어 경관의 다언어 사용 양상, 언어 경관과 언어적 힘의 관계, 온라인 언어 경관의 범주와 특징 등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어 경관이 마치 국어 규범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차원과 같은 국어 자료가 아니라, 언어의 창의성을 경험하고 타당한 어휘 사용을 탐구하는 장으로

언어 경관 연구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어의 공공성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와 관련하여, 언어 경관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수행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언어의 공공성은 국어 규범이나 정책의 문제에서부터 다언어 사회의 국어교육 방향성을 강구하는 중요한 이슈에 해당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그간 국어교육이 모국어로서의 국어에 주목해 왔다면 앞으로는 세계어로서의 국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횡단언어 현상으로서 국어는 더 이상 모국어 화자의 전유물이 아닌바, 국어교육 또한 그 대상으로서의 언어가 지닌 공공성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언어 경관은 일련의 공공 언어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에서 실천적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국어교육에 대한 면면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 강혜선. 2019. 언어 경관 연구: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4(2), 1-25.
- 교육부. 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별책 5]).
- 구본관 외. 2014. 어휘교육론. 사회평론.
- 국립국어원. 2006. 언어경관조성 장기계획연구.
- 김정현. 2021. 언어경관에 보이는 화용에 관한 연구: 간판과 게시판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5, 191-205.
- 신동일 외. 2017. 접촉의 언어학: 다중언어사회의 교육과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명선. 2009. 국어 표현과정에서 작용하는 어휘 사용 기제와 그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9, 91-131.
- 신명선. 2020. '어휘 사용의 타당성 탐구 활동'의 교육 내용 설계 방향. 교육문화연구 26(1), 261-288.
- 신유리. 2021. 메타버스 담화에서 참여자의 정체성 연구: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사용하는 〈제페토〉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76, 249-278.
- 양민호. 2020. 한일 언어경관 연구의 新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역사사회언어학적 방법과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일본학 51, 61-81.
- 양민호·김준환. 2021a. 해양관광도시의 도로표지 언어경관 연구: 부산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9(4), 75-86.
- 양민호·김준환. 2021b.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언어경관에 관한 연구. 차세대컨텐츠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10(5), 485-496.
- 옥현진 외. 2017. 디지털 리터러시 표현 영역의 인지적 특성 탐색. 작문 연구 33, 31-63.
- 이자호. 2019. 대학 주변의 언어경관: 韓·日語를 혼용한 음식점명을 중심으로. 日本語學研究 66, 135-148.
- 정예원 외. 2021. 언어경관에 반영된 중국어 사용 인구의 공간적 분리: 서울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6(1), 113-121.
- 정현선. 2014.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의의와 방법. 우리말교육현장연구 8(2), 61-93.
- 조태린. 2015. 언어 경관에 대한 언어 정책적 접근: 다언어사용 정책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학 40, 27-50.

- 지현숙. 2019. 다중언어 시대 한국의 횡단언어 경관에 관한 고찰. 국어 교육 165, 419-442.
- 최경봉. 2021. 국어 환경의 변화와 규범 정책의 가능성. 우리어문연구 70, 221-25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연구보고 CRC 2022-2).
- Backhaus, P. (ed.). 2007. Linguistic landscape: a comparative study of urban multilingualism in Tokyo. Clevedon-Buffalo-Toronto: Multilingual Matters Ltd.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Fill, A. 1993. Ökolinquistik: Eine Einführung, 박육현 역. 1999. 생태언어학. 한한국문화사.
- Haugen, E. 1972. The ecology of language. The Ecolinguistics reader: language, ecology and environment, 57-66.
- Ivanič, R. 1990. Critical language awareness in action. In R. Carter (Ed.),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the curriculum: The LINC reader, London: Hodder & Stoughton.
- Landry, R., & Bourhis, R. 1997. Linguistic landscape and ethnolinguistic vitality: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6(1), 23-49.
- O'Halloran, K. 2011.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In K. Hyland & B. Paltridge (Eds.), Bloomsbury companion to discourse analysis, London: Bloomsbury.
- Van Leeuwen, T. 2014.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multimodality. In C. Hart & P. Cap(Eds.), Contemporary critical discourse studies, London: Bloomsbury.

● 투고일: 2022.07.29. ● 심사일: 2022.07.30. ● 게재확정일: 2022.08.23.

| Abstract |

Linguistic Landscape in Multilingual Society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Construction

Kim Kyoohoon (Daeg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linguistic landscape which is peculiar language phenomena in the multilingual society, and to construct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tries to extract conceptual elements of the linguistic landscape by documentary research, and tries to construct contents elem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sidering a relation of Korean education by curriculum research. As a result, two ways for Korean subject curriculum application of the linguistic landscape are established, “Linguistic landscap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al use” and “Linguistic landscape as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And as the contents category of the linguistic landscape as Korean language educational contents, “Multimodality of the linguistic landscape” and “Validity of the linguistic landscape” are set up, and concrete contents elements in each category are suggested. This study has a meaning to design the practical educational contents through the linguistic landscape in an era of diversity of language modes and language culture.

〈Key words〉 Linguistic landscape, Public language, Multilingualism, Authentic Korean materials, Multimodal text, Validity of language use

Archives

1.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Vladimir Putin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7월 12일 발표한 글로, 여기서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공통의 역사적 뿌리와 정신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 전적으로 한 민족(one people)임을 강조, 두 나라의 불가분성을 여러 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푸틴이 평소 견지해 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자행되고 있는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근원적인 야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Speech by the President of Ukraine at a mee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4월 5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연설이다. 여기서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차별 공격의 잔인성과 피해상황을 소상히 고발하고,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죽음의 권리로 바꾸는 국가와 거래하고 있다.”고 러시아를 강력하게 규탄, 이러한 사태가 방지된다면 UN은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하루빨리 UN의 권위가 회복되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On the Historical Unity of Russians and Ukrainians

Vladimir Putin

During the recent Direct Line, when I was asked about Russian-Ukrainian relations, I said that Russians and Ukrainians were one people – a single whole. These words were not driven by some short-term considerations or prompted by the current political context. It is what I have said on numerous occasions and what I firmly believe. I therefore feel it necessary to explain my position in detail and share my assessments of today's situatio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wall that has emerged in recent years between Russia and Ukraine, between the parts of what is essentially the same historical and spiritual space, to my mind is our great common misfortune and tragedy. These are, first and foremost, the consequences of our own mistakes made at different periods of time. But these are also the result of deliberate efforts by those forces that have always sought to undermine our unity. The formula they apply has been known from time immemorial – divide and rule. There is nothing new here. Hence the attempts to play on the “national question” and sow discord among people, the overarching goal being to divide and then to pit the parts of a single people against one another.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and look into the future, we need to turn to history. Certainly, it is impossible to cover in this article all the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over more than a thousand years. But I will focus on the key, pivotal moments that are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both

in Russia and Ukraine.

Russians, Ukrainians, and Belarusians are all descendants of Ancient Rus, which was the largest state in Europe. Slavic and other tribes across the vast territory – from Ladoga, Novgorod, and Pskov to Kiev and Chernigov – were bound together by one language (which we now refer to as Old Russian), economic ties, the rule of the princes of the Rurik dynasty, and – after the baptism of Rus – the Orthodox faith. The spiritual choice made by St. Vladimir, who was both Prince of Novgorod and Grand Prince of Kiev, still largely determines our affinity today.

The throne of Kiev held a dominant position in Ancient Rus. This had been the custom since the late 9th century. The Tale of Bygone Years captured for posterity the words of Oleg the Prophet about Kiev, “Let it be the mother of all Russian cities.”

Later, like other European states of that time, Ancient Rus faced a decline of central rule and fragmentation. At the same time, both the nobility and the common people perceived Rus as a common territory, as their homeland.

The fragmentation intensified after Batu Khan’s devastating invasion, which ravaged many cities, including Kiev. The northeastern part of Rus fell under the control of the Golden Horde but retained limited sovereignty. The southern and western Russian lands largely became part of the Grand Duchy of Lithuania, which – most significantly – was referred to in historical records as the Grand Duchy of

Lithuania and Russia.

Members of the princely and “boyar” clans would change service from one prince to another, feuding with each other but also making friendships and alliances. Voivode Bobrok of Volyn and the sons of Grand Duke of Lithuania Algirdas – Andrey of Polotsk and Dmitry of Bryansk – fought next to Grand Duke Dmitry

Ivanovich of Moscow on the Kulikovo field. At the same time, Grand Duke of Lithuania Jogaila – son of the Princess of Tver – led his troops to join with Mamai. These are all pages of our shared history, reflecting its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nature.

Most importantly, people both in the western and eastern Russian lands spoke the same language. Their faith was Orthodox. Up to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the unified church government remained in place.

At a new stage of historical development, both Lithuanian Rus and Moscow Rus could have become the points of attrac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territories of Ancient Rus. It so happened that Moscow became the center of reunification, continuing the tradition of ancient Russian statehood. Moscow princes – the descendants of Prince Alexander Nevsky – cast off the foreign yoke and began gathering the Russian lands.

In the Grand Duchy of Lithuania, other processes were unfolding. In the 14th century, Lithuania's ruling elite converted to Catholicism. In the 16th century, it signed the Union of Lublin with the Kingdom of Poland to form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The Polish Catholic nobility received considerable land holdings and privileges in the territory of Rus. In accordance with the 1596 Union of Brest, part of the western Russian Orthodox clergy submitted to the authority of the Pope. The process of Polonization and Latinization began, ousting Orthodoxy.

As a consequence, in the 16-17th centuries, the liberation movement of the Orthodox population was gaining strength in the Dnieper region. The events during the times of Hetman Bohdan Khmelnytsky became a turning point. His supporters struggled for autonomy from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In its 1649 appeal to the king of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the Zaporizhian Host demanded that the rights of the Russian Orthodox population

be respected, that the voivode of Kiev be Russian and of Greek faith, and that the persecution of the churches of God be stopped. But the Cossacks were not heard.

Bohdan Khmelnytsky then made appeals to Moscow, which were considered by the Zemsky Sobor. On 1 October 1653, members of the supreme representative body of the Russian state decided to support their brothers in faith and take them under patronage. In January 1654, the Pereyaslav Council confirmed that decision. Subsequently, the ambassadors of Bohdan Khmelnytsky and Moscow visited dozens of cities, including Kiev, whose populations swore allegiance to the Russian tsar. Incidentally, nothing of the kind happened at the conclusion of the Union of Lublin.

In a letter to Moscow in 1654, Bohdan Khmelnytsky thanked Tsar Aleksey Mikhaylovich for taking “the whole Zaporizhian Host and the whole Russian Orthodox world under the strong and high hand of the Tsar”. It means that, in their appeals to both the Polish king and the Russian tsar, the Cossacks referred to and defined themselves as Russian Orthodox people.

Over the course of the protracted war between the Russian state and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some of the hetmans, successors of Bohdan Khmelnytsky, would “detach themselves” from Moscow or seek support from Sweden, Poland, or Turkey. But, again, for the people, that was a war of liberation. It ended with the Truce of Andrusovo in 1667. The final outcome was sealed by the Treaty of Perpetual Peace in 1686. The Russian state incorporated the city of Kiev and the lands on the left bank of the Dnieper River, including Poltava region, Chernigov region, and Zaporozhye. Their inhabitants were reunited with the main part of the Russian Orthodox people. These territories were referred to as “Malorossia” (Little Russia).

The name “Ukraine” was used more often in the meaning of the Old Russian word “okraina” (periphery), which is found in written sources from the 12th century,

referring to various border territories. And the word “Ukrainian”, judging by archival documents, originally referred to frontier guards who protected the external borders.

On the right bank, which remained under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the old orders were restored, and social and religious oppression intensified. On the contrary, the lands on the left bank, taken under the protection of the unified state, saw rapid development. People from the other bank of the Dnieper moved here en masse. They sought support from people who spoke the same language and had the same faith.

During the Great Northern War with Sweden, the people in Malorossia were not faced with a choice of whom to side with. Only a small portion of the Cossacks supported Mazepa’s rebellion. People of all orders and degrees considered themselves Russian and Orthodox.

Cossack senior officers belonging to the nobility would reach the heights of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careers in Russia. Graduates of Kiev-Mohyla Academy played a leading role in church life. This was also the case during the Hetmanate – an essentially autonomous state formation with a special internal structure – and later in the Russian Empire. Malorussians in many ways helped build a big common country – its statehood, culture, and science. They participated in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Urals, Siberia, the Caucasus, and the Far East. Incidentally, during the Soviet period, natives of Ukraine held major, including the highest, posts in the leadership of the unified state. Suffice it to say that Nikita Khrushchev and Leonid Brezhnev, whose party biography was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Ukraine, led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CPSU) for almost 30 years.

In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following the wars with the Ottoman Empire, Russia incorporated Crimea and the lands of the Black Sea region, which became known as Novorossiya. They were populated by people from all of the

Russian provinces. After the partitions of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the Russian Empire regained the western Old Russian lands, with the exception of Galicia and Transcarpathia, which became part of the Austrian – and later Austro-Hungarian – Empire.

The incorporation of the western Russian lands into the single state was not merely the result of political and diplomatic decisions. It was underlain by the common faith, shared cultural traditions, and – I would like to emphasize it once again – language similarity. Thus, as early as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one of the hierarchs of the Uniate Church, Joseph Rutsky, communicated to Rome that people in Moscovia called Russians from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their brothers, that their written language was absolutely identical, and differences in the vernacular were insignificant. He drew an analogy with the residents of Rome and Bergamo. These are, as we know, the center and the north of modern Italy.

Many centuries of fragmentation and living within different states naturally brought about regional language peculiarities,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dialects. The vernacular enriched the literary language. Ivan Kotlyarevsky, Grigory Skovoroda, and Taras Shevchenko played a huge role here. Their works are our common literary and cultural heritage. Taras Shevchenko wrote poetry in the Ukrainian language, and prose mainly in Russian. The books of Nikolay Gogol, a Russian patriot and native of Poltavshchyna, are written in Russian, bristling with Malorussian folk sayings and motifs. How can this heritage be divided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why do it?

The south-western lands of the Russian Empire, Malorussia and Novorossiia, and the Crimea developed as ethnically and religiously diverse entities. Crimean Tatars, Armenians, Greeks, Jews, Karaites, Krymchaks, Bulgarians, Poles, Serbs, Germans, and other peoples lived here. They all preserved their faith, traditions, and customs.

I am not going to idealise anything. We do know there were the Valuev Circular of 1863 and then the Ems Ukaz of 1876, which restricted the publication and importation of religious and socio-political literature in the Ukrainian language. But it is important to be mindful of the historical context. These decisions were taken against the backdrop of dramatic events in Poland and the desire of the leaders of the Polish national movement to exploit the “Ukrainian issue” to their own advantage. I should add that works of fiction, books of Ukrainian poetry and folk songs continued to be published. There is objective evidence that the Russian Empire was witnessing an activ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Malorussian cultural identity within the greater Russian nation, which united the Velikorussians, the Malorussians and the Belorussians.

At the same time, the idea of Ukrainian people as a nation separate from the Russians started to form and gain ground among the Polish elite and a part of the Malorussian intelligentsia. Since there was no historical basis – and could not have been any, conclusions were substantiated by all sorts of concoctions, which went as far as to claim that the Ukrainians are the true Slavs and the Russians, the Muscovites, are not. Such “hypotheses” became increasingly used for political purposes as a tool of rivalry between European state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the Austro-Hungarian authorities had latched onto this narrative, using it as a counterbalance to the Polish national movement and pro-Muscovite sentiments in Galicia. During World War I, Vienna played a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so-called Legion of Ukrainian Sich Riflemen. Galicians suspected of sympathies with Orthodox Christianity and Russia were subjected to brutal repression and thrown into the concentration camps of Thalerhof and Terezin.

Further developments had to do with the collapse of European empires, the fierce civil war that broke out across the vast territory of the former Russian Empire, and foreign intervention.

After the February Revolution, in March 1917, the Central Rada was established in Kiev, intended to become the organ of supreme power. In November 1917, in its Third Universal, it declared the creation of the Ukrainian People's Republic (UPR) as part of Russia.

In December 1917, UPR representatives arrived in Brest-Litovsk, where Soviet Russia was negotiating with Germany and its allies. At a meeting on 10 January 1918, the head of the Ukrainian delegation read out a note proclaiming the independence of Ukraine. Subsequently, the Central Rada proclaimed Ukraine independent in its Fourth Universal.

The declared sovereignty did not last long. Just a few weeks later, Rada delegates signed a separate treaty with the German bloc countries. Germany and Austria-Hungary were at the time in a dire situation and needed Ukrainian bread and raw materials. In order to secure large-scale supplies, they obtained consent for sending their troops and technical staff to the UPR. In fact, this was used as a pretext for occupation.

For those who have today given up the full control of Ukraine to external forces, it would be instructive to remember that, back in 1918, such a decision proved fatal for the ruling regime in Kiev. With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occupying forces, the Central Rada was overthrown and Hetman Pavlo Skoropadskyi was brought to power, proclaiming instead of the UPR the Ukrainian State, which was essentially under German protectorate.

In November 1918 – following the revolutionary events in Germany and Austria-Hungary – Pavlo Skoropadskyi, who had lost the support of German bayonets, took a different course, declaring that “Ukraine is to take the lead in the formation of an All-Russian Federation”. However, the regime was soon changed again. It was now the time of the so-called Directorate.

In autumn 1918, Ukrainian nationalists proclaimed the West Ukrainian People's Republic (WUPR) and, in January 1919, announced its unification with the Ukrainian People's Republic. In July 1919, Ukrainian forces were crushed by Polish troops, and the territory of the former WUPR came under the Polish rule.

In April 1920, Symon Petliura (portrayed as one of the “heroes” in today's Ukraine) concluded secret conventions on behalf of the UPR Directorate, giving up – in exchange for military support – Galicia and Western Volhynia lands to Poland. In May 1920, Petliurites entered Kiev in a convoy of Polish military units. But not for long. As early as November 1920, following a truce between Poland and Soviet Russia, the remnants of Petliura's forces surrendered to those same Poles.

The example of the UPR shows that different kinds of quasi-state formations that emerged across the former Russian Empire at the time of the Civil War and turbulence were inherently unstable. Nationalists sought to create their own independent states, while leaders of the White movement advocated indivisible Russia. Many of the republics established by the Bolsheviks' supporters did not see themselves outside Russia either. Nevertheless, Bolshevik Party leaders sometimes basically drove them out of Soviet Russia for various reasons.

Thus, in early 1918, the Donetsk-Krivoy Rog Soviet Republic was proclaimed and asked Moscow to incorporate it into Soviet Russia. This was met with a refusal. During a meeting with the republic's leaders, Vladimir Lenin insisted that they act as part of Soviet Ukraine. On 15 March 1918,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 (Bolsheviks) directly ordered that delegates be sent to the Ukrainian Congress of Soviets, including from the Donetsk Basin, and that “one government for all of Ukraine” be created at the congress. The territories of the Donetsk-Krivoy Rog Soviet Republic later formed most of the regions of south-eastern Ukraine.

Under the 1921 Treaty of Riga, concluded between the Russian SFSR, the Ukrainian SSR and Poland, the western lands of the former Russian Empire were ceded to Poland. In the interwar period, the Polish government pursued an active resettlement policy, seeking to change the ethnic composition of the Eastern Borderlands – the Polish name for what is now Western Ukraine, Western Belarus and parts of Lithuania. The areas were subjected to harsh Polonisation, local culture and traditions suppressed. Later, during World War II, radical groups of Ukrainian nationalists used this as a pretext for terror not only against Polish, but also against Jewish and Russian populations.

In 1922, when the USSR was created, with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becoming one of its founders, a rather fierce debate among the Bolshevik leaders resulted in the implementation of Lenin's plan to form a union state as a federation of equal republics. The right for the republics to freely secede from the Union was included in the 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Creation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subsequently, in the 1924 USSR Constitution. By doing so, the authors planted in the foundation of our statehood the most dangerous time bomb, which exploded the moment the safety mechanism provided

by the leading role of the CPSU was gone, the party itself collapsing from within. A “parade of sovereignties” followed. On 8 December 1991, the so-called Belovezh Agreement on the Creation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was signed, stating that “the USSR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and a geopolitical reality no longer existed.” By the way, Ukraine never signed or ratified the CIS Charter adopted back in 1993.

In the 1920's-1930's, the Bolsheviks actively promoted the “localization policy”, which took the form of Ukrainization in the Ukrainian SSR. Symbolically, as part of this policy and with consent of the Soviet authorities, Mikhail Grushevskiy, former chairman of Central Rada, one of the ideologists of Ukrainian nationalism, who at a certain period of time had been supported by Austria-Hungary, was returned to the USSR and was elected member of the Academy of Sciences.

The localization policy undoubtedly played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of the Ukrainian culture, language and identity. At the same time, under the guise of combating the so-called Russian great-power chauvinism, Ukrainization was often imposed on those who did not see themselves as Ukrainians. This Soviet national policy secured at the state level the provision on three separate Slavic peoples: Russian, Ukrainian and Belorussian, instead of the large Russian nation, a triune people comprising Velikorussians, Malorussians and Belorussians.

In 1939, the USSR regained the lands earlier seized by Poland. A major portion of these became part of the Soviet Ukraine. In 1940, the Ukrainian SSR incorporated part of Bessarabia, which had been occupied by Romania since 1918, as well as Northern Bukovina. In 1948, Zmeyiniy Island (Snake Island) in the Black Sea became part of Ukraine. In 1954, the Crimean Region of the RSFSR was given to the Ukrainian SSR, in gross violation of legal norms that were in force at the time.

I would like to dwell on the destiny of Carpathian Ruthenia, which became part of Czechoslovakia following the breakup of Austria-Hungary. Rusins made up a considerable share of local population. While this is hardly mentioned any longer, after the liberation of Transcarpathia by Soviet troops the congress of the Orthodox population of the region voted for the inclusion of Carpathian Ruthenia in the RSFSR or, as a separate Carpathian republic, in the USSR proper. Yet the choice of people was ignored. In summer 1945, the historical act of the reunification of Carpathian Ukraine “with its ancient motherland, Ukraine” –as The Pravda newspaper put it –was announced.

Therefore, modern Ukraine is entirely the product of the Soviet era. We know and remember well that it was shaped – for a significant part – on the lands of historical Russia. To make sure of that, it is enough to look at the boundaries of the lands reunited with the Russian state in the 17th century and the territory of the Ukrainian SSR when it left the Soviet Union.

The Bolsheviks treated the Russian people as inexhaustible material for their social experiments. They dreamt of a world revolution that would wipe out national states. That is why they were so generous in drawing borders and bestowing territorial gifts. It is no longer important what exactly the idea of the Bolshevik leaders who were chopping the country into pieces was. We can disagree about minor details, background and logics behind certain decisions. One fact is crystal clear: Russia was robbed, indeed.

When working on this article, I relied on open-source documents that contain well-known facts rather than on some secret records. The leaders of modern Ukraine and their external “patrons” prefer to overlook these facts. They do not miss a chance, however, both inside the country and abroad, to condemn “the crimes of the Soviet regime,” listing among them events with which neither the CPSU, nor the USSR, let alone modern Russia, have anything to do. At the same time, the Bolsheviks' efforts to detach from Russia its historical territories are not considered a crime. And we know why: if they brought about the weakening of Russia, our ill-wishes are happy with that.

Of course, inside the USSR, borders between republics were never seen as state borders; they were nominal within a single country, which, while featuring all the attributes of a federation, was highly centralized – this, again, was secured by the CPSU's leading role. But in 1991, all those territories, and, which is more important, people, found themselves abroad overnight, taken away, this time indeed, from their historical motherland.

What can be said to this? Things change: countries and communities are no exception. Of course, some part of a people i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influenced by a number of reasons and historical circumstances, can become aware of itself as a separate nation at a certain moment. How should we treat that? There is only one answer: with respect! You want to establish a state of your own: you are welcome! But what are the terms? I will recall the assessment given

by one of the most prominent political figures of new Russia, first mayor of Saint Petersburg Anatoly Sobchak. As a legal expert who believed that every decision must be legitimate, in 1992, he shared the following opinion: the republics that were founders of the Union, having denounced the 1922 Union Treaty, must return to the boundaries they had had before joining the Soviet Union. All other territorial acquisitions are subject to discussion, negotiations, given that the ground has been revoked.

In other words, when you leave, take what you brought with you. This logic is hard to refute. I will just say that the Bolsheviks had embarked on reshaping boundaries even before the Soviet Union, manipulating with territories to their liking, in disregard of people's views.

The Russian Federation recognized the new geopolitical realities: and not only recognized, but, indeed, did a lot for Ukraine to establish itself as an independent country. Throughout the difficult 1990's and in the new millennium, we have provided considerable support to Ukraine. Whatever “political arithmetic” of its own Kiev may wish to apply, in 1991–2013, Ukraine's budget savings amounted to more than USD 82 billion, while today, it holds on to the mere USD 1.5 billion of Russian payments for gas transit to Europe. If economic ties between our countries had been retained, Ukraine would enjoy the benefit of tens of billions of dollars.

Ukraine and Russia have developed as a single economic system over decades and centuries. The profound cooperation we had 30 years ago is an example for the European Union to look up to. We are natural complementary economic partners. Such a close relationship can strengthen competitive advantages, increasing the potential of both countries.

Ukraine used to possess great potential, which included powerful infrastructure, gas transportation system, advanced shipbuilding, aviation, rocket and instrument

engineering industries, as well as world-class scientific, design and engineering schools. Taking over this legacy and declaring independence, Ukrainian leaders promised that the Ukrainian economy would be one of the leading ones and the standard of living would be among the best in Europe.

Today, high-tech industrial giants that were once the pride of Ukraine and the entire Union, are sinking. Engineering output has dropped by 42 per cent over ten years. The scale of deindustrialization and overall economic degradation is visible in Ukraine's electricity production, which has seen a nearly two-time decrease in 30 years. Finally, according to IMF reports, in 2019, before the coronavirus pandemic broke out, Ukraine's GDP per capita had been below USD 4 thousand. This is less than in the Republic of Albania, the Republic of Moldova, or unrecognized Kosovo. Nowadays, Ukraine is Europe's poorest country.

Who is to blame for this? Is it the people of Ukraine's fault? Certainly not. It was the Ukrainian authorities who wasted and frittered away the achievements of many generations. We know how hardworking and talented the people of Ukraine are. They can achieve success and outstanding results with perseverance and determination. And these qualities, as well as their openness, innate optimism and hospitality have not gone. The feelings of millions of people who treat Russia not just well but with great affection, just as we feel about Ukraine, remain the same.

Until 2014, hundreds of agreements and joint projects were aimed at developing our economies, business and cultural ties, strengthening security, and solving common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ey brought tangible benefits to people – both in Russia and Ukraine. This is what we believed to be most important. And that is why we had a fruitful interaction with all, I emphasize, with all the leaders of Ukraine.

Even after the events in Kiev of 2014, I charged the Russian government to

elaborate options for preserving and maintaining our economic ties within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However, there was and is still no mutual will to do the same. Nevertheless, Russia is still one of Ukraine's top three trading partner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Ukrainians are coming to us to work, and they find a welcome reception and support. So that what the “aggressor state” is.

When the USSR collapsed, many people in Russia and Ukraine sincerely believed and assumed that our close cultural, spiritual and economic ties would certainly last, as would the commonality of our people, who had always had a sense of unity at their core. However, events – at first gradually, and then more rapidly – started to move in a different direction.

In essence, Ukraine's ruling circles decided to justify their country's independence through the denial of its past, however, except for border issues. They began to

mythologize and rewrite history, edit out everything that united us, and refer to the period when Ukraine was part of the Russian Empire and the Soviet Union as an occupation. The common tragedy of collectivization and famine of the early 1930s was portrayed as the genocide of the Ukrainian people.

Radicals and neo-Nazis were open and more and more insolent about their ambitions. They were indulged by both the official authorities and local oligarchs, who robbed the people of Ukraine and kept their stolen money in Western banks, ready to sell their motherland for the sake of preserving their capital. To this should be added the persistent weakness of state institutions and the position of a willing hostage to someone else's geopolitical will.

I recall that long ago, well before 2014, the U.S. and EU countries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pushed Ukraine to curtail and limit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We, as the largest trade and economic partner of Ukraine, suggested discussing the emerging problems in the Ukraine-Russia-EU format. But every time we were

told that Russia had nothing to do with it and that the issue concerned only the EU and Ukraine. De facto Western countries rejected Russia's repeated calls for dialogue.

Step by step, Ukraine was dragged into a dangerous geopolitical game aimed at turning Ukraine into a barrier between Europe and Russia, a springboard against Russia. Inevitably, there came a time when the concept of “Ukraine is not Russia” was no longer an option. There was a need for the “anti-Russia” concept which we will never accept.

The owners of this project took as a basis the old groundwork of the Polish-Austrian ideologists to create an “anti-Moscow Russia”. And there is no need to deceive anyone that this is being done in the interests of the people of Ukraine. The Polish-Lithuanian Commonwealth never needed Ukrainian culture, much less Cossack autonomy. In Austria-Hungary, historical Russian lands were mercilessly exploited and remained the poorest. The Nazis, abetted by collaborators from the OUN-UPA, did not need Ukraine, but a living space and slaves for Aryan overlords.

Nor were the interests of the Ukrainian people thought of in February 2014. The legitimate public discontent, caused by acute socio-economic problems, mistakes, and inconsistent actions of the authorities of the time, was simply cynically exploited. Western countries directly interfered in Ukraine's internal affairs and supported the coup. Radical nationalist groups served as its battering ram. Their slogans, ideology, and blatant aggressive Russophobia have to a large extent become defining elements of state policy in Ukraine.

All the things that united us and bring us together so far came under attack. First and foremost, the Russian language. Let me remind you that the new “Maidan” authorities first tried to repeal the law on state language policy. Then there was the law on the “purification of power”, the law on education that virtually cut the Russian language out of the educational process.

Lastly, as early as May of this year, the current president introduced a bill on “indigenous peoples” to the Rada. Only those who constitute an ethnic minority and do not have their own state entity outside Ukraine are recognized as indigenous. The law has been passed. New seeds of discord have been sown. And this is happening in a country, as I have already noted, that is very complex in terms of its territorial, national and linguistic composition, and its history of formation.

There may be an argument: if you are talking about a single large nation, a triune nation, then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who people consider themselves to be – Russians, Ukrainians, or Belarusians. I completely agree with this. Especially since the determination of nationality, particularly in mixed families, is the right of every individual, free to make his or her own choice.

But the fact is that the situation in Ukraine today is completely different because it involves a forced change of identity. And the most despicable thing is that the Russians in Ukraine are being forced not only to deny their roots, generations of their ancestors but also to believe that Russia is their enemy.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path of forced assimilation, the formation of an ethnically pure Ukrainian state, aggressive towards Russia, is comparable in its consequences to the us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gainst us. As a result of such a harsh and artificial division of Russians and Ukrainians, the Russian people in all may decrease by hundreds of thousands or even millions.

Our spiritual unity has also been attacked. As in the days of the Grand Duchy of Lithuania, a new ecclesiastical has been initiated. The secular authorities, making no secret of their political aims, have blatantly interfered in church life and brought things to a split, to the seizure of churches, the beating of priests and monks. Even extensive autonomy of the Ukrainian Orthodox Church while maintaining spiritual unity with the Moscow Patriarchate strongly displeases them. They have to destroy this prominent and centuries-old symbol of our kinship at all costs.

I think it is also natural that the representatives of Ukraine over and over again vote against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condemning the glorification of Nazism. Marches and torchlit processions in honor of remaining war criminals from the SS units take plac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official authorities. Mazepa, who betrayed everyone, Petliura, who paid for Polish patronage with Ukrainian lands, and Bandera, who collaborated with the Nazis, are ranked as national heroes. Everything is being done to erase from the memory of young generations the names of genuine patriots and victors, who have always been the pride of Ukraine.

For the Ukrainians who fought in the Red Army, in partisan units, the Great Patriotic War was indeed a patriotic war because they were defending their home, their great common Motherland. Over two thousand soldiers became Heroes of the Soviet Union. Among them are legendary pilot Ivan Kozhedub, fearless sniper, defender of Odessa and Sevastopol Lyudmila Pavlichenko, valiant guerrilla commander Sidor Kovpak. This indomitable generation fought, those people gave their lives for our future, for us. To forget their feat is to betray our grandfathers, mothers and fathers.

The anti-Russia project has been rejected by millions of Ukrainians. The people of Crimea and residents of Sevastopol made their historic choice. And people in the southeast peacefully tried to defend their stance. Yet, all of them, including children, were labeled as separatists and terrorists. They were threatened with ethnic cleansing and the use of military force. And the residents of Donetsk and Lugansk took up arms to defend their home, their language and their lives. Were they left any other choice after the riots that swept through the cities of Ukraine, after the horror and tragedy of 2 May 2014 in Odessa where Ukrainian neo-Nazis burned people alive making a new Khatyn out of it? The same massacre was ready to be carried out by the followers of Bandera in Crimea, Sevastopol, Donetsk and Lugansk. Even now they do not abandon such plans. They are biding their time. But their time will not come.

The coup d'état and the subsequent actions of the Kiev authorities inevitably provoked confrontation and civil war.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stimates that the total number of victims in the conflict in Donbas has exceeded 13,000. Among them are the elderly and children. These are terrible, irreparable losses.

Russia has done everything to stop fratricide. The Minsk agreements aimed at a peaceful settlement of the conflict in Donbas have been concluded. I am convinced that they still have no alternative. In any case, no one has withdrawn their signatures from the Minsk Package of Measures or from the relevant statements by the leaders of the Normandy format countries. No one has initiated a review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17 February 2015.

During official negotiations, especially after being reined in by Western partners, Ukraine's representatives regularly declare their "full adherence" to the Minsk agreements, but are in fact guided by a position of "unacceptability". They do not intend to seriously discuss either the special status of Donbas or safeguards for the people living there. They prefer to exploit the image of the "victim of external aggression" and peddle Russophobia. They arrange bloody provocations in Donbas. In short, they attract the attention of external patrons and masters by all means.

Apparently, and I am becoming more and more convinced of this: Kiev simply does not need Donbas. Why? Because, firstly, the inhabitants of these regions will never accept the order that they have tried and are trying to impose by force, blockade and threats. And secondly, the outcome of both Minsk-1 and Minsk-2 which give a real chance to peacefully restore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by coming to an agreement directly with the DPR and LPR with Russia, Germany and France as mediators, contradicts the entire logic of the anti-Russia project. And it can only be sustained by the constant cultivation of the image of an internal and external enemy. And I would add – under the protection and control of the

Western powers.

This is what is actually happening. First of all, we are facing the creation of a climate of fear in Ukrainian society, aggressive rhetoric, indulging neo-Nazis and militarising the country. Along with that we are witnessing not just complete dependence but direct external control, including the supervision of the Ukrainian authorities, security services and armed forces by foreign advisers, military “development” of the territory of Ukraine and deployment of NATO infrastructure.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aforementioned flagrant law on “indigenous peoples” was adopted under the cover of large-scale NATO exercises in Ukraine.

This is also a disguise for the takeover of the rest of the Ukrainian economy and the exploitation of its natural resources.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is not far off, and it is obvious who will buy it up. From time to time, Ukraine is indeed given financial resources and loans, but under their own conditions and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with preferences and benefits for Western companies. By the way, who will pay these debts back? Apparently, it is assumed that this will have to be done not only by today's generation of Ukrainians but also by their children, grandchildren and probably great-grandchildren.

The Western authors of the anti-Russia project set up the Ukrainian political system in such a way that presidents, members of parliament and ministers would change but the attitude of separation from and enmity with Russia would remain. Reaching peace was the main election slogan of the incumbent president. He came to power with this. The promises turned out to be lies. Nothing has changed. And in some ways the situation in Ukraine and around Donbas has even degenerated.

In the anti-Russia project, there is no place either for a sovereign Ukraine or for the political forces that are trying to defend its real independence. Those who talk about reconciliation in Ukrainian society, about dialogue, about finding a way out of the current impasse are labelled as “pro-Russian” agents.

Again, for many people in Ukraine, the anti-Russia project is simply unacceptable. And there are millions of such people. But they are not allowed to raise their heads. They have had their legal opportunity to defend their point of view in fact taken away from them. They are intimidated, driven underground. Not only are they persecuted for their convictions, for the spoken word, for the open expression of their position, but they are also killed. Murderers, as a rule, go unpunished.

Today, the “right” patriot of Ukraine is only the one who hates Russia. Moreover, the entire Ukrainian statehood, as we understand it, is proposed to be further built exclusively on this idea. Hate and anger, as world history has repeatedly proved this, are a very shaky foundation for sovereignty, fraught with many serious risks and dire consequences.

All the subterfuges associated with the anti-Russia project are clear to us. And we will never allow our historical territories and people close to us living there to be used against Russia. And to those who will undertake such an attempt, I would like to say that this way they will destroy their own country.

The incumbent authorities in Ukraine like to refer to Western experience, seeing it as a model to follow. Just have a look at how Austria and Germany, the USA and Canada live next to each other. Close in ethnic composition, culture, in fact sharing one language, they remain sovereign states with their own interests, with their own foreign policy. But this does not prevent them from the closest integration or allied relations. They have very conditional, transparent borders. And when crossing them the citizens feel at home. They create families, study, work, do business. Incidentally, so do millions of those born in Ukraine who now live in Russia. We see them as our own close people.

Russia is open to dialogue with Ukraine and ready to discuss the most complex issues. But it is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that our partner is defending its national interests but not serving someone else's, and is not a tool in someone

else's hands to fight against us.

We respect the Ukrainian language and traditions. We respect Ukrainians' desire to see their country free, safe and prosperous.

I am confident that true sovereignty of Ukraine is possible only in partnership with Russia. Our spiritual, human and civilizational ties formed for centuries and have their origins in the same sources, they have been hardened by common trials, achievements and victories. Our kinship has been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 is in the hearts and the memory of people living in modern Russia and Ukraine, in the blood ties that unite millions of our families. Together we have always been and will be many times stronger and more successful. For we are one people.

Today, these words may be perceived by some people with hostility. They can be interpreted in many possible ways. Yet, many people will hear me. And I will say one thing – Russia has never been and will never be “anti-Ukraine”. And what Ukraine will be – it is up to its citizens to decide.

V.Putin

2. Speech by the President of Ukraine at a mee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Volodymyr Zelenskyy

Dear Mrs. President!

Dear Mr. Secretary General!

Dear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and other participants of the meeting!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I am sure that all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 member states will hear me today.

Yesterday I returned from our city of Bucha, recently liberated from the troops of the Russian Feder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a war crime that the occupiers have not committed there.

The Russian military searched for and purposefully killed anyone who served our state.

They executed women outside the houses when approaching and simply calling someone alive.

They killed whole families - adults and children. And they tried to burn their bodies.

I am addressing you on behalf of the people who honor the memory of the deceased everyday. Everyday, in the morning.

The memory of the killed civilians.

Who were shot in the back of the head or in the eye after being tortured. Who were shot just on the streets.

Who were thrown into the well, so that they die there in suffering.

Who were killed in apartments, houses, blown up by grenades. Who were crushed by tanks in civilian cars in the middle of the road. For fun.

Whose limbs were cut off, whose throat was cut. Who were raped and killed in front of their own children.

Their tongues were torn out only because they did not hear from them what they wanted to hear.

How is this different from what the ISIS terrorists were doing in the occupied territory?

Except that it is done by a permanent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t destroys the internal unity of states.

Destroys state borders.

Denies the right of more than a dozen peoples on two continents to self-determination and independent state life. Pursues a consistent policy of destroying ethnic and religious diversity.

Inflames wars and deliberately wages them in such a way as to kill as many ordinary civilians as possible. To destroy as many ordinary peaceful cities as possible. To leave in the country where it sends its troops only ruins and mass graves. You've seen it all.

Promotes hatred at the state level and seeks to export it to other countries through its system of propaganda and political corruption.

Provokes a global food crisis that could lead to famine in Africa and Asia, and will certainly end in large-scale political chaos in countries where food price stability is a key factor of domestic security.

So where is the security that the Security Council must guarantee? There is no security. Although there is a Security Council, as if nothing happened.

So where is the peace that the United Nations was created to guarantee?

It is obvious that the key institution of the world, which must ensure the coercion of any aggressors to peace, simply cannot work effectively.

Now the world has seen what the Russian military did in Bucha while keeping our city under occupation. But the world has yet to see what they have done in other occupied cities, in other occupied areas of our country.

Geography may be different, but cruelty is the same. Crimes are the same.

And responsibility must be inevitable.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irst article of the first chapter of the UN Charter. What is the purpose of our organization? To maintain peace. And to force to peace. Now the UN Charter is being violated literally from the first article. And if so, what is the point of all other articles?

Today, it is as a result of Russia's actions on the territory of my state, on the territory of Ukraine, that the most heinous war crimes of all time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re being committed.

Russian troops are deliberately destroying Ukrainian cities to ashes with artillery and air strikes.

They are deliberately blocking cities, creating mass starvation in them. They are deliberately shooting at columns of civilians on the roads who are trying to escape from the territory of hostilities.

They are even deliberately blowing up shelters where civilians are hiding from air strikes. They are deliberately creating conditions in the temporarily occupied territories so that as many civilians as possible are killed there.

The massacre in our city of Bucha is just one, unfortunately, of many examples of what the occupiers have been doing on our land for 41 days.

And there are many other such places that the world has yet to find out the full truth of: Mariupol, Kharkiv, Chernihiv, Okhtyrka, Borodyanka and dozens of other Ukrainian communities, each of which is like Bucha.

I know, and you know very well, what the representatives of Russia will say in response to the accusations of these crimes. They have said this many times. The most illustrative was after the downing of a Malaysian Boeing over Donbas by Russian forces with Russian weapons. Or during the war in Syria.

They will blame everyone, just to justify themselves. They will say that there are different versions, and which of them is true is allegedly impossible to establish yet. They will even say that the bodies of those killed were allegedly “planted”, and all the videos are staged.

But. Now is the year 2022. There is conclusive evidence. There are satellite images. It is possible to conduct a full, transparent investigation.

That is what we are interested in.

Maximum access of journalists. Maximum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volve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ull truth, full responsibility.

I am sure that every state in the UN system should be interested in this. For what? In order to punish once and for all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privileged, consider themselves unpunished. Hence, to show all other potential war criminals in the world that they will inevitably be punished as well. If the biggest is punished, everyone will be punished.

Why did Russia come to Ukraine, tell me?

I will answer. Russia's leadership feels like colonizers - as in ancient times. They need our wealth and our people. Russia has already deported tens of thousands of our citizens to its territory. Then there will be hundreds. It abducted more than two thousand children. Simply abducted thousands of children. And continues to do so. Russia wants to turn Ukrainians into silent slaves.

The Russian militaries are openly looting the cities and villages they have captured. This is looting of the highest scale. They steal everything from food to gold earrings they just rip out with blood.

We are dealing with a state that turns the right of veto in the UN Security Council into a right to kill.

Which undermines the whole architecture of global security.

Which allows evil to go unpunished and spread the world. Destroying everything that can work for peace and security.

If this continues, the finale will be that each state will rely only on the power of arms to ensure its security, not on international law, not on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n, the UN can simply be dissolved.

Ladies and Gentlemen!

Are you ready for the dissolving of the UN? Do you think that the time of international law has passed?

If your answer is no, you need to act now, act immediately.

The power of the UN Charter must be restored immediately.

The UN system must be reformed immediately so that the right of veto is not a right to kill. So that there is a fair representation of all regions of the world in the Security Council.

The aggressor must be forced to peace immediately. Determination is needed. The chain of mass killings from Syria to Somalia, from Afghanistan to Yemen and Libya should have been stopped a long time ago to be honest.

If tyranny had ever received such a response to the war it had unleashed that it would have ceased to exist and a fair peace would have been guaranteed after it, the world would have changed for sure.

And then, perhaps, we would not have a war, a war in my country. Against our nation, the Ukrainian nation. Against people.

But the world watched and did not want to see the occupation of Crimea, or even before - the war against Georgia, or even earlier - the alienation from Moldova of the entire Transnistrian region. It also didn't want to see how Russia was preparing the ground for other conflicts and wars near its borders.

How to stop it?

Immediately bring the Russian military and those who gave them orders to justice for war crimes in Ukraine.

Everyone who gave criminal orders and fulfilled them by killing people will face a tribunal similar to the Nuremberg trials.

I want to remind Russian diplomats that a man like von Ribbentrop has not avoided punishment after World War II.

And I also want to remind the architects of Russia's criminal policy that punishment has reached Adolf Eichmann as well.

None of the culprits will escape. No one.

But the main thing is that today is the time to transform the system, the core of which is the United Nations. To do this, we propose to convene a global conference. And we ask to do it already in peaceful Kyiv - in order to decide.

How we will reform the world security system.

How we will really guarantee the inviolability of universally recognized borders and the integrity of states.

How we will ensure the rule of international law.

It is now clear that the goals set in San Francisco in 1945 during the creation of a global international security organization have not been achieved. And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m without reforms.

Therefore, we must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s an effective UN with the ability to respond preventively to security challenges and thus guarantee peace.

Prevent aggression and force aggressors to peace. Have the determination and ability to punish if the principles of peace are violated.

There can be no more exceptions, privileges. Everyone must be equal. All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gardless of economic strength, geographical area and individual ambitions.

The power of peace must become dominant. The power of justice and the power of security. As humanity has always dreamed of.

Ukraine is ready to provide a platform for one of the main offices of the updated security system.

Just as the Geneva office specializes in human rights, just as the Nairobi office specializ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Kyiv U-24 Office can specialize in preventive measures to maintain peace.

I want to remind you of our peaceful mission in Afghanistan. When, at our own expense, we Ukrainians evacuated more than a thousand people from this country. And it was the hottest phase. But people needed help - and Ukraine came. Just like other states.

We evacuated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different faiths. Afghans, citizens of European countries, USA, Canada. We did not distinguish who needs help, whether these are our people or not. We saved everyone.

If every time there was a need everyone in the world was confident that help would come, the world would be definitely safer.

Therefore, Ukraine has the necessary moral right to propose a reform of the world security system.

We have proven that we help others not only in good times, but also in dark

times.

And now we need decisions from the Security Council. For peace in Ukraine. If you do not know how to adopt this decision, you can do two things.

Remove Russia as an aggressor and a source of war from blocking decisions about its own aggression, its own war. And then do everything that can establish peace.

Or show how you can reformat and really work for peace.

Or if your current format is unalterable and there is simply no way out, then the only option would be to dissolve yourself altogether.

I am convinced that you can do without the third option.

Ukraine needs peace. We need peace. Europe needs peace. The world needs peace.

And finally, I'm asking you to watch the video. A short one.

A video of what has come to replace your power because someone alone can abuse his rights.

This is what impunity leads to.

If possible - watch this video. Because there is no opportunity for everyone to come to us and see it. So watch it.

Thank you.

『민족연구』 논문투고와 집필요령 및 심사과정

한국민족연구원이 연 2회 발간하는 『민족연구』는 세계의 민족과 민족문제를 중심적인 연구과제로 설정, 현대세계의 제반 민족문제의 근원적 실체와 이의 발전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입니다. 본 연구원은 관련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환영합니다.

I. 논문 투고

1. 편집대상: 민족주의 이론, 각 지역과 개별국가의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소수민족 현황, 기타 사회과학 일반 등과 관련된 논문
2. 투고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인 논문은 편집대상에서 제외함
3. 논문 뒤에는 반드시 외국어로 논문제목, 초록(외국어논문인 경우에는 국문초록), 외국어 저자명,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첨부함
4. 원고는 '한글' 혹은 'MS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본 1부와 저장장치를 아래주소로 우송하

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5. 연락처

-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1길 5-4(수유동)
- 전화번호: 010-2784-1105
- E-Mail: goodsociety123@hanmail.net

II. 논문 집필 요령

1.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0-150매 혹은 A4용지 20-25매 내외
2. 한자와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넣어 표기
3. 출전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 1) 서양서 및 현대물의 출전 표시 요령
 - ①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 중국, 월남 인명은 성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
 - ②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 ③ 구체적인 예
·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
(예: ...조정남(2011)...)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
(예: ...테일러(Taylor 1994)...)
 - ④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
(예: ...[조정남 2011]... 혹은 ...[Kymlicka 2002]...)
 - ⑤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점표표를 하고 숫자만 표기
(예: ...[Evans 1979, 56]... 혹은 ...[허생 1990, 12]...)
 - ⑥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냄

(예: ...[조정남 외 1991, 35-36]...)

⑦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
(예: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⑧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 (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日),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
(예: ...[중앙일보 93/04/08, 5], 혹은 ...[산동아 93/02, 233]...)

2) 참고문헌 작성요령

①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② 저서의 경우

조정남 · 이용승, 2011, 일본의 민족주의, 교양사회
Kymli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University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③ 논문의 경우

김용찬, 2007, EU의 통합과 동아시아 공동체제의 합의,

민족연구 30, 26-51.

Joppke, C., 2004, The retreat of multicult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ry and poli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2), 237-257.

III. 논문 심사

1. 본 연구지의 편집의도와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경우 『민족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따름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함. 심사위원은 당해 논문의 전 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당해 논문제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 위촉을 원칙으로 함
3. 심사는 3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개별 심사위원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게재 여부가 결정됨
4. 심사 판정 기준표(심사위원 3인 기준)
5. 수정지시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이를 수정 · 보완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가, 가 가, 가, 수정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불가 가, 가, 불가	가, 가, 재심 가, 수정, 재심 수정, 수정, 재심 수정, 재심, 재심 가, 재심, 불가	가, 불가, 불가 수정(재), 수정(재), 불가 수정(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다시 제출하여야 함. 수정과정에서 논문 필자는 수정한 부분을 별도의 양식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함. 수정지시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

IV. 발행

1. 『민족연구』 발행일 및 논문투고 마감일

민족연구 발행일	논문마감일
2023년 3월 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9월 1일	2023년 6월 30일

2. 연구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함. 전자출판은 한국민족연구원 홈페이지(www.nationsworld.kr)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kci.go.kr>)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별도의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타 기관에서 제공될 수 있음
3.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연구소는 편집저작권과 게재된 논문을 CD-ROM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할 권리 및 전송할 권리를 무상으로 소유함

[민족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1조(취지)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훈령을 기초로 하여, 회원 교수 및 연구자들의 학문적 양심과 학자적 소양을 제고하고 또한 연구와 관련된 어떠한 비양심적, 불법적 행태를 지양하여, 학술활동에 관련된 기초적 윤리와 도덕의 함양 및 유지를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함을 그 취지로 한다.

제2조(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이 발간하는 『民族研究』(영문명: Minjok Yeonku)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民族研究』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윤리규정 서약)

『民族研究』가 학술지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혹은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였을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민족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심의요청)

본 연구원의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연구자의 행위가 위의 제5조에 규정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조·변조 및 표절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논문의 투고 및 게재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 및 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조·변조 및 표절로 간주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3. '표절'
 - 1)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상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이용하는 경우.
 - 2)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를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제9조(논문의 중복게재 정의)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 혹은 게재한 경우를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제10조(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투고 논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9년 3월 이후부터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심의를 받은 논문만을 인정한다.

제11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① 「민족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변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연구 부정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2. 해당행위 발생시점 이후 7년간 투고자격 상실
 3.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4. 한국연구재단 통보 및 KCI 등록 취소
 5. 민족연구원 홈페이지에 해당사실 게재
-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강화)

- ① 제10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제5항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일정기간 투고자격 상실”을 “해당행위 발생 시점 이후 7년간 투고자격 상실”로 수정한다.
- ② 제10조 제5항의 4와 5를 추가한다.

부 칙 (2019.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신설)

- ① 제10조(I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다.
- ② 기존의 제10조는 제11조로 한다.

한국민족연구원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연구 조사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원은 민족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지인 『민족연구』를 연간 2회 발행·보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nationsworld.kr>)를 통해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인적구성

- 원 장 : 趙政男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부 원 장 : 이제국 (토피아 아카데미 대표)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연구위원 :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우평균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병국 (전 서울시 시의원)
 金秀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 호사가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송종호 (서울경제신문 기자)
 洪敏植 (강원대학교 교수) 이용승 (대구대학교 교수) 송태희 (SNBC 부장)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 나영주 (강원대학교) 강권찬 (전 청와대 비서관)
 조화성 (고려대학교) 이정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인성 (고려대학교)
- 총 무 : 김희선 (서울시)

◆ 발행처

민족연구 80

ISSN 1229-2796
값 15,000원

〈민족연구〉

편 집 : (사)한국민족연구원
발행인 : 조경남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31길 5-4
 (수유동) (우: 01029)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EL : 010-2784-1105
발행일 : 2022년 9월 1일 (연 2회간)
인 쇄 : 다래기획

발행처 : 교양사회
<http://www.nationsworld.kr>

〈편집위원장〉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편집위원〉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이은정 (영남대학교)
조성준 (가천대학교) 조봉래 (인천대학교)
조현구 (고려대학교) 나영주 (강원대학교)
박선경 (인천대학교) 송승중 (대전대학교)
이동민 (단국대학교) 김향은 (고신대학교)
정용숙 (춘천교육대학교) 정성운 (통일연구원)
변영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예지 (대구대학교)
방성운 (경북대학교)

〈편집주간〉

이용승 (대구대학교)

〈편집간사〉

방성운 (경북대학교)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세계의 문화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 ▶ 「세계의 문화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절차

1. 아래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2. 해당하는 구독료를 〈대우은행 508-12-751476-3〉 예금주 : 이용승(민족연구)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연 락 처

〈저널 출판부〉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1길 5-4(수유동) (우편번호 : 01029)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EL : 010-2784-1105

Homepage : <http://www.nationsworld.kr>

 교양사회

〈절취선〉

정기구독 신청서

 교양사회

저널명	간 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세계의 문화 민족연구	반년간	2권 (1년분)	₩ 30,000	~	
		4권 (2년분)	₩ 50,000	~	
구독자	구독자명(기관)			전화	
	주 소	우편번호 ()			
	E-mail				